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BOK Regional Economic Report

2013년 여름호
창간호

본 자료는 한국은행의 16개 지역본부가 금년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집계한 것으로서 최근 지역경제 흐름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이 추후 발표하는 공식통계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주체들이 경제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흐름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판단에 이용할 수 있는 통계는 1~2개월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미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지역경제 모니터링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최근의 경기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앙은행이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기업체감경기는 실제 경기흐름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행도 공식통계에 의존하던 「최근의 지방경제동향」을 속보성이 강화된 모니터링 중심의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로 전면 개편하여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는 한국은행 지역본부 직원들이 700여개 기업과 협회 관계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생생한 현장정보와 5,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본부가 취득한 정보를 조사국이 종합 정리하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기흐름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정보를 계량화하고 차트로 시각화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경기흐름을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는 생산, 수요, 고용, 물가 및 주택가격, 금융 부문의 동향을 포괄하는 종합보고서로서 광역경제권과 이를 종합한 전국의 경제동향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한 주요 연구자료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 국민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잘 이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감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첩경은 정확한 정보의 제공인 만큼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정교화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경제주체들에게 더욱 속도감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3년 8월
한국은행 총재 김 중 수



차 례

I. 최근 지역경제 동향¹⁾	1
1. 종합동향	6
2. 수도권	11
3. 동남권	16
4. 충청권	21
5. 호남권	25
6. 대경권	30
7. 강원권	34
8. 제주권	37
II. 주요 지역경제 연구	41
1. 논고	43
2. 지역본부 주요 조사연구보고서	47
III. 지표로 보는 지역경제	61
<부록>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자료 목록	79

1) 지역별 경제동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경제권역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 경북), 강원권, 제주권 등 5+2개의 광역경제권역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I

최근 지역경제 동향

1. 종합동향	6
2. 수도권	11
3. 동남권	16
4. 충청권	21
5. 호남권	25
6. 대경권	30
7. 강원권	34
8. 제주권	37

< 요약 >**◇ 개황**

한국은행 16개 지역본부가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면 7~8월중 국내 경기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및 제주권에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남권, 대경권 및 호남권에서는 회복세가 미약하거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산

7~8월중 제조업생산은 IT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업생산은 제주권과 강원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회복세가 미약하거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요

7~8월중 수출은 2/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는 2/4분기 수준에 그쳤으며 건설투자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개선추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

7월중 고용상황은 대경권과 강원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취업자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 취업자수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 등에 힘입어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제조업체가 신규 고용을 꺼리고 있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7월중 소비자물가는 외식비 등이 상승한 제주권 이외의 대부분 권역에서 1%대 초반에서 중반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주택가격은 대부분의 권역에서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

7~8월중 기업자금사정은 2/4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한국은행과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제고 노력 등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완화된 모습이다.

모니터링: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대부분의 업체가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對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산업(2013년 상반기 기준 43%)과 철강산업(15%)의 경우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경권, 충청권 및 호남권 등에서 중국경제의 성장 모멘텀 둔화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미국경제의 회복은 IT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등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함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외불확실성이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 수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엔화약세

엔화약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까지는 관광업, 수산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과 동남권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로, 제주권에서는 수산물 수출부진으로 엔화약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력부족

최근 전력부족으로 일부 철강업체는 설비보수 시기를 전력사용량이 많은 8월로 조정하였으며 일부 숙박업체의 경우 실내온도 규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역별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주력산업 동향

◇ IT

IT산업은 수도권에서 반도체, 휴대폰 및 LED 조명기구를 중심으로, 충청권에서는 반도체 및 중소형 디스플레이(LCD, OLED) 패널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

자동차산업은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노사간 주말 특근 재개 합의에 따른 생산 정상화, 신차 출시 및 수출 증가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호남권에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부분파업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향후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석유화학

석유화학산업은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에서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 철강

철강산업은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국의 생산량 확대에 의한 글로벌 공급과잉현상 등으로 업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선

조선업은 동남권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박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형 조선사 중심의 호남권에서는 일반상선에 대한 수주잔량 감소로 조업량이 줄어드는 등 부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향후 유로지역의 경기부진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저가수주 기회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조선업 업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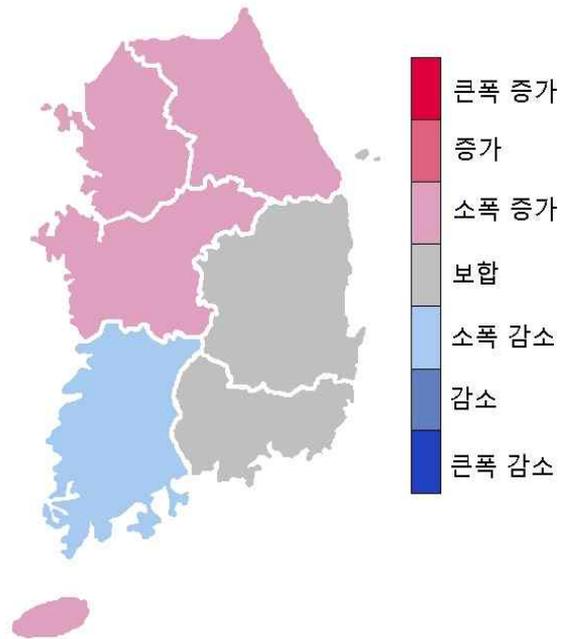
종합 동향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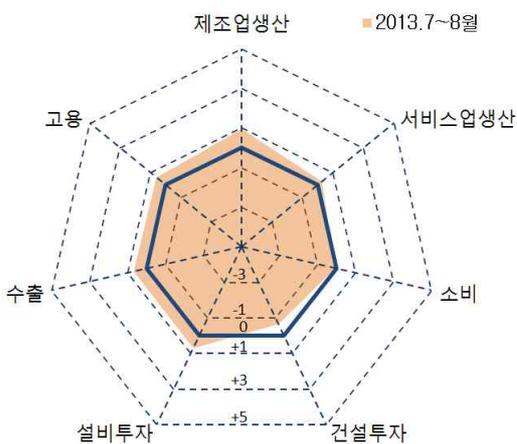
한국은행 16개 지역본부가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면 7~8월중 국내 경기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및 제주권에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남권, 대경권 및 호남권에서는 회복세가 미약하거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생산의 경우 회복세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2/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는 2/4분기 수준에 그쳤으며 건설투자는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개선 추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고용사정은 취업자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 수준을 기록하여 2/4분기(1.1%)에 비해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대경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자금사정은 2/4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융기관 대출태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종합 경기판단(7~8월중)



경기 레이더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5(-5)에 가까울수록 더욱 크게 증가(감소), 0은 보합, +3은 예년평균 증가율 수준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생산

7~8월중 제조업생산은 2/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대폰, 중소형 패널, 반도체, 조명기구(LED) 등 IT제품 생산이 엔화약세 및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반면 철강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력부족에 대응하여 업체들이 자율적

으로 설비보수를 실시함에 따라 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동차산업은 노사갈등에 따른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IT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제조업생산이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및 강원권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생산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제조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에도 제조업생산은 미국, 일본 등의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IT업종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상당수의 업체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특히 석유화학 및 철강 업체는 여타 업종에 비해 중국경제 성장둔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7~8월중 서비스업생산은 2/4분기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제주권에서는 내국인 및 중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개선추세를 이어갔으나 수도권, 충청권 및 대경권에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동남권과 호남권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면 관광, 숙박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엔화약세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의 레저수요 증가 등으로 호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예년보다 긴 장마로 인해 개선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공공기관 이전, 지역사업 실시 등에 따른 건축·조정 설계 증가 등으로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소비위축,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에 따른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운수업도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긴 장마기간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급감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 업체들은 향후에도 가계채무부담, 전세가격 상승 등의 가계소비 제약요인으로 인해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리조트 등의 여가서비스업은 전력난에 따른 실내온도 규제 등으로 생산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다만, 제주권에서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업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생산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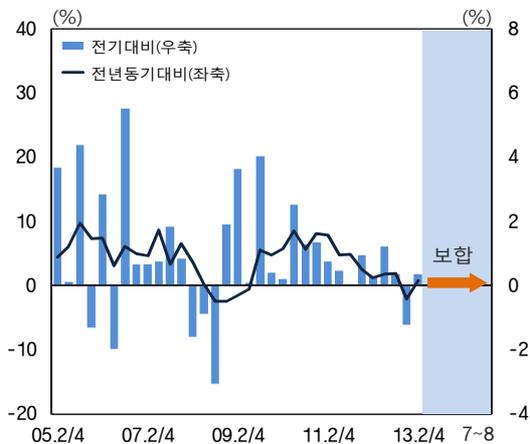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서비스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수요

7~8월중 소비는 대형소매점과 영세소매업체의 매출이 모두 2/4분기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어컨, 제습기와 같은 여름가전 제품, 휴가·나들이 용품 등 계절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여타 품목의 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및 강원·제주권에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당수 권역에서 소비지출전망 CSI가 2/4분기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어 당분간 소비가 본격적인 개선 추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매판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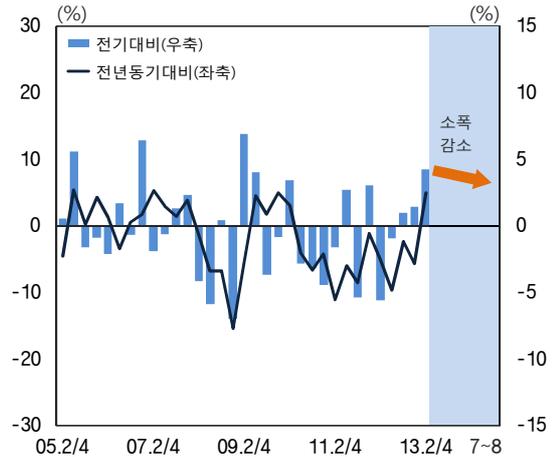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7~8월중 건설투자는 2/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택매매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공공부문의 발주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수주한 공사물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주택구매 수요회복의 지연 등으로 주택건설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공공부문의 발주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개선추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경권에서는 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등 지역의 대형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건설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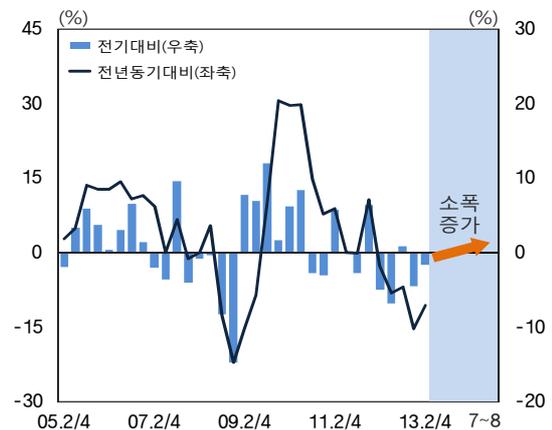
건설기성액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7~8월중 설비투자는 IT산업을 중심으로 2/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석유화학업체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강원권에서는 일부 대형리조트업체의 시설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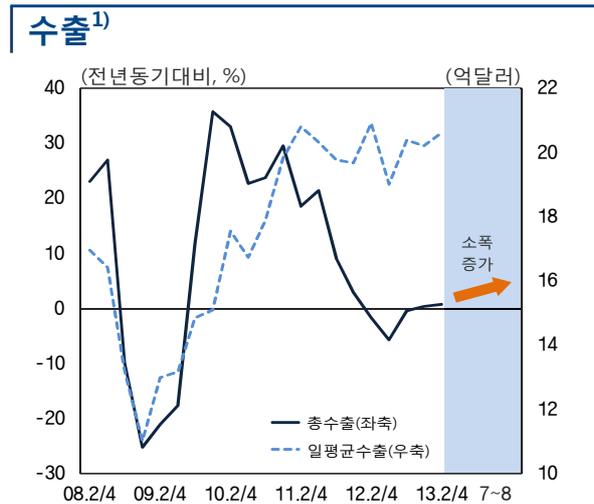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반도체업체의 경우 업황 호조세의 지속으로 하반기에 신규투자를 늘릴 예정이고 일부 조선업 및 화학업체도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이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시설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신규투자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은 엔화약세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4분기에 이어 개선추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반도체 등 IT제품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철강, 기계장비 및 섬유는 중국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엔화약세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강원 및 제주권에서 對일본 수출비중이 높은 음식료와 수산물의 수출이 엔화약세로 인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되는 가운데 저가수주 기회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철강산업의 경우 엔화약세 및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당분간 수출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엔화약세보다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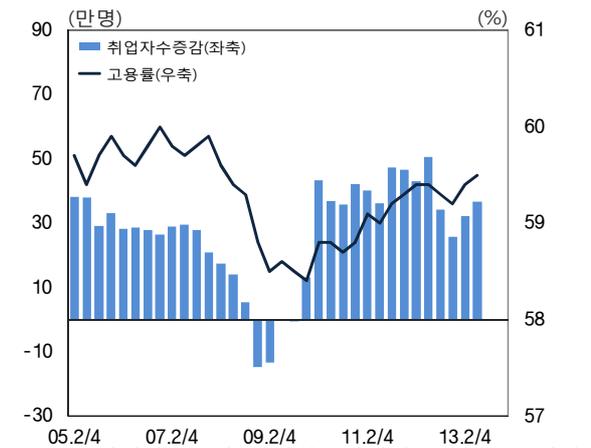
7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7만명 늘어나 2/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및 제주권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강원권은 취업자수가 전년동월 수준에 머물렀으며 대경권은 단순노무인력을 중심으로 3만명 감소하였다. 7월중 고용률(계절조정)은 59.5%로 2/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모니터링 결과 주력수출품인 IT제품과 자동차의 경우 향후 미국 및 일본의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선박수출도 유로지역의 경기부진이 완

취업자수증감 및 고용률¹)



주: 1) 취업자수증감은 전년동기대비, 고용률은 계절조정(S.A.) 계열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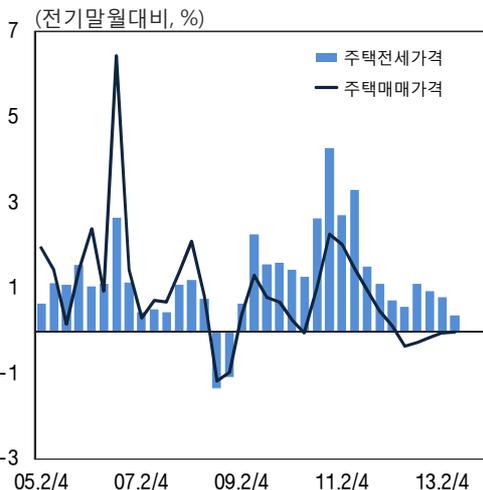
앞으로도 취업자수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이 제조업의 신규 고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물가 및 주택가격

7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4% 상승하여 2/4분기에 비해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이는 기상악화와 국제유가 반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데 주로 기인한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권에서 외식비 등을 중심으로 1.9%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강원권에서는 1%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나머지 권역들에서는 각각 1% 초반에서 중반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7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냈으나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에서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동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대경권에서는 공공기관 및 산업단지 이주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충청권에서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유지하였다. 주택전세가격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대경권과 충청권에서 주택전세가격이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강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도 소폭 상승하였다.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자료: 국민은행

금융

7~8월중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2/4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수도권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대체로 2/4분기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태도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권역에서 완화되는 모습이다. 향후에도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대출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사정 BSI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기업 자금사정의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수도권

개황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생산측면을 보면 7~8월중 서비스업생산이 2/4분기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제조업생산이 개선 추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수요측면에서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하였으나 설비투자가 소폭의 증가로 돌아섰고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고용사정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확대되고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개선되었으며, 물가는 서비스 및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기업의 자금사정은 2/4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레이다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5(-5)에 가까울수록 더욱 크게 증가(감소), 0은 보합, +3은 예년평균 증가율 수준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생산

7~8월중 제조업생산은 개선추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통신기기, 자동차와 조명기구(LED) 등의 생산은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반면 철강, 화학 등은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으며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및 음식료품 등은 보합수준을 유지하였다.

휴대폰 부품은 주요 휴대폰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및 베트남 등에서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로 생산이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일부 업체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신차효과에 힘입어 내수 및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생산이 늘어났다. 반도체 및 조명기구(LED)는 각각 모바일용 제품수요 증가 및 국내외 조명 교체수요 확대¹⁾ 등으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철강 및 화학은 각각 선박용 기자재 및 플라스틱 공업제품의 대중수출을 중심으로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생산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제조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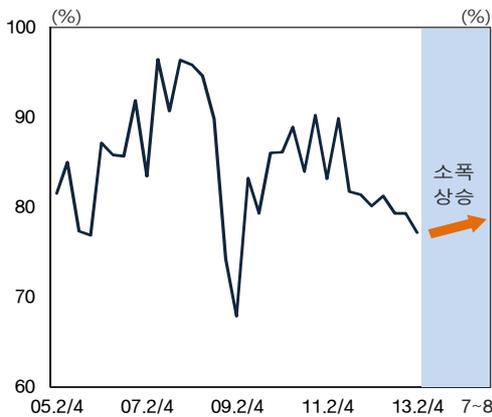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중국경제 둔화 및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회복,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당분간 생산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휴대폰, 반도체 등 IT업종은

1) LED는 반도체 소자의 하나인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로서 컴퓨터 본체, 대형 전광판, TV리모콘(TV본체에 신호를 보내는 무선광선) 등에 사용되며 에너지효율이 최고 9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이 5%에 불과한 백열등 및 형광등을 대체하는 LED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자동차는 생산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7~8월중 서비스업생산은 2/4분기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운수업이 인천항의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업황이 소폭 개선되었고 여행·영화 등 여가관련 업종은 캠핑 등 가족단위의 단기 국내여행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도소매업과 음식업은 소비심리 위축 지속 및 경쟁 심화로 업황이 부진하였고, 숙박업은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²⁾ 개최지인 인천을 제외하고는 일본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향후에도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및 음식업의 부진 등으로 보합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운수업은 수출증가에 힘입어 소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업매출 BSI¹⁾²⁾³⁾



주: 1) 건설업 포함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서비스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3) 09.8월 이전은 서울지역 제외 지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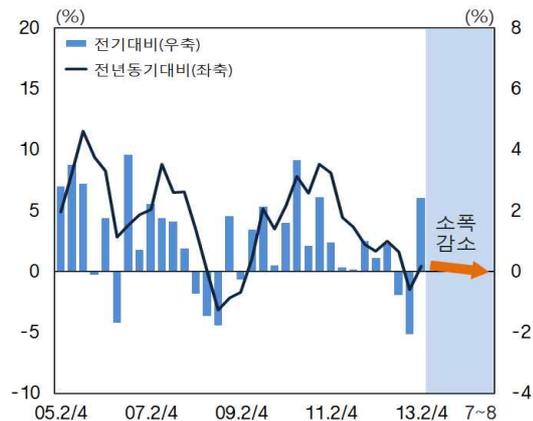
수요

7~8월중 소비는 2/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지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에어컨 및 휴가용품이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

2) 공식명칭은 제4회 실내&武道아시아경기대회로 방콕, 마카오, 하노이에 이어 8일간(6.29~7.6)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동 대회에는 선수, 임원, 초청인사 및 심판 등 총 4,400여명이 참가하였다. 경기종목은 당구, 볼링, 체스·바둑, 댄스스포츠, 풋살, 실내카바디(술레잡기), 피구 및 격투기를 혼합한 경기, 킥복싱 & 무에이, 크라쉬(우즈베키스탄의 전통무예), 25m쇼트코스수영 등으로 구성되었다.

하고는 대체로 부진하였다. 재래시장 등 영세 소매업체의 매출도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무더위로 인한 이용객의 대형마트 이동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자동차 판매는 신차 출시 및 판촉 강화에 힘입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비는 7월의 소비지출전망 CSI가 소폭 하락하는 등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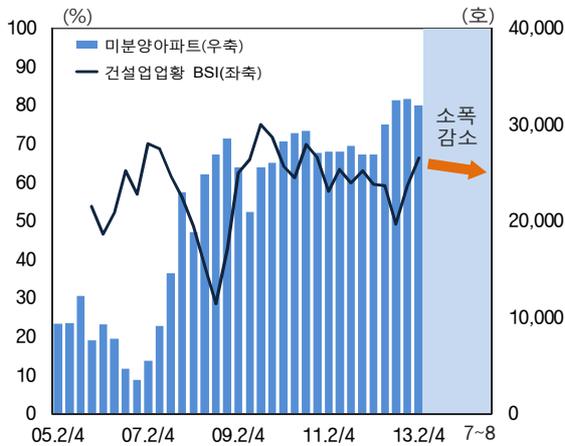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건설투자는 정부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가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인천 용유 에잇시티³⁾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무산과 제2서해안고속도로⁴⁾를 포함한 대형 국책사업의 재검토 등으로 공공사업 발주물량도 감소하였다. 다만, 2/4분기중 악화되었던 수익성은 3/4분기 들어 저가수주 지양 등 업체들의 자구노력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다. 향후에도 정부의 상반기중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SOC지출의 감소, 신규주택 수요 위축 등으로 건설투자는 상당기간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인천광역시 영종지구의 용유·무의도 일대에 2030년까지 마카오의 3배, 여의도의 28배에 달하는 80km²(2420만평)의 8차형 부지를 조성하여 총 317조원 투자규모의 문화관광레저 복합해상관광도시(Eightcity)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4) 서해안고속도로의 정체 해소 등을 위해 경기도 평택과 충남 부여를 잇는 길이 86.3km의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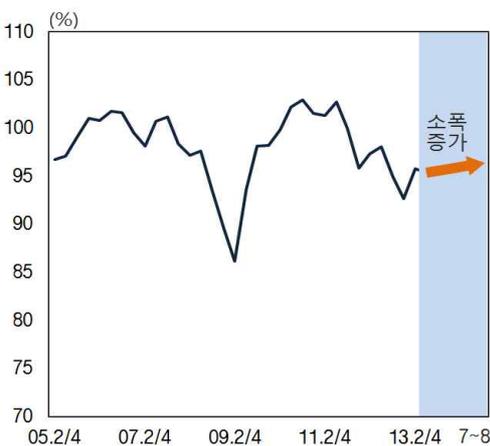
건설업업황 BSI¹⁾²⁾³⁾ 및 미분양아파트



주: 1) 업체별 매출액으로 가중한 지수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3) 09.8월 이전은 서울지역 제외 지수
 자료: 한국은행

설비투자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의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석유화학 업체는 연간 투자계획 실행을 위해 상반기중 이연분을 포함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의 설비투자전망 BSI가 소폭 상승하는 등 향후에도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BSI¹⁾²⁾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2) 09.8월 이전은 서울지역 제외 지수
 자료: 한국은행

수출은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2/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 및 반도체가 신제품 출시 등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디스플레이 및 석유제품은 모바일용 소형제품, 나프타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동차는 북미지역에서의 신차 출시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제품과 자동차는 글로벌 업황 개선, 신제품 출시 등으로 향후에도 수출이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철강의 경우 엔화약세,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당분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화학제품은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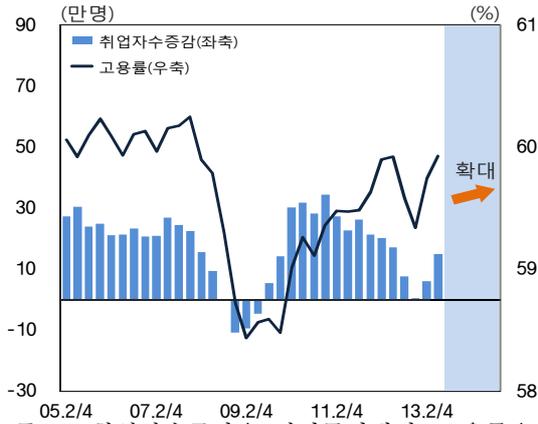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고용

7월중 고용사정은 취업자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2/4분기에 비해 개선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및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줄어든 반면, 여타 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크게 늘었고 제조업 취업자수도 다소 증가하였다. 8월에는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겠

으나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수가 줄어들어 7월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수증감 및 고용률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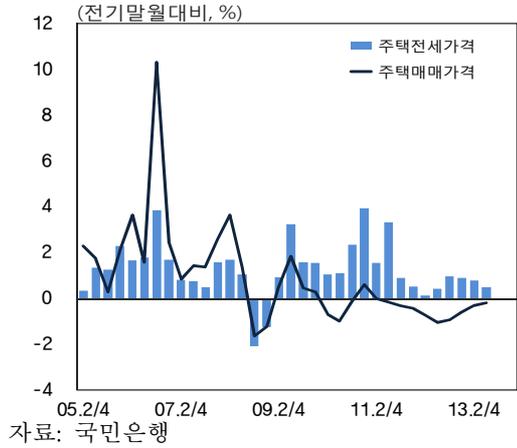
주: 1) 취업자수증감은 전년동기대비, 고용률은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취업자수의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물가 및 주택가격

7월중 소비자물가는 집세, 전기·가스·수도료 등 서비스 요금과 공업제품 가격이 상승함⁵⁾에 따라 2/4분기에 비해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종료(6월말)에 따른 매수심리 악화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전세가격은 주택매수심리 악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현상이 겹치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5) 집세 및 전기가스수도요금은 각각 최근 전세가격 상승 및 금년초 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고, 공업제품은 두유 및 과자류 등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다.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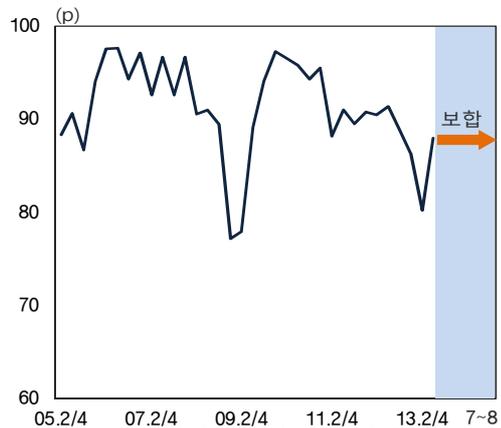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

금융

7~8월중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2/4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금융기관들의 대출태도도 전분기에 이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월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수도권 주택시장의 부진지속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향후에도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성장잠재력 및 고용 창출력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완화적인 대출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자금사정 BSI¹⁾²⁾



주: 1) 09.8월 이전은 서울지역 제외 지수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기업 자금사정의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연방 리포트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인천지역 입주기업 동향

지난 8월 14일 남북양측은 실무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 시작된 출경 제한으로 사실상 폐쇄상태이던 개성공단은 조만간 복구과정을 거친 후 재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기·전자 및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17개)들은 공단운영 중단에 따른 납품 지연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입주기업들은 최대 150억원에 달하는 투자액 회수가 불투명해지면서 자금사정이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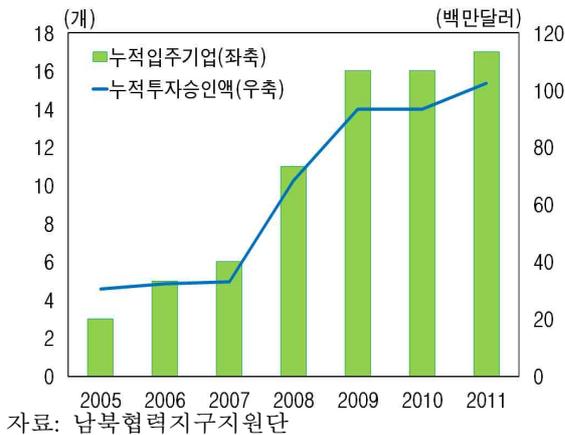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 정상화 합의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한 출입이 보장되고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직률이 낮고 숙련공으로 성장한 북측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이점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정상화 시점이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피해시설 복구 및 이탈한 대내외 거래처의 재확보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피해복구를 위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금사정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차원의 자금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개성공단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울(금융지원), 인천(인천항 및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물류지원), 개성(우수한 노동력 공급)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아울러 영종~강화간 도로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개성공단과 인천항 및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물류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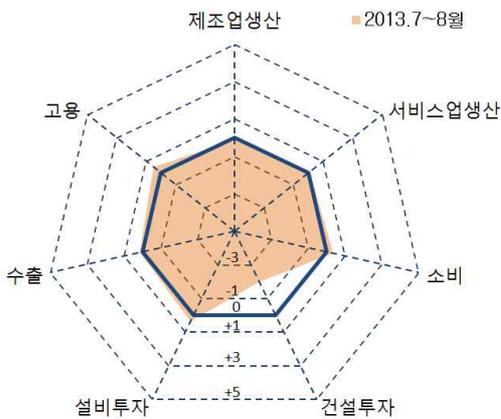


동남권

개황

동남권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 다. 생산측면을 보면 7~8월중 제조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이 모두 2/4분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에서는 수출 감소 폭이 축소되고 설비투자도 소폭 늘어났으나 건설투자는 감소하였다. 한편 고용사정은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물가는 오름세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완화기조 유지 등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레이더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5(-5)에 가까울수록 더욱 크게 증가(감소), 0은 보합, +3은 예년평균 증가율 수준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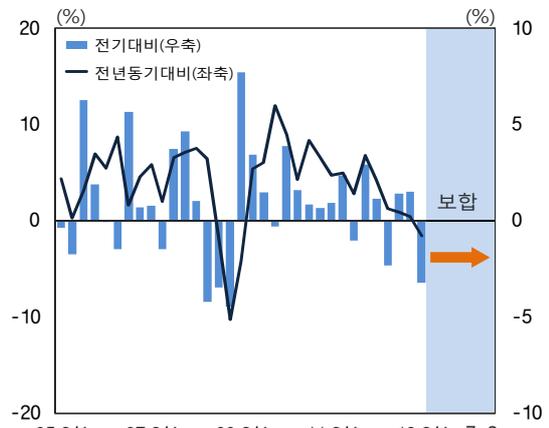
생산

7~8월중 제조업생산은 2/4분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운송장비는 고부가가치 선박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났고 자동차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

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반면, 기계장비는 중국, 미국 등 해외수요 둔화 및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석유정제 및 화학은 중국의 수요둔화 지속 등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체들은 중국 성장세 약화와 엔화약세 등에 따른 수출 신장세 제약으로 생산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제조업생산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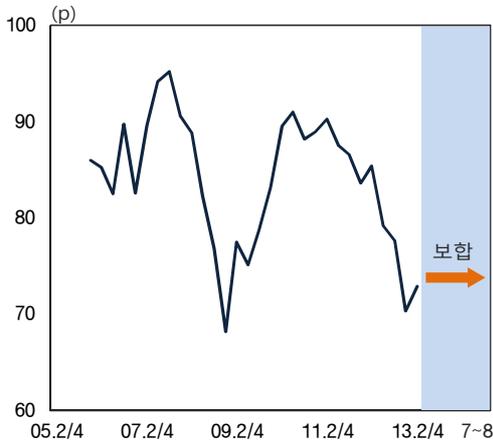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제조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은 부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7~8월중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매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음식숙박업은 엔화약세 등에 따른 일본인관광객 감소 및 기업의 행사축소⁶⁾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였다. 한편 운수업은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⁷⁾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업체들은 향후 가계소비 여력의 제약 등으로 빠른 업황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6) 모니터링 결과 기업체들의 해외 바이어 대상 행사 등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7) 금년 상반기중 부산항의 컨테이너물동량 처리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3% 늘어나는데 그쳐 2011년 10.1%, 2012년 9.0%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울산항의 컨테이너물동량 처리실적도 상반기중 0.5% 감소하였다.

서비스업매출 BSI¹⁾²⁾



주: 1) 건설업 포함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서비스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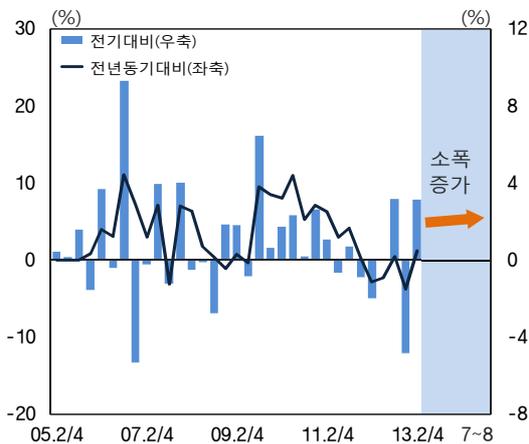
한편, 소비지출전망 CSI 및 현재생활형편 CSI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당분간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주택시장의 침체와 혁신도시 등 SOC부문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2/4분기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미분양아파트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주택매입 수요가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많은 건설업체들은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공공부문 발주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건설투자의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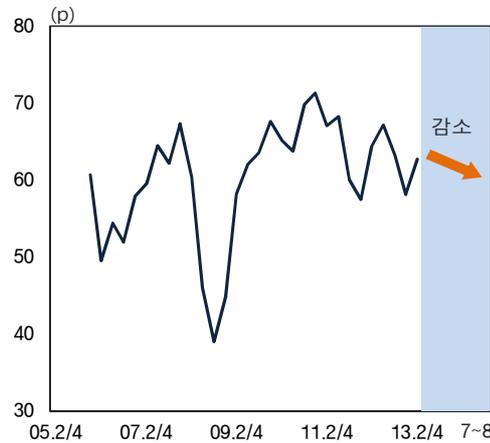
7~8월중 소비는 2/4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계절상품 및 야외용품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래시장 등 영세 소매업체의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자동차 판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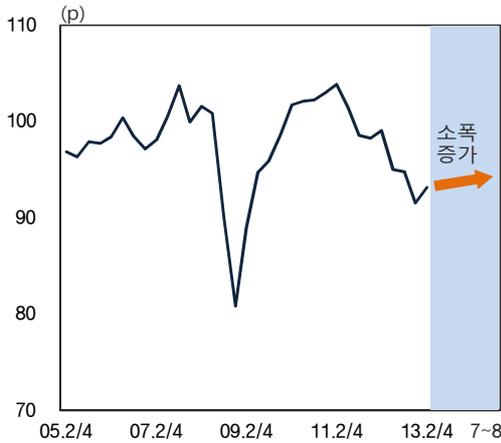
건설업업황 BSI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설비투자는 2/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니터링 결과 생산능력 확충보다는 석유화학, 조선 및 기계장비 업체들의 시설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상당수의 기업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향후 설비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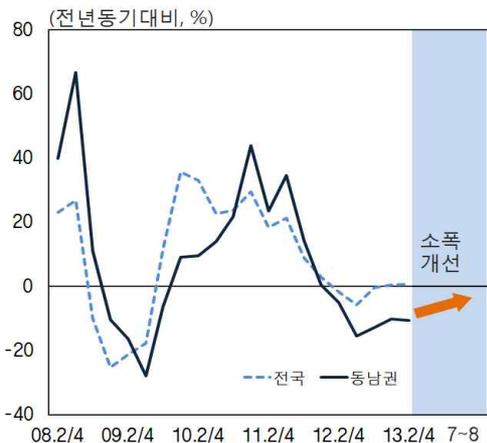
설비투자 BSI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수출⁸⁾은 2/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감소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기계장비와 철강 등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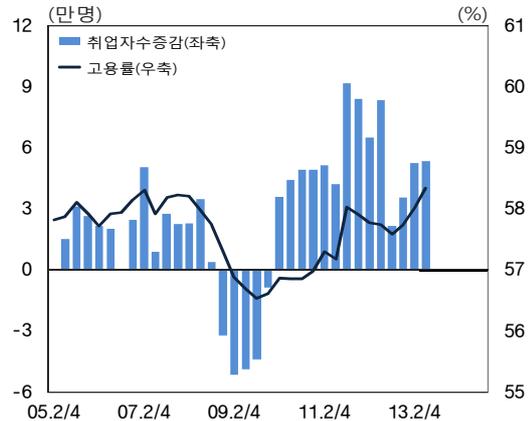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8) 7월중 동남권 수출은 철강·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9.8% 감소하였다.

고용

7월중 고용사정은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2/4분기에 이어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7~8월중 업체들의 인력수요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고용사정 개선 추세가 다소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자수증감 및 고용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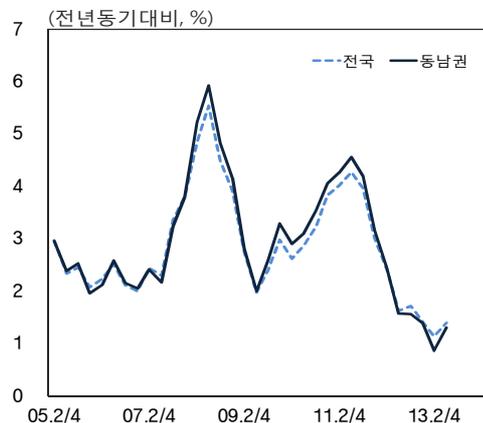


주: 1) 취업자수증감은 전년동기대비, 고용률은 계절조정(S.A) 계열업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물가 및 주택가격

7월중 소비자물가는 곡물, 과일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공업제품 가격도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2/4분기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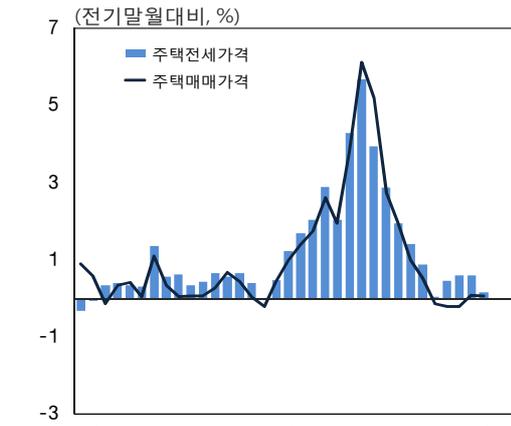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은 2/4분기에 이어 약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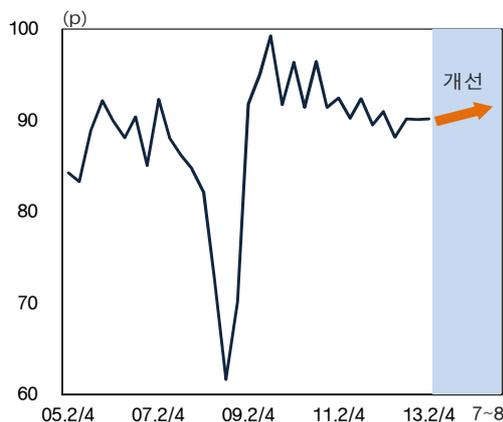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

금융

7~8월중 기업자금사정은 2/4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결과 금융기관들은 전분기에 이어 완화적인 대출 태도를 보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출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한국은행과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 BSI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기업 자금사정의 방향성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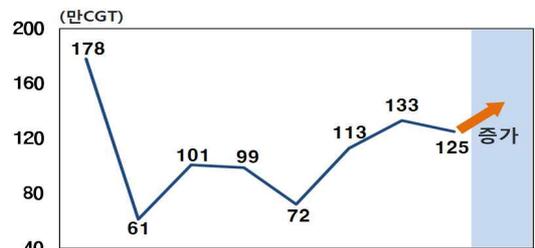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연장 리포트

최근 경남지역 주요 조선업체의 선박수주 상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상물동량 축소, 과잉 선박량 등으로 극히 부진하였던 경남지역 조선업체의 선박수주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가발주 기회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4/4분기중 61만CGT⁹⁾로 낮아졌던 신규수주는 금년 들어 매분기 100만 CGT를 상회하고 있으며, 7~8월중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수주¹⁾ 추이(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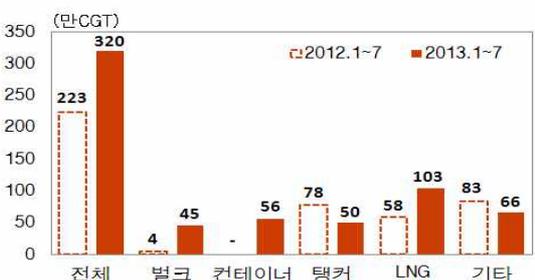


주: 1) 경남소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 성동조선 및 SPP조선 합계

자료: Clarkson

선종별로는 금년 1~7월중 벌크선(45만 CGT), 컨테이너(56만CGT), LNG(103만CGT) 등 상선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늘어났다.

선종별 신규수주¹⁾ 현황(1~7월중)



주: 1) 경남소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 성동조선 및 SPP조선 합계

9) CGT란 선박의 단순한 무게에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단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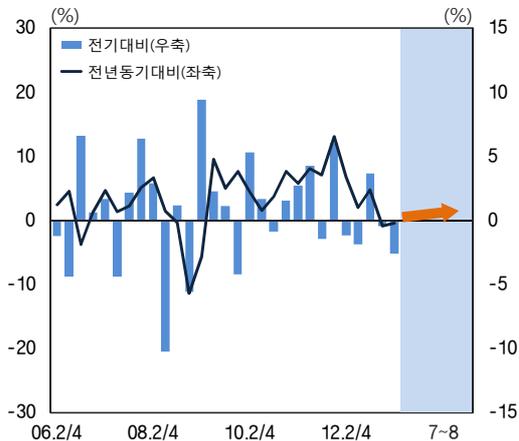
연장 리포트

울산지역 주력제조업(자동차, 조선, 석유 화학, 정유) 동향

7~8월중 울산지역 주력제조업은 업종별로 다소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석유화학의 경우 2/4분기중 판매가 상승 및 신흥국 수요 등으로 생산이 늘어났으나, 7~8월중에는 중국의 산업생산 둔화 등으로 생산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개별 원재료의 수요증가 및 정기보수 완료에 따른 생산능력 증대 등으로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지역 제조업생산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제조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석유정제는 전반적인 유가 하락과 중국 성장률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등으로 7~8월중에도 2/4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는 7~8월중 생산량이 주말특근 재개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조선·중공업은 적극적인 수주노력 등을 통해 개선 추세를 이어갔으나 엔화약세로 인한 일본 조선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중국 성장률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이 매출 및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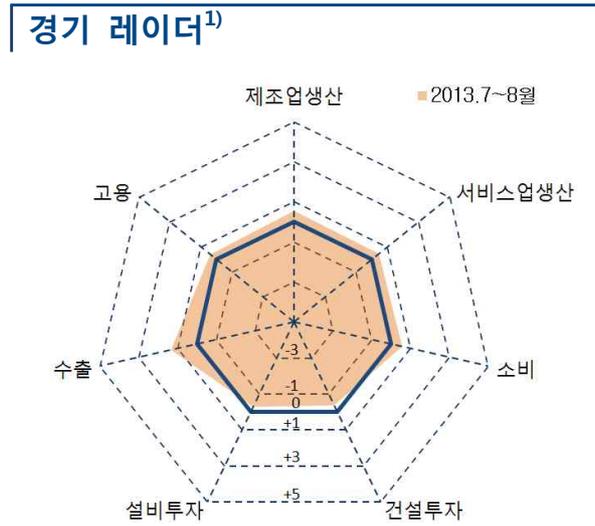
개황

충청권에서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생산측면에서는 7~8월중 제조업생산이 증가로 전환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 늘어났다. 수요측면에서는 수출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되었으나 건설 및 설비 투자는 계속 부진하였다. 고용사정은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자금사정은 전반적인 매출 증가로 기업들의 내부자금 사정이 호전되면서 2/4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7~8월중 제조업생산은 철강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IT산업을 중심으로 2/4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산업은 건설 등 수요산업의 업황 회복 지연, 일부 대형업체의 설비증설에 따른 일시적인 생산차질¹⁰⁾ 등으로 부진하였다. 반면 IT산업은 대형 LCD 패널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디스플레이(LCD, OLED) 패널에 대한 국내외 수요 증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모바일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한편 대부분 제조업체들은 국내외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당분간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된 불확실성, 중국경제의 성장 모멘텀 둔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였다.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5(-5)에 가까울수록 더욱 크게 증가(감소), 0은 보합, +3은 예년 평균 증가율 수준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생산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제조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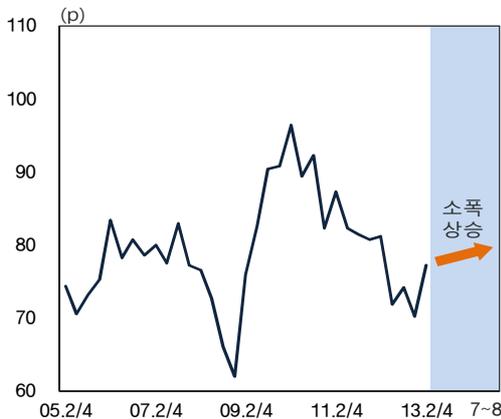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업은 백화점, 할인점 등을

10) 현대제철이 B열연공장(연산 300만톤 규모) 생산설비 증설(+20만톤) 및 합리화를 진행하면서 7.18일부터 해당 설비 가동을 중단하였다. 가동 중단은 8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약 40만톤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중심으로 제습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개선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엔화약세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행사 수요 확대와 세종시 이전 효과 등으로 다소 회복되었다. 다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에 따른 주택매매거래 급감¹¹⁾ 및 오피스 공실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계속 부진하였으며 운수업도 청주공항 화물운송량 감소, 장마기간중 대중교통 이용객 급감 등으로 개선추세가 주춤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서비스업체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크지 않아 업황의 본격적인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소비자심리지수(CSI)가 기준치(100)를 상회한 수준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세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여력 약화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매출 BSI¹⁾²⁾



주: 1) 건설업 포함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서비스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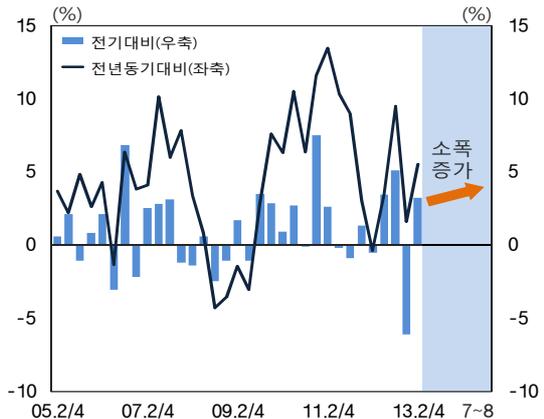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수요

7~8월중 소비는 2/4분기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일기간 연장, 휴일 의 무휴업에 대응한 판촉행사 강화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편의점 점포수 확대 등으로 소규모 소매업의 매출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 취득세 감면조치가 6월말 종료됨에 따라 7월 들어 충청권 주택매매거래량이 전월대비 65.0% 감소(6월 15,176건 → 7월 5,31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7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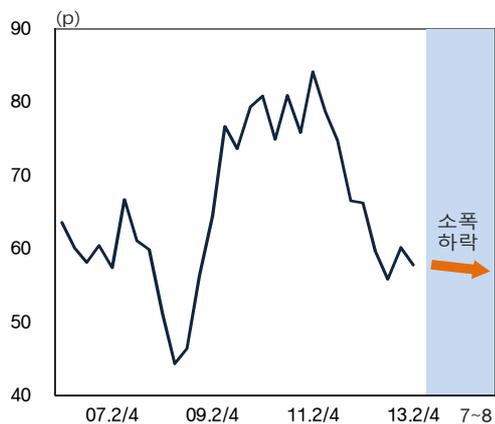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건설투자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부문 발주 축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건설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일부 대형업체의 경우 신규 사업 추진으로 건설기성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업황 BSI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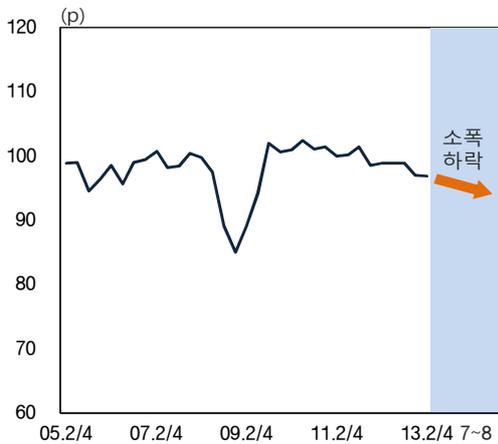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한편 향후 건설투자는 주택사업승인 및 분양 시기 연기 등 정부의 주택수급 조절 대책 시행에 따라 주거용을 중심으로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2/4분기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경제 둔화 및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대기업은 하반기중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설비투자 BSI가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는 데다 자본재 수입도 감소하고 있어 설비투자가 단기간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BSI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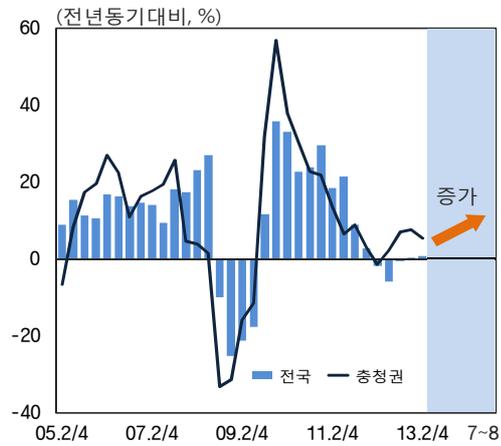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수출은 2/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완성차업계의 주간 연속 2교대 전환 등에 따른 생산차질 여파로 감소하였으나 IT제품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생산 호조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큰 폭 증가하였다.

대부분 업체들은 미국 및 일본의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엔화약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아직까지는 미미하다고 응답하였다.

수출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고용

고용사정은 2/4분기에 이어 개선추세를 지속하였다. 7월중 취업자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1만명 이상 늘어난 가운데 고용률이 2/4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취업자수증감 및 고용률¹⁾²⁾



주: 1) 취업자수증감은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은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취업자수증감의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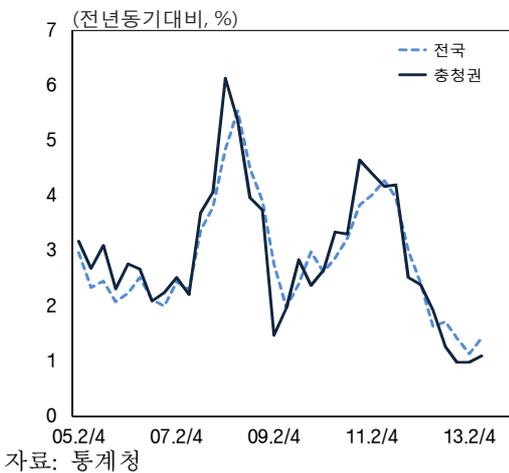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고용사정의 개선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제조업체들은 인력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인력을 계속 긴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응답하여 고용사정의 큰 폭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 및 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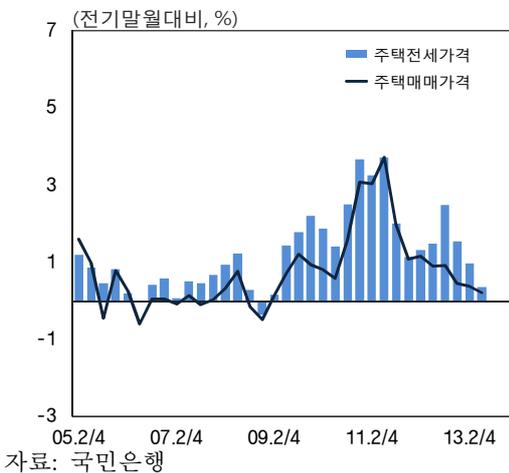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긴 장마의 영향으로 농축산물가격이 오름세로 전환함에 따라 2/4분기에 비해 소폭 높아진 1.1%를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택매매가격은 세종시 및 인접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2/4분기에 이어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주택전세가격도 전세선호 현상, 세종시 이전 효과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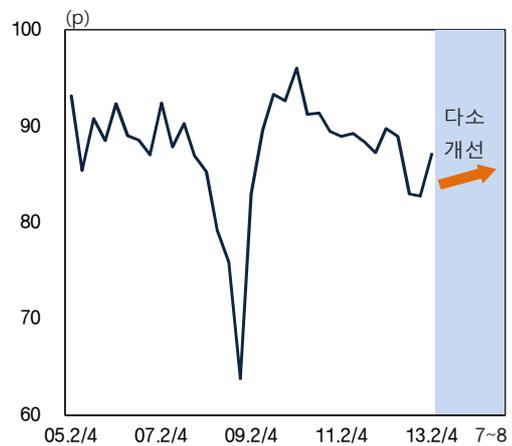


금융

7~8월중 기업자금사정은 전반적인 매출 증가로 기업들의 내부자금 사정이 호전되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대출태도는 예금은행의 수익성 악화 우려 및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대기업 및 가계 대출 등에 대해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의 영향으로 완화적인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금사정 BSI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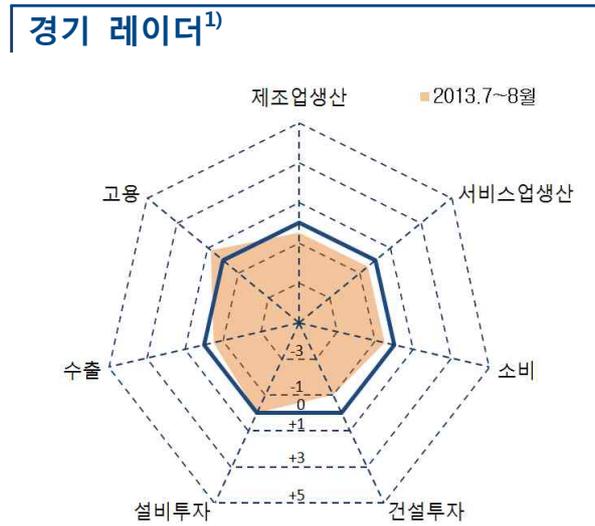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기업 자금사정의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호남권

개황

호남권에서는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8월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생산은 2/4분기에 이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2/4분기 수준에 그친 데다, 소비, 건설투자 및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사정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2/4분기 1% 내외 수준에서 1%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기업자금사정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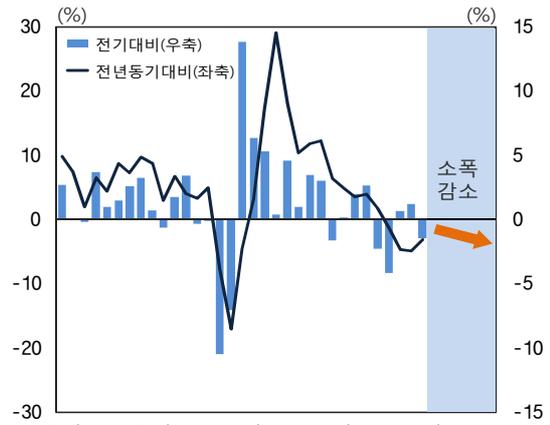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5(-5)에 가까울수록 더욱 크게 증가(감소), 0은 보합, +3은 예년평균 증가율 수준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생산

7~8월중 제조업생산은 선박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자동차도 감소로 전환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은 수주잔량 감소로 작업량이 감소하고 자동차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 및 휴일특근 중단¹²⁾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최대 시장인 중국의 재고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늘어나고 철강은 일부 업체가 대형 고로의 유지보수를 마치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지역 제조업체들은 최근 엔화약세가 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나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지역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다.

제조업생산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제조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도소매업은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한국GM 군산공장은 임금협상 등과 관련하여 7월중 부분파업을 실시하였으며 현대차 전주공장도 기아차 광주공장은 7월 이후 휴일특근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하여 8.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였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거래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음식 및 숙박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기상여건과 휴가철로 인해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면서 개선¹³⁾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으로 상승하였던 건설업업황 BSI도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수요

7~8월중 소비는 2/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지역내 백화점 및 대형소매점은 여름 휴가철, 폭염 등으로 방문객이 줄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의류 등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전망 CSI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앞으로도 소비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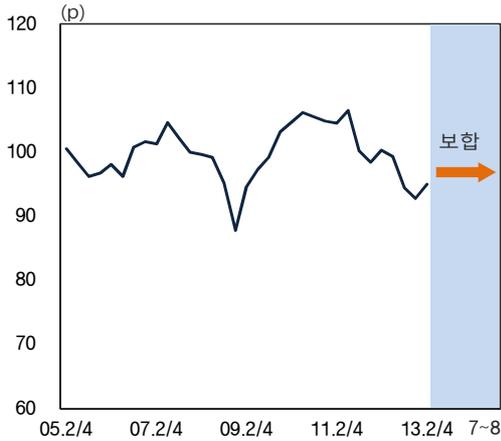
건설투자는 미분양아파트수가 증가하고 건축공면적 및 레미콘 출하량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금년 들어 공공부문의 발주가 크게 줄어들면서 기수주된 공사물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4분기 중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설비투자는 2/4분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기존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만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설비투자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반도체부품업체는 업황 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에 신규투자를 늘

13) 7~8월 들어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고 일부 조선업체 및 화학업체도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 BSI¹⁾²⁾



주: 1) 전산업 기준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설비투자의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수출(전년동기대비)은 2/4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은 지역내 조선업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부진¹⁴⁾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폭이 대폭 줄어들거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학제품은 최근 중국 등 해외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대한 해외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은 생산능력이 크게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수출이 감소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동차는 일부 업체의 해외수요가 견조하지만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수출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엔화약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브랜드파워, 디자인,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그다지 크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엔저보다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하였다.

14) 호남권 선박수출(월평균)은 2012년 2/4분기 7.2억달러에서 2012년 7~8월중 1.4억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수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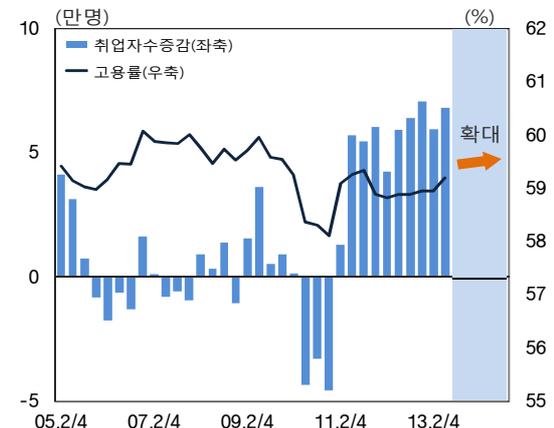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고용

7월중 고용사정은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2/4분기에 이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수는 농림어업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제조업은 반도체, 자동차 등의 신규 채용이 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도 자영업자의 창업 및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제조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재 고용인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취업자수증감 및 고용률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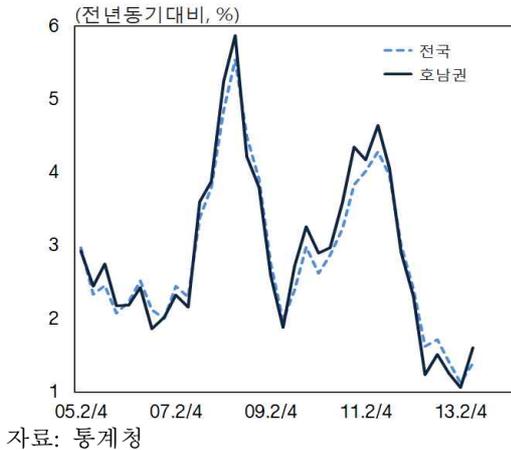


주: 1) 취업자수증감은 전년동기대비, 고용률은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취업자수증감의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물가 및 주택가격

7월중 소비자물가는 기상 악화 및 일부 축산물 수요 증가로 농축수산물가격이 오르고 국제유가 반등으로 석유류가격이 상승 전환됨에 따라 2/4분기에 비해 오름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7월중 주택매매가격은 6월말 정부의 취득세 감면제도가 종료된 데다 여름 휴가철 비수기로 주택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전세가격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세 부족현상으로 인해 오름세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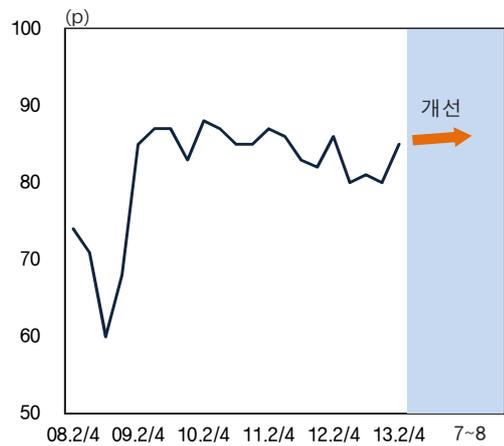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금융

7~8월중 기업의 자금사정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완화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 BSI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기업 자금사정의 방향성을 나타냄

연방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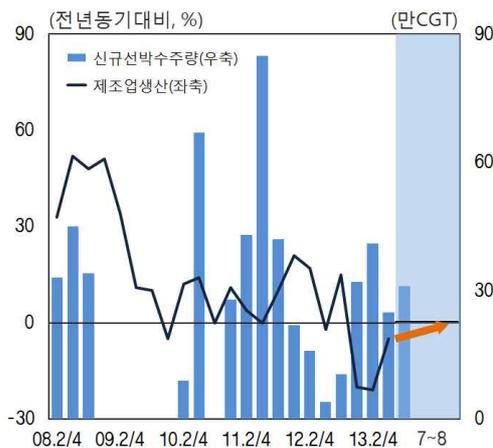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 동향

최근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 경기는 주력 업종인 조선업의 침체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선가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년 4/4분기부터 역내 대기업의 선박수주가 늘어나고 있어 수주물량 증가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금년말경부터 지역 제조업 경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수주한 물량의 상당 부분이 저가계약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로 선박 블록을 제조하는 대부분의 역내 중소선박업체의 수익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생산¹⁾ 및 선박수주량



주: 1) 명목생산액 기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대불자유무역지역 관리원, 관내 주요 조선업체,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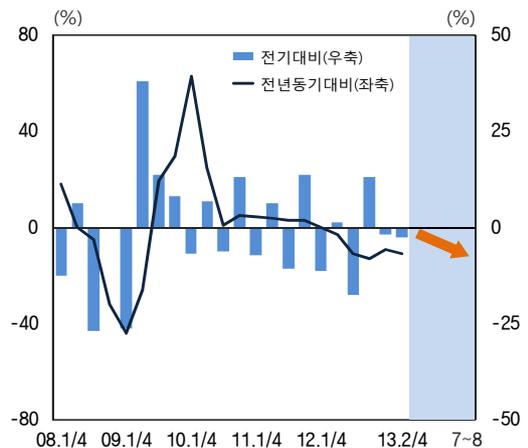
연방 리포트

전북지역 자동차 생산 현황

전북지역 제조업 부가가치의 22%(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 제조업은 주요 수출국인 유로지역 경제의 부진 및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큰 폭 감소함에 따라 2/4분기중 생산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7~8월중 전북지역 자동차 생산도 노사갈등에 따른 파업 예정, 주간연속 2교대 근무 시행 차질, 유로지역 수출물량 감소세 지속 등으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생산 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내 하도급 업체 및 부품 제조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급여하락으로 인한 퇴사가 증가하는 등 인력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업생산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자동차 제조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대경권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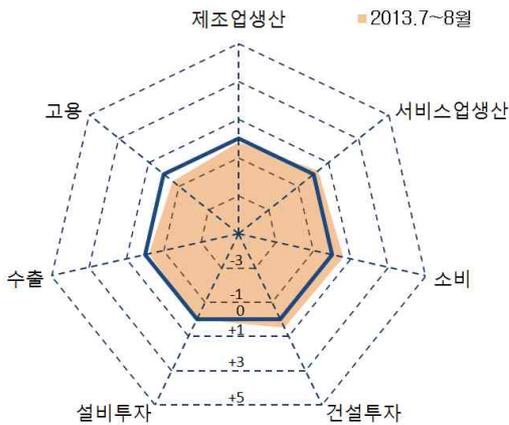
대경권에서는 경기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8월 중 서비스업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요 측면에서 소비와 건설투자가 늘어났으나 설비투자가 보합세를 보이고 수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사정은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로 전환되고 고용률이 낮아지는 등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물가는 오름세가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자금사정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완화에 따라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4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전자통신은 휴대전화의 수요 둔화, 모바일기기 및 노트북용 패널 판매 감소 등으로 생산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¹⁵⁾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력부족에 대응하여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설비보수를 실시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자동차부품도 완성차업체의 수출 감소 등으로 부진하였다. 다만 기계장비는 IT업체의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이 호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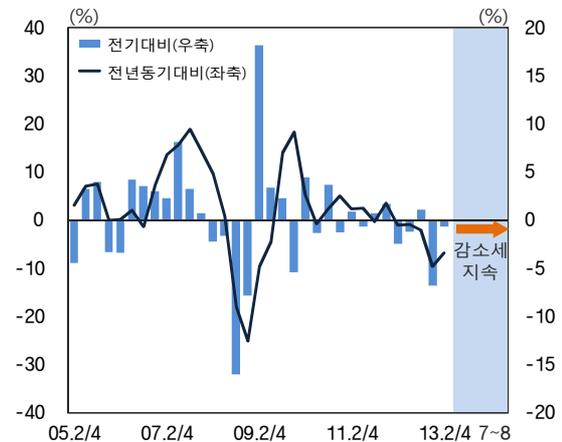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지역 제조업체는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미국 양적완화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경영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 개선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기 레이다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5(-5)에 가까울수록 더욱 크게 증가(감소), 0은 보합, +3은 예년평균 증가율 수준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생산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운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제조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은 관광 관련업종, 사업시설관리 및 전문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었다. 관광 관련업종은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유교랜드 개장,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영업일수 확대, 중국관광객의 큰 폭 증가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사업시설관리 및 전문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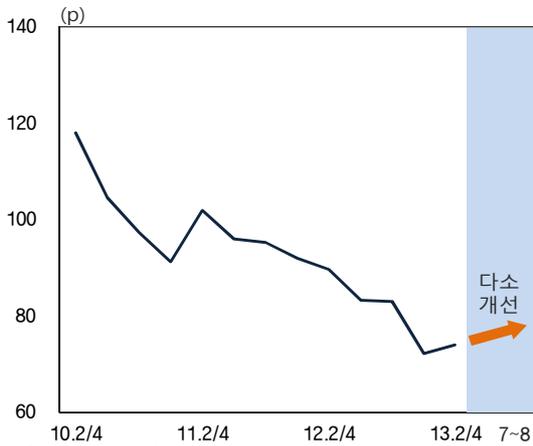
7~8월중 제조업생산은 전자통신,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요 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15) Morgan Stanley(2013.7.13일)는 세계 철강시장의 공급과잉 규모가 최대 3.3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특히 중국(2억톤), 유럽(4천만톤),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4천만톤)의 순으로 공급과잉이 심각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서비스업은 공공기관 이전¹⁶⁾, 테크노폴리스 및 이시아폴리스 조성 등으로 시설관리 및 건축·조경 설계 수요가 증가하여 소폭 개선되었다. 다만 운수업은 지역 제조업생산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동량이 줄어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체들은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여 향후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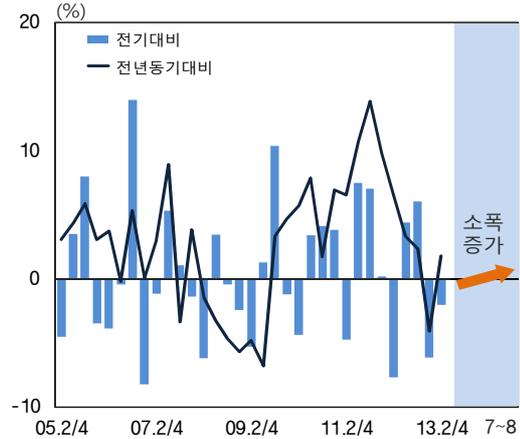
향후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서비스업매출 BSI¹⁾²⁾



주: 1) 건설업 제외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서비스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수요

7~8월중 소비는 대형소매점의 판매가 다소 늘어나는 등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마트는 가정용품, 여름 휴가용품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며 백화점 매출은 정기 세일기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전통시장 등 영세 소매업체의 매출은 저조하였으며 자동차 판매도 소비여력 축소 등으로 부진하였다.

건설투자는 건축착공면적과 건축허가면적이 늘어나는 가운데 회복세를 보였다. 공공부분의 공사물량이 다소 늘어났고 주택부문도 아파트 미분양이 대부분 해소¹⁷⁾된 데다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었다. 다만 타지역 건설업체의 진출확대, 지역 분양시장에 대한 외지인의 수요¹⁸⁾ 둔화 등은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지역 건설업체는 건설관련 지표가 호전되고 국가산업단지¹⁹⁾, 혁신도시 등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건설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소비지출전망 CSI가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등 소비심리가 견조한 가운데 추가세일 실시 등 백화점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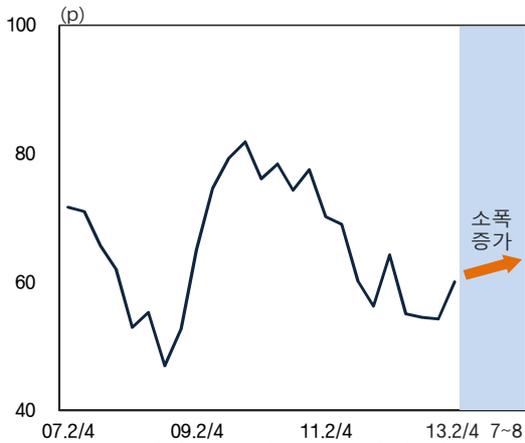
17) 2013년 6월 현재 대구경북지역 미분양아파트는 3,841호로 2008년 12월(37,485호)에 비해 89.8% 감소하였다.

18) 부동산업계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대구 지역 미분양아파트를 외지인들이 투자목적으로 대량 구매함에 따라 아파트가격의 지속적 상승, 미분양 조기 해소 등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 정부는 총 1.8조원을 투입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854.8만㎡에 대구광역시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3.6.5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2014년 하반기공장건립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다.

16)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중에 한국감정원(8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이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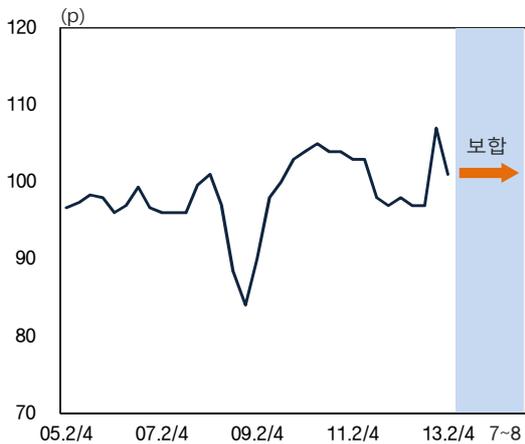
건설업업황 BSI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 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설비투자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IT업종의 자동화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디스플레이의 신제품 생산 라인 대체투자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월 설비투자 BSI가 기준치(100)를 소폭 하회하고 기계류 수입의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지역업체들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경상적인 유지보수나 대체투자 이외에 신규투자를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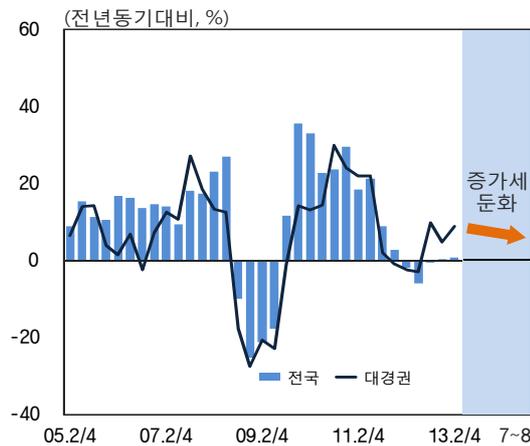
설비투자 BSI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 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수출은 2/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다. 전기전자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철강, 기계, 섬유 등이 글로벌 수요 둔화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 수출기업들은 휴대폰 신규 모델 출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섬유 수요 회복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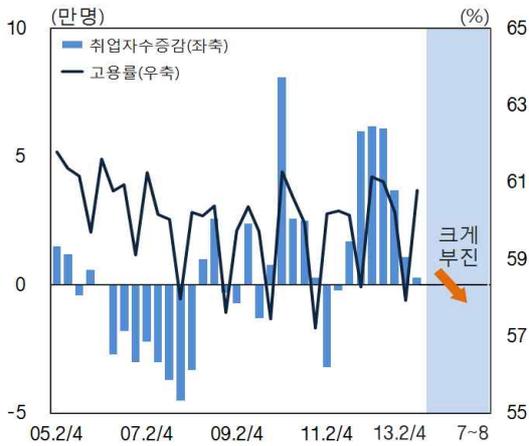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 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고용

7월중 고용사정은 2/4분기에 비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수가 2011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감소로 돌아선 가운데 고용률도 하락하였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취업자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모니터링 결과 제조업의 생산감소세 지속에 따른 단순 노무인력 수요부진²⁰⁾이 당분간 계속되고 비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고용사정이 단시일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20) 철강업종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철강관련 2~3차 협력업체의 파트타임직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자수증감 및 고용률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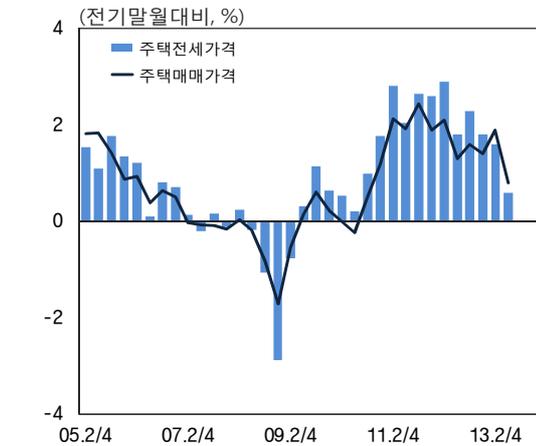


주: 1) 취업자수증감은 전년동기대비, 고용률은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취업자수증감의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자료: 국민은행

물가 및 주택가격

7월중 소비자물가는 전기·수도·가스, 집세, 공업제품 가격 등의 상승으로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2/4분기에 이어 1%대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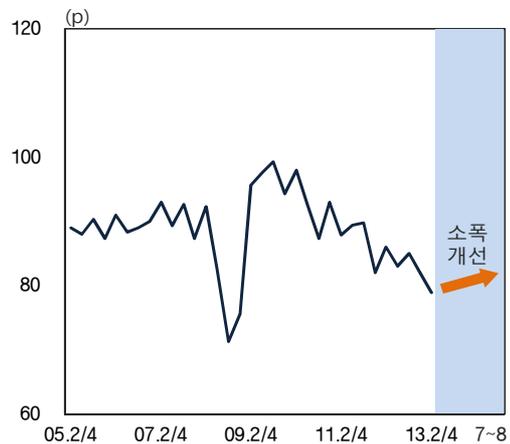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여름 비수기,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평형에 대한 견조한 수요 등으로 2/4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

7~8월중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2/4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시장점유율 제고, 통화정책 완화기조 지속 등을 배경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다소 완화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우대조치 등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금융기관들은 부실여신의 증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완화적인 대출태도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금사정 BSI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기업 자금사정의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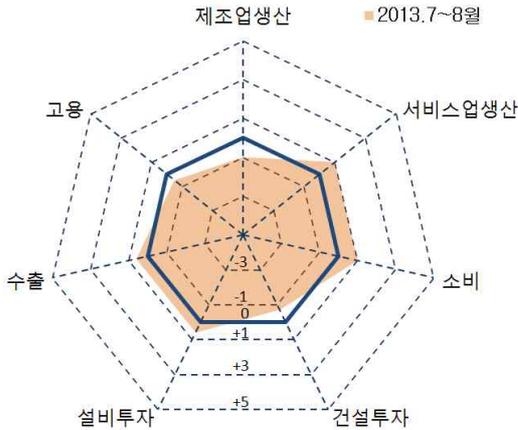
강원권

개황

강원권에서는 7~8월중 경기가 소폭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생산이 감소를 지속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건설투자의 회복세는 주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사정은 개선추세가 약화되었으며 물가는 오름세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자금사정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완화되면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레이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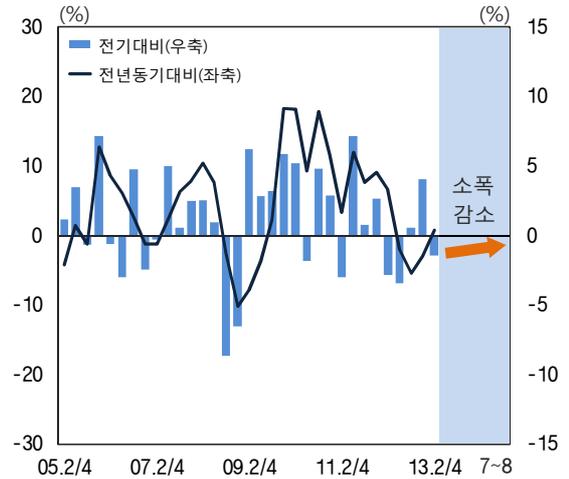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5(-5)에 가까울수록 더욱 크게 증가(감소), 0은 보합, +3은 예년평균 증가율 수준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생산

7~8월중 제조업생산은 2/4분기에 이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료품의 부진이 완화되고 의료기기 생산이 신흥국 수출

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나 비금속광물은 긴 장마로 건설공사가 차질을 빚음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제조업생산은 음식료품 업계의 신제품 출시, 의료기기 수출 증가 등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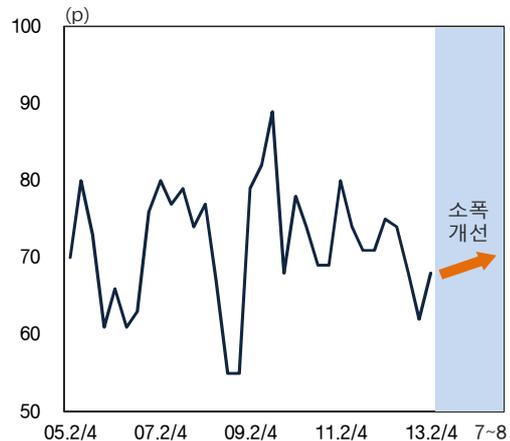
제조업생산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제조업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대형리조트는 신규시설 개장 등으로 방문객이 늘면서 업황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서비스업매출 BSI¹⁾²⁾



주: 1) 건설업 포함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비제조업 매출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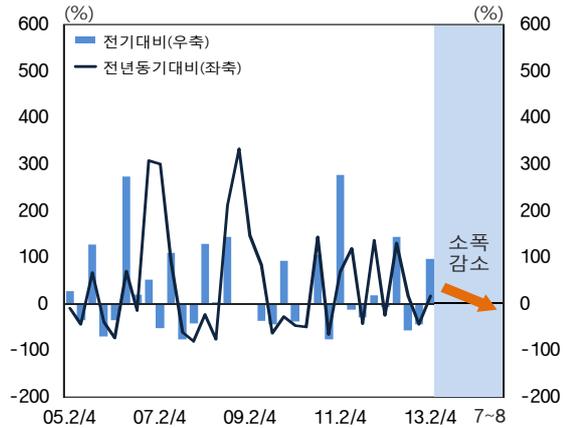
백화점, 할인점 등 도소매업 매출도 관광소비 확대에 힘입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예년보다 긴 영서지역 장마²¹⁾의 영향으로 업황 개선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전력난에 따른 리조트 야외시설 야간운영의 어려움 및 고객불만 증대 등이 향후 업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요

7~8월중 소비는 관광이 호조를 보인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들은 금년 추석연휴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여름휴가비 및 신학기 지출로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과일 등의 당도가 떨어져 명절 소비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계는 9~10월중에는 수해복구공사로 건설경기가 일시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건설발주액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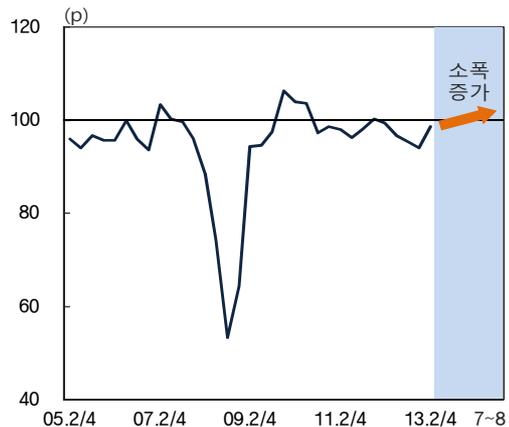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건설투자는 공공공사의 상반기 조기 발주에 따른 회복세가 7월 들어 다소 주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체 조사결과 장마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발주 및 기성액이 감소한

설비투자는 7~8월중 대형리조트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9월 이후에도 일부 음식료품업체들이 신제품 생산라인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 BST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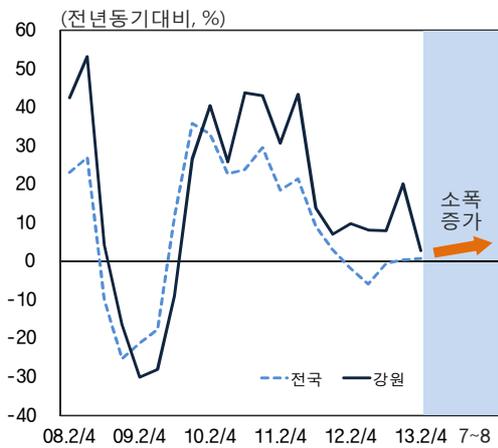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7~8월중 수출은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의 신흥국 수출²²⁾이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1) 7월중 강원도 영동지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던 데 비해 영서지역은 1973년 관측 이래 강수량 최고 3위, 강수일수 최고 2위를 기록하였다.

수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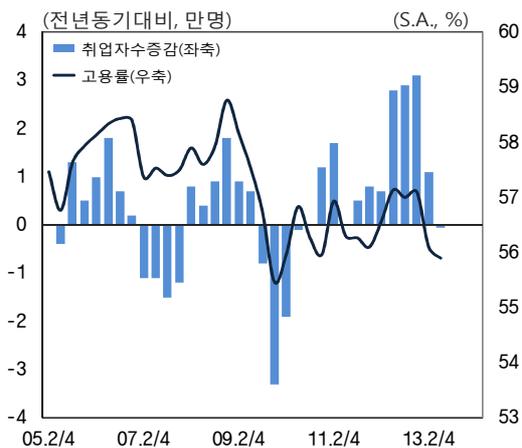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고용

7월중 고용사정은 취업자수가 전년동기 수준에 머물고 고용률이 소폭 하락하는 등 2/4 분기에 비해 개선추세가 약화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추가 고용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²³⁾

취업자수증감 및 고용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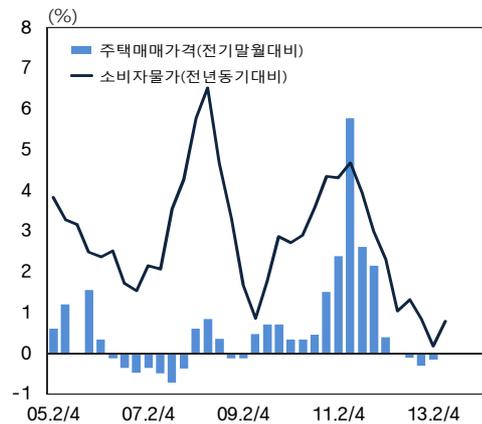


주: 1) 취업자수증감은 전년동기대비, 고용률은 계절조정(S.A) 계열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물가 및 주택가격

7월중 소비자물가는 축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2/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은 계절적 비수기,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 등으로 전월대비 보합을 나타내었고, 거래량도 감소하였다.

소비자물가 및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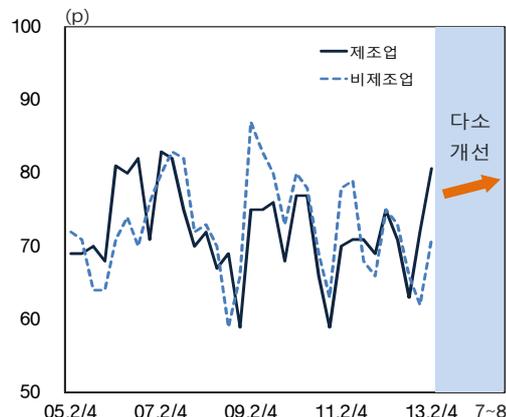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감정원

금융

7~8월중 기업 자금사정은 금융기관들의 대출태도가 완화됨에 따라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금융기관들은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정책 등에 따라 완화적인 대출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사정 BSI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기업 자금사정의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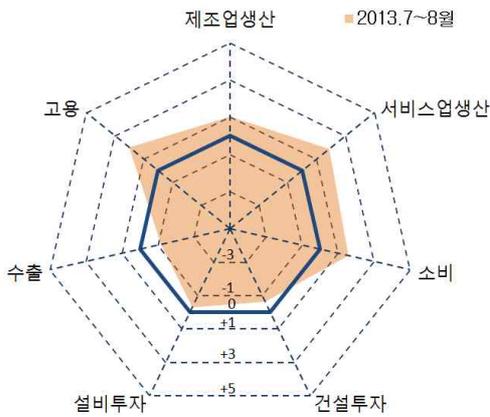
22) 7월중 의료용전자기기 수출이 인도(175.7%), 브라질(137.8%)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3.3% 증가하였다.
23) 모니터링 대상 기업들의 인력사정이 대부분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권

개황

7~8월중 제주권에서는 경기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측면에서는 관광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생산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제조업생산도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수요측면에서는 건설 및 설비투자가 부진을 지속하였으나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고용사정은 취업자수가 큰 폭의 증가를 유지하는 등 개선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한편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완화되면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레이다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5(-5)에 가까울수록 더욱 크게 증가(감소), 0은 보합, +3은 예년평균 증가율 수준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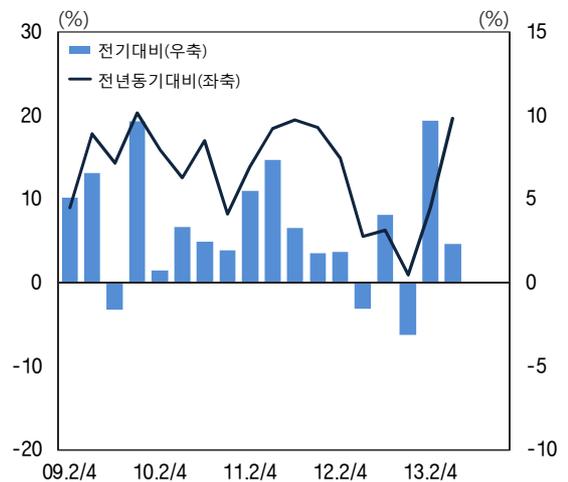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생산

7~8월중 서비스업생산은 관광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호조를 나타내었다. 숙박업은 내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중국인

관광객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 도소매업 매출도 관광객들의 지출 증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무더위 등으로 골프장 매출이 줄어드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업체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들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객수¹⁾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대부분의 서비스업체들은 앞으로도 중국인을 중심으로 관광객 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업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엔화약세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 감소,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증대로 인한 내국인 관광객의 항공좌석 확보난 등이 매출 증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았다.²⁴⁾

농산물 출하액 및 축산물 출하량은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수산물 출하량은 감

24) 내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울-제주 연계형 관광상품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김포-제주 노선 이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중국 관광객은 돈이 들지 않는 저가 혹은 무료 관광지 방문에 그치고 있으며, 쇼핑도 주로 대형마트와 외국인 면세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내 현지업체의 업황 개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출하액은 하우스 온주²⁵⁾ 감귤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축산물 출하량은 돼지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산물 출하량은 양식넙치 등을 중심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농·수산물 출하가 감소하고 축산물 출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7월부터 지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당근, 마늘, 양배추 등 주요 밭작물 파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지온주 감귤의 생육 부진으로 사과(小果) 등 비상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출하가 줄어들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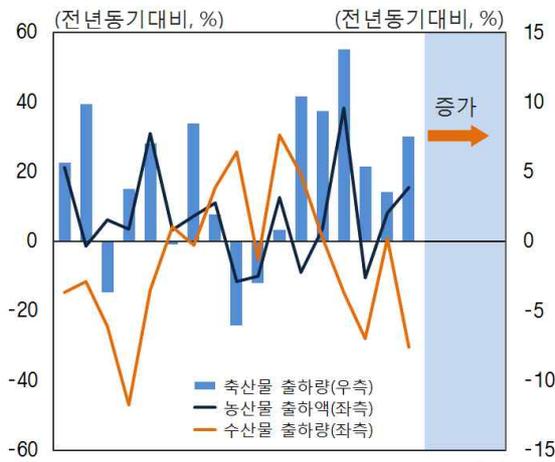
였다. 앞으로도 먹는 샘물의 수요 증대, 지하수 취수 증량 허용²⁸⁾ 등으로 제조업생산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7~8월중 소비는 2/4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형마트 매출은 무더위로 에어컨 등 여름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관광객들의 지출 증가에 힘입어 재래시장의 매출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전망 CSI가 2/4분기에 비해 상승하는 등 향후에도 소비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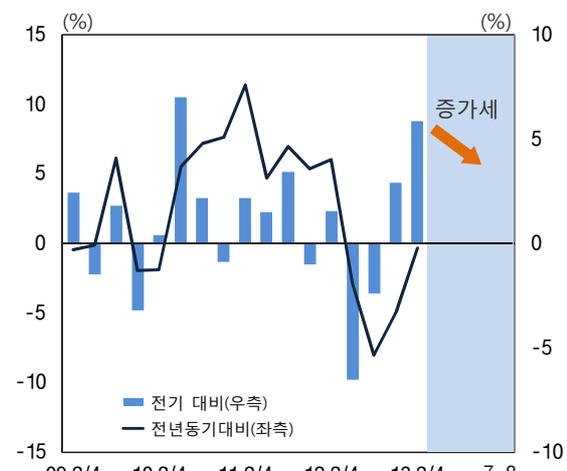
농축수산업 출하



자료: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축산물 품질평가원, 통계청

제조업생산은 2/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료 제품이 먹는샘물²⁷⁾을 중심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건설투자는 미분양 주택 적체, 주차장 기준 강화²⁹⁾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줄어들면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

25) 제주에서 재배되는 감귤은 크게 중국의 온주(温州) 지방에서 유래된 품종인 '온주감귤'과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로 구분된다.(2011년 기준 생산량 비중 : 온주감귤 약 92%, 만감류 약 8%) 이중 '온주감귤'은 노지(露地)온주, 월동(越冬)온주, 하우스온주 등으로 나뉘는데 노지온주가 생산량의 대부분(2011년 기준 온주감귤의 약 92%)을 차지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가격 유지를 위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小果)의 유통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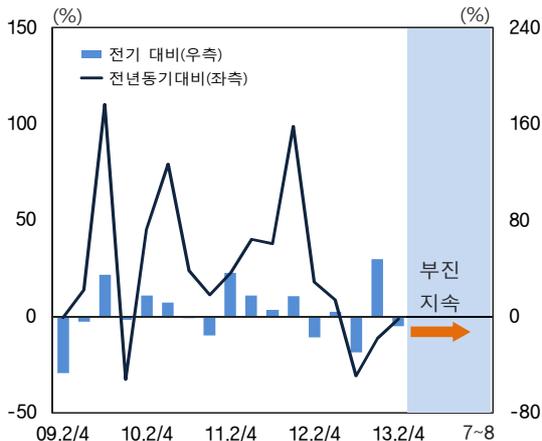
27)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거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수'라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1일 2,100톤 → 1일 3,700톤)을 허용하였다.(2013.5.16일)

29) 국토교통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전용면적 30㎡의 경우 세대당 0.5대, 전용면적 30~50㎡의 경우 세대당 0.6대로 강화하였다.(2013.6.4일 시행)

었다. 다수의 건설업체들은 상반기중 조기발주의 영향³⁰⁾으로 공공부문 수주액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미분양 적체도 단시일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건축착공면적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7~8월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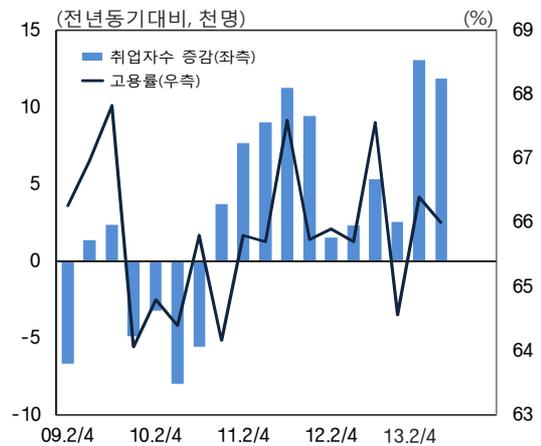
설비투자는 2/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대다수 기업들이 금년 초에 신규설비 도입, 생산라인 증설 등의 설비투자를 완료하여 투자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은 엔화약세가 이어지면서 넉치 수출이 줄어들에 따라 7~8월중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내 수출업체들은 향후 엔화약세가 계속될 경우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용

7월중 고용사정은 2/4분기에 이어 개선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높은 증가폭을 유지한 가운데 향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30)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도 전체 공공부문 발주 예산(1.4조원)중 90.8%(1.3조원)를 상반기에 발주하였다.

취업자수증감 및 고용률¹⁾



주: 1) 취업자수증감은 전년동기대비, 고용률은 계절조정(S.A.) 계열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물가 및 주택가격

7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공식품가격 및 외식비가 오른데다 택시비³¹⁾ 등의 공공요금도 인상된 데 주로 기인한다. 주택매매가격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세가격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금융

7~8월중 금융기관들의 대출태도는 중소기업 및 가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금융기관들의 시장점유율 제고 노력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1)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도내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중형택시 기준)하였다.

연강 리포트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세 지속 배경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수 및 비중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09년 이후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접근의 용이성, 제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등의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

제주는 중국 동부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근거리 해외여행지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2009년 이후 중국 주요 도시와의 국제직항 노선이 확대되고 국제크루즈선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와 더불어 무사증 입국 허용(2008.2월)으로 국내 여타 지역에 비해 입국절차가 간편한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한류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 가운데 제주의 경우 수려한 자연경관과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여타 지역에 비해 중국인들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유네스코 3관왕,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진 점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II

주요 지역경제 연구

1. 논고	43
2. 지역본부 주요 조사연구보고서	47

1. 논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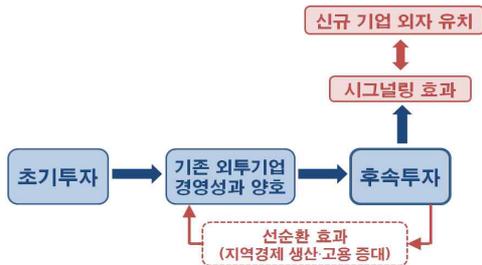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및 후속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정민수³²⁾, 고승환³³⁾, 박동연³⁴⁾

I. 논의 배경

부산지역은 2003년 이후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치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 실적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0%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규모가 아직 지역경제 규모에 비해 작은 데다³⁵⁾ 지자체 등의 관심이 후속투자³⁶⁾ 보다는 초기투자 유치에 집중되어 있어 외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지역내 외국인투자 현황과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라 한다)의 경영성과 분석 등을 기초로 외투기업의 후속투자 실적을 평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후속투자 동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후속투자와 경영성과의 관계



II. 부산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2012년말 현재 부산지역 외투기업은 총 569개로 전국 외투기업(14,490개)의 3.9%, 부산지역 전체기업(28,403개)의 2.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3~2012년) 부산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금액은 23.1억달러(누적신고기준)에 달하였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지역내 물류인프라 활용수요가 높은 운수창고(23.3%)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속(13.8%), 운송기계(11.8%), 화학(8.4%)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가별로는 네덜란드³⁷⁾(17.2%), 일본(15.7%), 싱가포르(14.2%), 독일(10.8%)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및 부산 외국인투자유입액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III.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성과 분석

외투기업의 경영성과는 외자유치의 긍정적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후속투자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외투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³⁸⁾ 그 결과 부산지역 외투기업의 재무안정성은 지역내 국내기업에 비해 우수하고 수익성은 국내기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속투자, 고용창출 및 성장성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무안정성을 보면 외투기업의 최근 3개년(2009~11년)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제조업 53.0%, 서비스업 36.5%로 국내기업(46.1%, 28.1%)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화학, 조선, 운수창고 등이 특히 높았다. 한편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를 보면 외투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제조업 0.3%, 서비스업 7.8%로 국내기업(7.5%, 8.7%)에 비해 낮았으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제조업 5.1%, 서비스업 4.5%로 국내기업(5.4%, 4.8%)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37) 부산지역 최대 기업인 르노삼성자동차의 국적이 네덜란드인 데 주로 기인한다.

38) 재무제표 입수가 가능한 외감기업인 외투기업 146개(제조업 72개, 서비스업 74개)의 최근 3개년 경영성과를 지역내 국내기업(외감기업 1,207개)과 비교하였으며 단일기업이 경영 지표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르노삼성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을 제외하였다.

32)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전화: 051-240-3852, e-mail: cmin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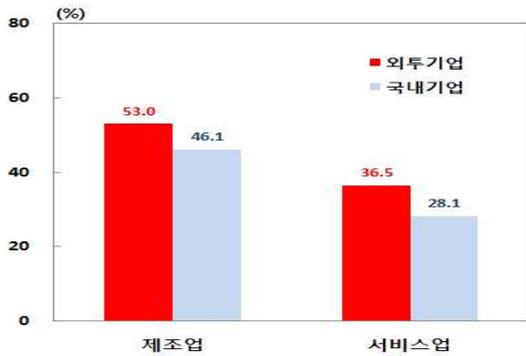
33)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전화: 051-240-3853, e-mail:kosh@bok.or.kr)

34)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조사역(전화: 051-240-3856, e-mail: donghyun.park@bok.or.kr)

35) 부산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국대비 비중은 5.0%(2011년 기준)이나 외국인투자금액 비중은 1.9%(2003~2012년)에 불과하다.

36) 후속투자는 초기투자 이후 추가 발생하는 투자로 현지에서의 기업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인프라, 제도 등 투자환경이 양호함을 알려주는 시그널링(signalling) 효과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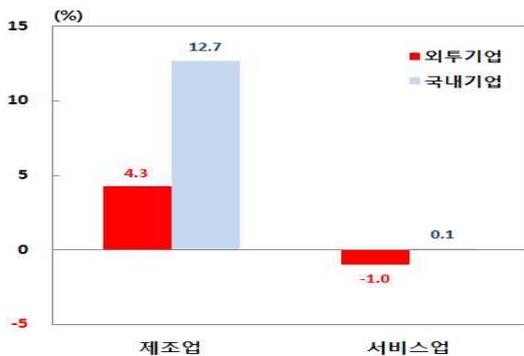
부산 외투·국내기업 자기자본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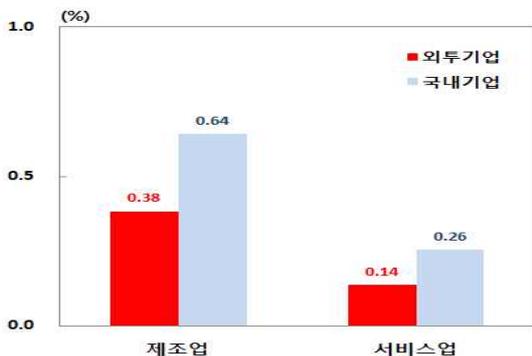
주 : 1)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자산 × 100

후속투자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로 우선 외투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제조업 4.3%, 서비스업 -1.0%로 모두 국내기업(12.7%, 0.1%)보다 낮았다. 업종별로는 금속, 자동차, 도소매 등이 국내기업에 비해 더 낮았다. 제조업 영위 외투기업의 매출액대비 R&D비율도 0.38%로 국내기업(0.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화학 등이 국내기업보다 낮았으나 기계장비 제조업과 조선업 등은 국내기업보다 높았다.

부산 외투·국내기업 유형자산증가율



부산 외투·국내기업 매출액대비 R&D비율



아울러 외투기업의 고용창출 상황을 보면 종사자 수 증가율이 제조업 0.3%, 서비스업 1.7%로 지역내 국내기업 수준(3.8%, 8.1%)을 크게 밑돌아 외투기

업의 전반적인 투자부진이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투기업의 후속투자자와 고용창출이 국내기업보다 부진한 현상은 개별기업 재무제표 합산을 통한 경영분석이 아닌 개별기업 경영지표의 단순평균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³⁹⁾

IV. 부산지역 외투기업의 후속투자 부진요인

부산지역 외투기업이 보수적인 경영행태를 보이면서 후속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외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⁴⁰⁾ 등을 통해 부진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지역 외투기업은 국내기업과의 생산연관관계가 부족한 데다 고급인력의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후속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외자유치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사후관리·지원시스템 구축에 미흡한 것이 후속투자의 제약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현행 인센티브가 외투기업 유치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어 지속적인 투자유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인효과와 인지도가 높은 조세감면 혜택은 초기투자 유치시에 감면여부가 결정되어 후속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많은 외투기업들이 선호하는 용지임대료 지원수혜 자격도 장기로 갱신이 이루어지면서 영업기간 지속 여부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미미한 실정이다. 그리고 후속투자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현금지원은 금액이 크지 않고⁴¹⁾ 기준도 다소 경직적이어서 투자확대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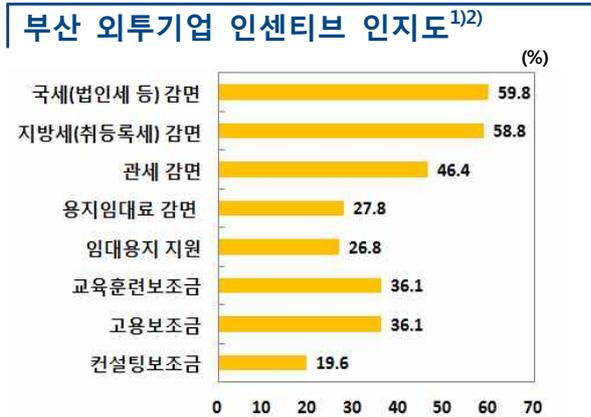
둘째, 부산지역 일부 외투기업의 경우 국내기업을 통한 중간재 조달 차질 등 국내기업과의 생산연관관계가 긴밀하지 못해 후속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간재 조달 등에 있어 외투기업의 국내기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투자자의 사업철수 가능성은 낮아지고 투자확대 유인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²⁾

39)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경영지표에 대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결과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률 및 유형자산증가율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10% 유의수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2012년 12월중 부산지역 348개 외투기업(10만달러 이상 투자)의 부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기업현황과 투자여건의 항목별 평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1)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2억원이 최고한도이며 컨설팅보조금은 2천만원 수준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유인효과가 미흡하다.

42) 일반적으로 해외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지고객 및 공급자와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주 : 1) 부산지역 외투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해당인센티브 인지도기업수/조사대상업체수 × 100

부산지역외투기업의 투자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프로빗모형(Probit model)⁴³⁾ 분석에서도 외투기업의 후속투자 확대 여부가 중간재 조달의 국내현지 의존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일수록 국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낮고 국내 중간재 조달의 중요성도 낮게 평가하는 경향도 보였다.

국내 중간재 조달처의 중요성과 투자¹⁾

기업구분 (투자확대 여부)	국내 중간재 조달처의 중요성 ²⁾	국내 중간재 조달비중(%)
확대	2.4	46.7
유지 또는 축소	2.1	44.2
축소	2.0	27.3
전체기업	2.1	44.9

주 : 1) 부산지역 외투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매우낮음(1점) - 낮음(2점) - 보통(3점) - 높음(4점) - 매우높음(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한 항목별 점수를 평균

셋째, 외투기업이 지역내 청년층의 역외유출 등으로 고급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후속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적자원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향상되어 추가 투자 유인이 커지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경우 반대의 결과를 보이게 되는데⁴⁴⁾ 투자여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산지역 외투기업은 생산요소 부문에서 '인력수급의 용이성'을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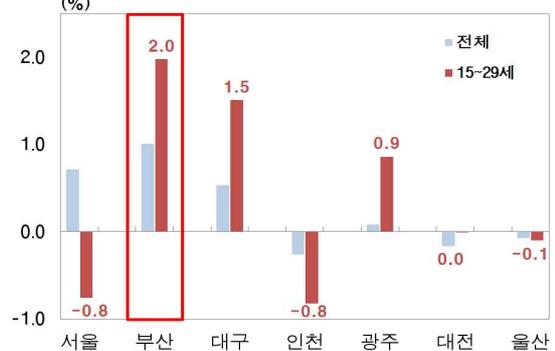
필요하며 시장진입 초기에 거래처를 많이 확보한 기업일수록 후속투자 유인이 높아진다.(Pervez Ghauri 1992, Johanson and Vahlne 1977, 한병섭·서민교 2004 등)

43) 선형회귀모형의 일종으로 종속변수가 가(可)·부(否) 등 이항변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44) 우수한 인적자원과 조직능력은 장기간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 기업내부의 고유자원으로 경쟁우위의 원천이므로(Barney, 1991) 우수한 인적 역량을 가진 기업이 후속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주규희·김선식, 2011)

넷째, 외투기업들은 부산지역을 중국, 일본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여 후속투자에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역이 양호한 물류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지역내 일부 외투기업들은 복잡한 무역행정 절차, 관련규정의 잦은 변경 등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하기도 하였다.

지역별 청년층(15~29세) 순유출률¹⁾²⁾



주 : 1) (유출인구-유입인구)/전체인구 × 100
 2) 2002~2010년 연평균 기준

V. 정책과제

정부와 지자체는 부산지역 외투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고 후속투자를 지속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내 투자여건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쟁심화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promotion) 자체에만 과도하게 치중한다면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환경(environment) 개선에는 소홀할 수 있음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먼저 투자유치 유관기관들이 유치건수나 금액 위주의 외형적 성과보다 후속투자를 촉진시키는 등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정책마인드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진출한 외투기업의 시설확장용 부지확보 및 추가고용 등 차별화된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투자 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치대상 외투기업의 선정단계부터 투자금액, 고용창출 등 양적 요소 외에 국내기업과의 생산연관관계, 국내기업과의 협력방안 등 질적 요소를 파악하여 유치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도기술수반산업을 투자유치의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모기업의 기술력이 후속투자

<참고>

부산지역 외투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추정결과

부산지역 외투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외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투자확대 (후속투자)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국내 중간재 조달처의 중요성, 인적자원의 질, 인센티브 수혜건수, 해외진출 용이성 등이 향후 투자 확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확대 여부와 투자여건평가와의 관계

		회귀계수
생산 요소	국내 중간재조달 중요성	1.214 **
	노동비용 경쟁력	-0.248
	인적자원 질	0.791 **
	언어소통환경	-0.441
정부 정책	규제(법률) 일관성	1.042
	규제(법률) 명확성	-1.237
	인센티브 수혜건수	0.242 **
시장 여건	국내시장 성장성	-0.234
	해외진출 용이성	0.656 *
	외국인 교육환경	0.522
	외국인 주거여건	-0.197
	제조업 여부 더미	0.955 *

주 : **, *는 유의수준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내 R&D 수행 의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투기업은 모기업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R&D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후속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또한 부산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등에서 인센티브 제공여부 및 규모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유치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용(인센티브 제공 등)과 편익(지역경제기여 등)을 비교 분석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재정비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향후 유치 대상 업종 및 업체 선별, 인센티브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권역은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중간재 공급기

능이 성숙해 있으나 주요 부품소재의 해외 의존 등이 여전하므로 동 분야를 보완하여 밸류체인을 완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지역내 물류인프라를 활용해 세계 각국의 기업들에게 중간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아웃소싱 기지로 성장하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력제조업과 항만운송 등 물류산업 육성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미음」 부품소재기업 전용단지과 같은 부품소재전용공단의 확대도 추진해야 하겠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및 미음 부품소재전용단지



아울러 외투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인력 중개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력수요·공급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투기업들은 부산의 언어 및 의사소통 여건을 다른 부문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력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외국어 소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로드맵의 수립이 요구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영어공용화 등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만큼 싱가포르, 홍콩보다는 완화된 수준에서 외국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되 정부 및 지자체의 민원서식, 각종 공문 등의 영문화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등 투자유치 관련조직은 영어공용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투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미국 및 EU와의 FTA가 외국인투자 유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출절차 등 법령 및 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등은 외투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중앙정부가 법령정비와 규제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본부 주요 조사연구보고서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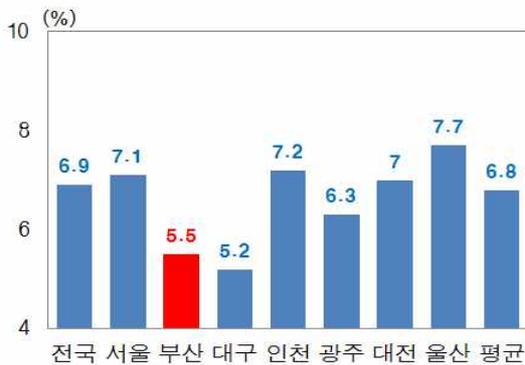
부산본부

부산지역 소득구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⁴⁶⁾

<주요 내용>

2000년대 이후 부산경제는 주력산업의 위축, 고부가서비스업의 육성 미흡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총소득이 전국에 비해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노동생산성과 역외소득 유입력이 미흡하고 취업률이 저조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도시별 지역총소득 증가율¹⁾²⁾



주: 1) 2000~2011년중 연평균 증가율
2) 평균은 7대도시(특별·광역시) 기준
자료: 통계청

<시사점>

부산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소득창출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컨벤션·의료산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역외소득 유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부가서비스업의 고부가산업으로의 전환,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투자 확대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5) 본 자료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최근 조사연구자료중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6) 원문은 <http://www.bok.or.kr/busan>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본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의 미비점 및 양우 과제⁴⁷⁾

<주요 내용>

홍콩, 싱가포르, 더블린 등 비교적 근래에 부상한 해외 주요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은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노력, 파격적인 조세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 금융부문 발전에 유리한 환경적·제도적 요인, 국제화된 금융전문 인력 등 질 높은 노동력, 정치적·사회적 안정, 뛰어난 비즈니스 환경 및 사회 인프라 등에 힘입어 오늘날의 위상을 구축하였다. 반면 부산 금융중심지는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소극적이며,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적 기반 및 사회 인프라 등이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금융센터 평가 결과¹⁾

	GFCI						IFCDI	
	07.9	08.9	09.9	10.9	11.9	12.9	11.7	12.7
런던	1	1	1	1	1	1	2	2
뉴욕	2	2	2	2	2	2	1	1
도쿄	10	7	7	5	6	7	3	3
홍콩	3	4	3	3	3	3	4	4
싱가포르	4	3	4	4	4	4	5	6
시카고	8	8	8	7	7	8	11	12
더블린	15	13	23	29	43	49	39	37
상하이	30	34	10	6	5	19	6	8
두바이	22	23	21	28	36	22	16	14
오슬로	37	41	56	53	37	37	26	29

주: 1) 음영은 전통적인 금융중심지
자료: GFCI(Global Financial Centre Index), IFCD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evelopment Index)

<시사점>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파격적이고 과감한 조세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국제화된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 지원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7) 원문은 <http://www.bok.or.kr/busan>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환경변화와 성장전략⁴⁸⁾

<주요 내용>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은 기계·전기전자·철강 등 연관산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주력산업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 생산, 고용 등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동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산업의 위상¹⁾

	생산 ²⁾	종사자 수	사업체 수
대구경북	6.4	9.1	2.6
대구	17.6	11.3	2.3
경북	4.6	7.9	3.0

주 : 1)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011년)
 2) 부가가치액 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 부품산업은 경쟁력을 보유한 범용부품 및 기능성부품의 생산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내 완성차에 대한 의존도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세업체 비중이 높고 수익성·재무안정성과 R&D 투자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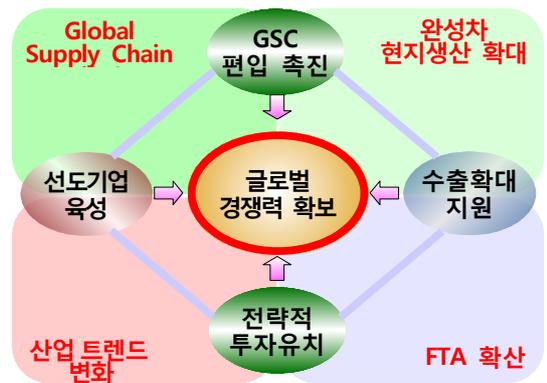
최근 자동차부품산업이 직면한 주요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효율성 제고, 비용절감 등을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신흥시장국 생산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산업의 Global Supply Chain(GSC)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는 GSC 편입을 통한 매출확대가 가능한 반면 GSC에 편입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 현지 생산 확대는 국내 부품업체의 생산, 수출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현지 동반진출시에는 글로벌 부품사에 대한 납품기회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셋째, 미국·EU 등 주요국과의 FTA체결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시장진출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모듈생산방식 확대, 친환경차 개발경쟁, 전장화 확산 등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섯째, 엔화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최근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장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GSC 확산, 완성차업체의 현지생산 확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GSC편입 촉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의 적극 활용, 설비투자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부품소재 구매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FTA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외마케팅센터 설치, 수출DB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부품업체의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전략의 수립이 중요하다. 넷째, 국내 우수기업 및 글로벌 부품사 등의 전략적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 성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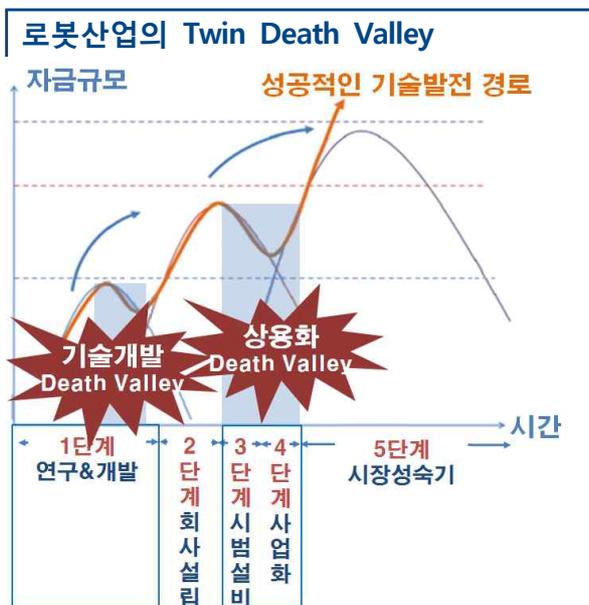
48) 원문은 <http://www.bok.or.kr/daegu>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연왕과 정책과제

<육성연왕>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광역경제권중에서는 유일하게 로봇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이다. 그러나 전국 및 대경권의 로봇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네트워크분석방법론(SNA)에 의한 산.학.연간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등을 실시해본 결과, 광역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전략 부재, 권역내 지자체간 및 산.학.연간 협력 미흡, 일관된 기술.자금 지원체제 미비, 개발 로봇의 상용화 지원방안 미흡, 단발적 공공수요에 치중된 로봇개발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정책과제>

대경권이 역내 주요 거점 도시간 상호 연계.융합을 통한 광역 로봇산업의 육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목표와 전략, 그리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광역차원의 연차별 세부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항, 구미, 대구에 중점육성 로봇분야별로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능별로도 각 지역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경권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금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경로봇산업육성협의회(가칭)의 발족과 조례 제정, 공동마케팅, 기금조성 등의 역할을 담당할 산하 분과위 구성을 제안한다. 셋째, 로봇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 및 상용화과정에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봉착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시장에 진입하기까지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활용한 '뽀로로(PORORO) 프로그램(애칭)'을 제안한다.

PORORO 프로그램의 개념도¹⁾



주: 1) 로봇기업의 연구개발(스핀오프, 창업)부터 인큐베이팅을 거쳐 사업독립까지를 각 관계기관간 MOU로 일체화

넷째, 로봇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시장조사,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용화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용성과 확장성이 큰 로봇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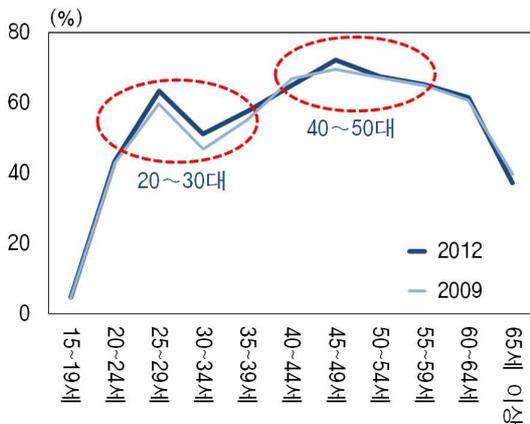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여성고용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⁴⁹⁾

<주요 내용>

대구경북지역의 여성 고용률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나 연령별로 보면 20~30대 고용률이 40~50대 고용률을 하회하고 있어 20대 후반에 고점에 도달하는 전국평균과 상이한 모습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전국평균에 비해 고학력자 비중이 낮으나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졸여성은 노동시장 최초 진입에, 전문대졸 이상은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서비스산업에 취업이 집중되어 있고 고용안정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 여성 연령별 고용률



자료: 통계청

<시사점>

고졸이하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커리어 개발센터 사업'을 중·고교 여학생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시간제 근로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버·육아 산업 등 여성 장년층 노동인력에 적합한 업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9) 원문은 <http://www.bok.or.kr/daegu>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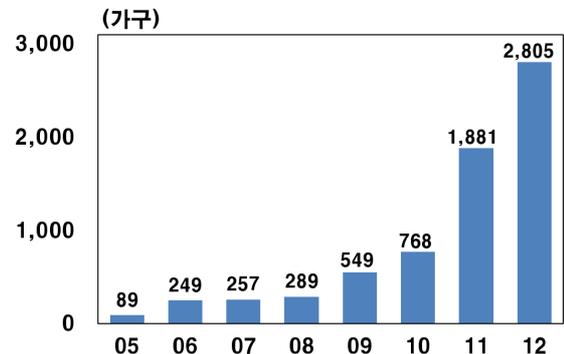
광주·전남본부

최근 전남지역 귀농·귀촌 연앙과 과제⁵⁰⁾

<주요 내용>

전남지역 귀농·귀촌가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 증가 및 자영업자 간 경쟁심화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 현상은 농촌의 고령화를 완화하고 농촌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한편 고용률 증대 및 도시의 실업률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남지역 귀농·귀촌 가구수 추이



자료: 전남도청, 농림축산식품부

<시사점>

귀농·귀촌을 통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이주민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귀촌 이전에 농촌 체험 프로그램 확충, 창업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충분한 귀농·귀촌 준비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시에는 고소득 작목 개발, 협동조합 등 공동체 형태의 협업 활용,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의료시설을 늘리고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50) 원문은 <http://www.bok.or.kr/gwangju>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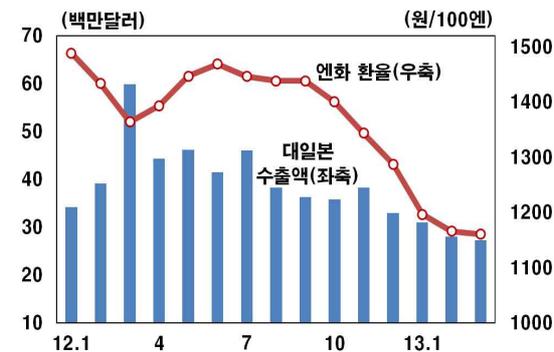
전북본부

최근의 엔화약세가 전북지역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⁵¹⁾

<주요 내용>

엔화약세는 전북 수출품의 엔화표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對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채소류, 화초류, 닭고기, 조개 등과 같은 품목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북지역에서는 주요 수출품 중 일본의 수출품과 경합하는 품목이 많아 엔화약세가 전북의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가치 하락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면 엔화약세가 금년 3/4분기부터 전북지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의 대일본 수출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시사점>

전라북도도가 육성중인 전략산업은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아 엔화약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환변동보험 확대 등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도 환리스크 관리 및 비가격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1) 원문은 <http://www.bok.or.kr/jeonbuk>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전·충남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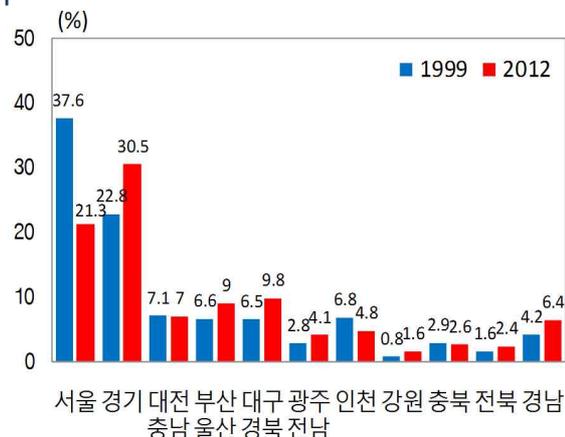
대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육성방안⁵²⁾

<주요 내용>

대전은 R&D 기관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R&D 결과물이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기술 활용도가 낮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R&D 정책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 미흡, 기술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수요기업간 상호협력 부족, 투자펀드 역할과 창업활동 저조, 마케팅 등 경영지원 기능 미비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 벤처기업수 추이¹⁾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충남 울산 경북 전남
주: 1) 전국대비 비중 기준
자료: 벤처인(벤처공시시스템)

<시사점>

R&D에서 창업으로까지 연계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관련 정보의 체계적 소통을 위한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 공급과 수요를 연결해주는 기술사업화검증센터 신설, 민간투자펀드 확충, 창업사관학교 설립,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성원간 협력 강화 등도 요구된다.

52) 원문은 <http://www.bok.or.kr/daejeon>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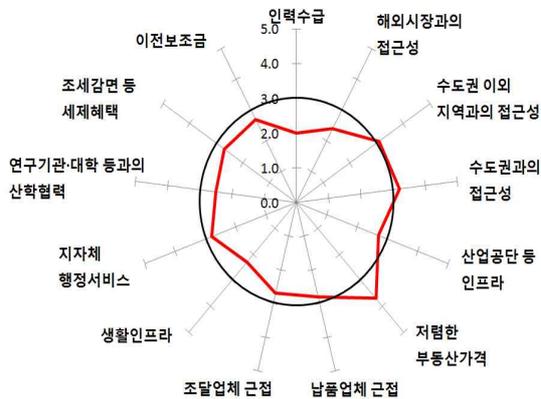
충북본부

충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 연왕과 발전방향⁵³⁾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

충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은 업체 수가 2010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2.0%에 그치고 있으나 1999~2010년 중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6.8% 증가하여 전국 평균(6.2%)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충북지역 자동차부품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인력수급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입지여건에 대한 경쟁력 평가¹⁾



주: 1) 검은색 원(3점)을 기준으로 안쪽은 불만족, 바깥쪽은 만족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자체 실태조사

<시사점>

충북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기장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과 충북도 전략산업인 IT산업을 접목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내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대학의 현장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강원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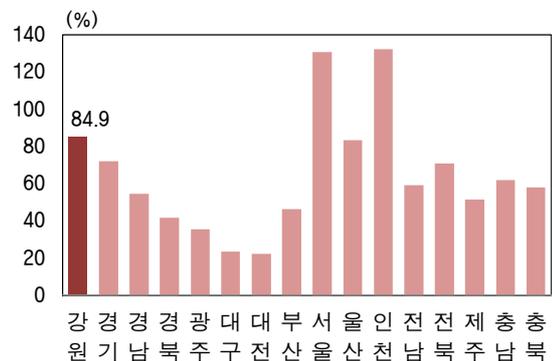
강원지역 지방공기업의 재무연왕과 시사점⁵⁴⁾

<주요 내용>

강원지역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12년 84.9%로 인천, 서울지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2007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는 등 수익성도 악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재무상태 악화는 주로 강원도개발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공기업들의 재무 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시도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¹⁾



주: 1) 2012년 기준
자료: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시사점>

강원지역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강원도 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와 같이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악화된 지방공기업의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부채를 축소하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공기업들의 경우에도 경영 지배구조 개선,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재무상황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53) 원문은 <http://www.bok.or.kr/chungbuk>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54) 원문은 <http://www.bok.or.kr/gangwon>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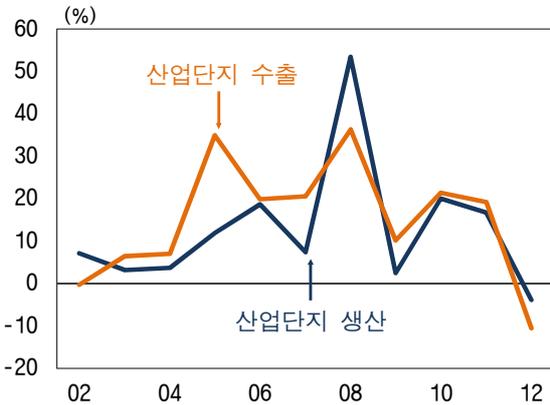
인천본부

인천지역 소재 산업단지 운영 현황 및 시사점⁵⁵⁾

<주요 내용>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생산 및 수출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2년 들어 감소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지역경제 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인천지역 산업단지 생산 및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의 역할 축소는 기계 등 주력 생산업종의 생산성이 저하된 데다 내수 위주의 업종구조 고착으로 대규모 공항 및 항만을 보유한 입지적 여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동업체의 영세화 및 산업단지 인프라의 노후화도 산업단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지원 강화,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미래형 혁신 클러스터로의 구조 전환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55) 원문은 <http://www.bok.or.kr/incheon>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주본부

제주지역 농림어업 GRDP의 과소규모 추계 및 시사점⁵⁶⁾

<주요 내용>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고부가가치 감귤인 만감류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농림어업 GRDP 산출시 감귤 산출액 기준단가에서 만감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주지역의 농림어업 GRDP가 과소 추계되어 왔다.

전체 감귤조수입 대비 만감류 비중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이에 GRDP 통계가 제주 감귤농업의 실질적인 상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만감류 가격을 반영하여 재산출해 본 결과, 제주지역 농림어업 GRDP는 현행 산출 방식에 비해 연평균(2004~2011년중) 848억원(실질 기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보면 제주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0.2%p 높아지고 지역민들의 1인당 소득(2011년 기준)도 약 4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향후 GRDP 통계의 기준년 개편시 감귤 품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만감류 가격이 GRDP 산출단가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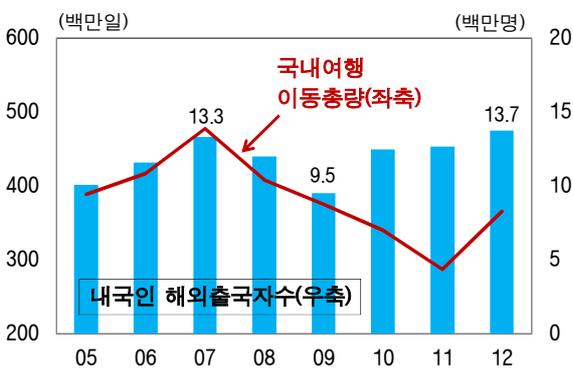
56) 원문은 <http://www.bok.or.kr/jeju>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양극화가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⁵⁷⁾

<주요 내용>

소득양극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및 해외관광 행태간 디커플링 확대의 주요 요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여행 이동총량 및 내국인 해외출국자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에 이변량 프로비트 모형(Bivariate Probit Model) 분석 및 영국을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case analysis) 등을 시도해 보았다. 분석 결과, 향후 소득양극화 심화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국내관광 수요가 해외관광 수요로 전환되면서 국내관광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2005년 이후 레저스포츠 및 웰빙관광 위주로 관광패턴이 변화하면서 고소득 관광객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해외관광간 대체가 현실화될 경우 제주관광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소득양극화 심화시 예상되는 제주관광 위축에 대응하여 정주형 관광(long-stay tourism) 여건 개선과 함께 관광인프라 확충, 접근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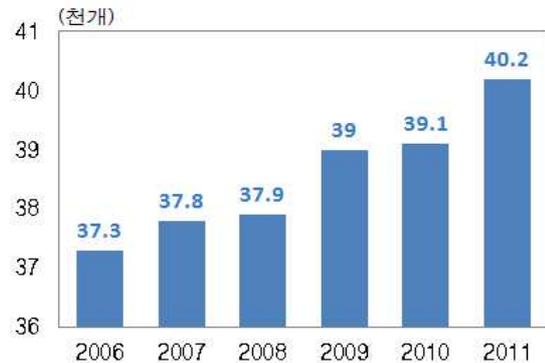
57) 원문은 <http://www.bok.or.kr/jeju>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주지역 자영업의 과밀화 수준 평가 및 시사점⁵⁸⁾

<주요 내용>

2009년 이후 제주지역의 자영업체는 관광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제주지역 자영업체수 추이



자료: 통계청

이에 숙박음식점, 도소매 등 주요 자영업종을 대상으로 과밀화 수준을 인구 대비 업체수,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타 지역과 비교해 본 결과, 숙박음식점은 과밀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소매와 운수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수익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소 과밀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사점>

아직까지는 주요 업종의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관광경기가 둔화될 경우 이들 경기민감업종의 업황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이 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잠재적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과밀업종 진입 억제, 각종 지원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8) 원문은 <http://www.bok.or.kr/jeju>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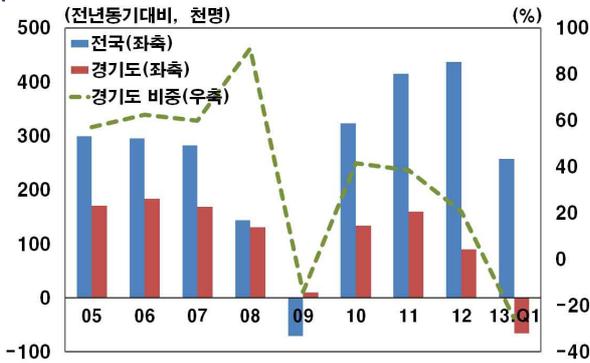
경기본부

최근 경기도의 고용창출력 둔화 요인 분석⁵⁹⁾

<주요 내용>

그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경기도의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축소되었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하락하는 등 경기도의 고용창출력이 뚜렷이 둔화되었다.

취업자수증감 및 전국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이는 경기도의 수출증가세 둔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기적 요인과, 전기전자 등 제조업 중심의 생산구조, 서비스업의 성장 부진 및 외국인직접투자 부진 등의 구조적 요인이 겹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사점>

경기도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기변동성 완화, 부동산거래 활성화, 신성장동력 산업의 조기 육성, 제조업 및 수출 부문의 고용유발효과 제고,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기업형 자영업자⁶⁰⁾ 육성방안⁶¹⁾

<주요 내용>

국내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3명중 1명이 해당될 정도로 고용비중이 높다. 그러나 그간의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은 주로 생계형 자영업자에 집중됨에 따라 성장사다리의 주춧돌로서 기업형 자영업자를 육성하는 데에는 소홀하였다.

기업의 성장사다리



경기지역 자영업은 부가가치규모가 큰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밀집도가 낮은 데다, 고용원수 증가에 따라 경영성과가 급속히 향상되는 등 기업형 자영업자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 위주의 자영업 정책,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 보수적 대출관행 및 단기위주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업단절 등으로 기업형 자영업자의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

<시사점>

기업형 자영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정책에 성장 개념 도입,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정책 및 경영개선 지원 등이 필요하다.

59) 원문은 <http://www.bok.or.kr/gyeonggi>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60) 자영업자는 창업동기에 따라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형 자영업자와 생계유지가 주목적인 생계형 자영업자로 구분되며 기업형 자영업자는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 문제를 완화하거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ets, et al,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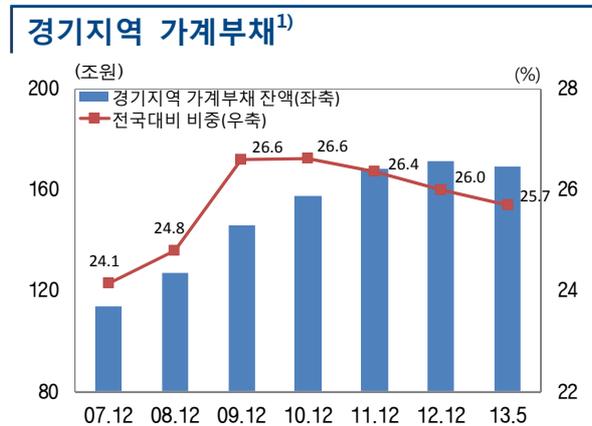
61) 원문은 <http://www.bok.or.kr/gyeonggi>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경남본부

경기지역 가계부채 연왕과 시사점⁶²⁾

<주요 내용>

경기지역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 규모도 타 지역에 비해 훨씬 큰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주택매입자금 수요가 감소하면서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다만, 최근에도 전세자금 수요 및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 부진, 높은 부채 수준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은 여전히 큰 상태이다.



주: 1)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단, 우체국 및 신탁계정 제외)
자료: 한국은행

<시사점>

경기지역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 소득 증대를 통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제고 및 부채구조 개선,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부담 경감,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등이 중요하다.

동태적 인자모형을 이용한 경남지역 종합 경제활동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⁶³⁾

<주요 내용>

시의성 있고 정도(精度) 높은 지역경기동향 파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경기지수 편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는 Stock-Watson의 동태적 단일인자모형(Dynamic Single-Factor Model)⁶⁴⁾을 이용하여 경남지역 경기동행지수인 종합경제활동지수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현행 종합지수와 순환변동치 비교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 한국은행 경남본부

<활용방안>

금번에 개발한 경남지역 종합경제활동지수는 지역 경기변동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속도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동 지수를 지역민들이 경남지역의 경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지역경기 판단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2) 원문은 <http://www.bok.or.kr/gyeonggi>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63) 원문은 <http://www.bok.or.kr/gyeongnam>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64) 경기와 관련이 깊은 경제지표들간의 공통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는 비관측 단일공통인자(single common component)를 추출하는 계량경제모형의 일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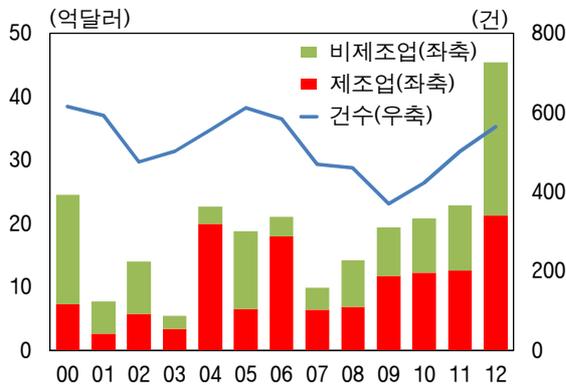
경남본부/울산본부

경남·울산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 부품소재기업 유치전략⁶⁵⁾

<주요 내용>

일본 제조업체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를 계기로 해외진출시 자연적·경제적 측면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남·울산지역은 다수의 대기업을 소재하고 수준 높은 기술혁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공급망(Supply Chain) 다변화를 추구하는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시사점>

경남·울산 지자체는 일본기업의 효율적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한·일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유치지원제도 확충, 일본 지자체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적극 공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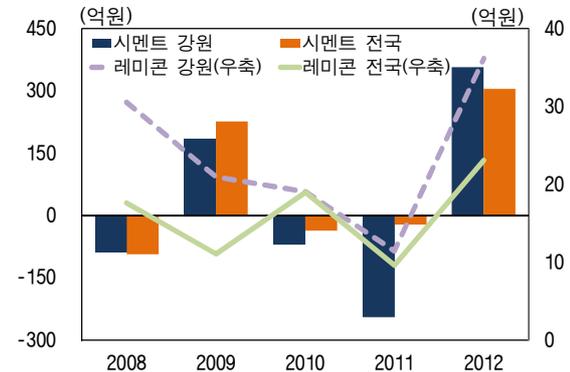
강릉본부

시멘트 및 레미콘 산업의 연왕과 과제⁶⁶⁾ -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

<주요 내용>

2012년중 국내 시멘트 및 레미콘사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12.9%, 13.9% 증가한 가운데, 강원지역 시멘트 및 레미콘사의 평균 매출액도 각각 10.2%, 10.1% 증가하였다. 원재료 가격의 안정 등으로 영업이익은 대폭 증가하는 등 시멘트사와 레미콘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및 레미콘사의 평균 영업이익 추이



자료 : Kis-Value

<시사점>

강원지역 시멘트사들이 장기적인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3년째 당기순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기반 산업으로서 지역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시 연쇄적 부실화 위험이 높으므로 운영비용 절감, 영업효율성 제고 등 자체적인 존속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5) 원문은 <http://www.bok.or.kr/gyeongnam>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66) 원문은 <http://www.bok.or.kr/gangneung>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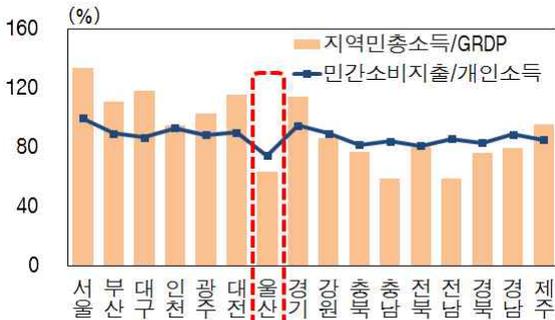
울산본부

울산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현황 및 정책 과제⁶⁷⁾

<주요 내용>

울산지역의 1인당 GRDP는 전국 최고 수준이나 GRDP 대비 지역민총소득 비율과 개인소득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율은 여타 지역에 비해 낮아 지역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역외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울산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현황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이와 같은 소득 역외유출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에 따른 영업잉여의 이전, 근무지와 거주지 불일치로 인한 근로소득의 역외유출, 생산물세 등 정부부문(세금)으로의 귀속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쇼핑·유통, 보건·의료 등 소매서비스업의 낙후와 정주여건 미흡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울산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소매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67) 원문은 <http://www.bok.or.kr/ulsan>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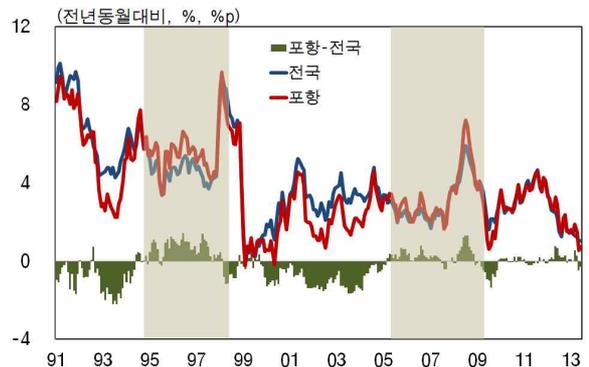
포항본부

포항지역 물가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⁶⁸⁾

<주요 내용>

포항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평균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0년 이후 전국 주요 도시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변동성도 타지역에 비해 확대되었다. 이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주택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세 확대, 대중교통 비활성화와 자가차량의 높은 이용도에 따른 석유류 의존도 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포항지역의 소비자물가는 공급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포항 및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주: 1) 음영은 포항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국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난 기간
자료: 통계청

<시사점>

포항지역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개인서비스로의 과도한 비용전가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주택공급 등으로 주택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68) 원문은 <http://www.bok.or.kr/pohang>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경북동해안지역 동산담보대출 연왕과 정책적 시사점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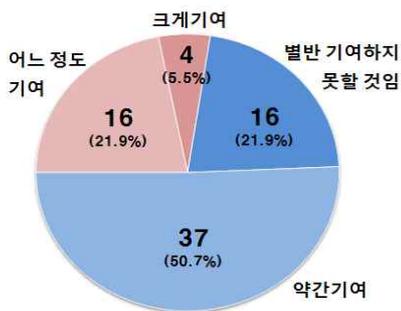
<주요 내용>

경북동해안지역의 동산담보대출실적은 취급액의 규모, 취급 점포수, 담보목적물의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지역내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상품취급기간이 일천한 데 따른 관련 인프라 미비(감정평가, 대출가능요건, 등기)에 주로 기인한다.

<시사점>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출취급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 경감(사후관리 및 담보처분과 관련한 인프라 보강, 첨담보로서의 활용과 같은 동산담보 거래의 양적 확대), 대출취급과 상품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 대출의 취급실적을 총액한도대출 한도배정시 감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두 대출간 연계에 앞서 우선 동산담보대출의 정형화와 취급확대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액한도대출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여부¹⁾



주: 1) 경북동해안지역 소재 예금은행 지점(73개 점포)을 대상으로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동산담보대출의 취급실적 연계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기여할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임

69) 원문은 <http://www.bok.or.kr/pohang>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II

지표로 보는 지역경제

종합

□ 실물경제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생산	1.0	-1.1	-0.2	-1.8	-0.9	1.4	-1.4	-2.7	..
제조업업황 BSI ¹⁾⁹⁾	84 (87)	71 (75)	68 (70)	72 (73)	79 (81)	79 (80)	80 (81)	79 (82)	72 (78)<73>
비제조업매출 BSI ⁹⁾	90	81	77	77	77	79	76	76	78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1.3	1.8	2.0	-2.0	0.9	-2.3	-0.2	5.1	..
백화점 판매액지수 ²⁾	1.2	1.4	3.1	0.0	1.0	-2.0	1.0	4.3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²⁾	1.4	2.2	1.0	-3.4	0.6	-2.5	-1.0	5.3	..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2.1	-6.3	8.4	-1.3	-2.0	6.1	-2.8	-8.8	..
현재생활형편 CSI ⁹⁾	89	87	86	89	91	90	91	91	93
건축허가면적 ³⁾	1.2 (35,828)	-7.3 (33,069)	-2.3 (38,748)	-12.4 (25,842)	-14.6 (30,603)	-14.2 (9,758)	-12.9 (10,838)	-16.7 (10,007)	..
건축착공면적 ³⁾	2.4 (28,316)	6.2 (24,056)	-15.4 (24,736)	1.1 (22,767)	-5.8 (26,681)	8.7 (9,857)	-20.3 (8,389)	-3.3 (8,435)	..
건설수주액	-0.7	-13.6	-33.1	-41.2	-29.1	-18.6	-18.4	-41.0	..
미분양아파트 ⁴⁾	62,288	71,552	74,835	70,633	65,072	70,201	66,896	65,072	..
건설업업황 BSI ⁹⁾	67	54	54	55	59	56	56	64	59
설비투자 BSI ⁹⁾	98	93	90	93	96	96	95	96	94
수 출	-1.7	-5.8	-0.3	0.5	0.8	0.2	3.1	-1.0	..
취업자수증감 ⁵⁾ (비농림어업)	43.0 (45.4)	50.6 (50.4)	34.2 (34.4)	25.7 (26.6)	32.4 (35.1)	34.5 (36.7)	26.5 (30.6)	36.0 (37.9)	36.7 (36.4)
비경제활동인구증감 ⁵⁾	11.0	5.7	24.4	33.6	24.2	26.9	27.3	18.5	11.6
실업률 ⁶⁾	3.3	3.0	2.8	3.6	3.1	3.2	3.0	3.1	3.1
경제활동참가율 ⁶⁾	62.3	61.8	61.1	59.9	62.2	61.7	62.3	62.5	62.4
고용률 ⁶⁾	60.2	60.0	59.4	57.7	60.2	59.8	60.4	60.5	60.4
소비자물가 ⁷⁾	2.4 (0.1)	1.6 (0.8)	1.7 (-0.3)	1.4 (0.7)	1.1 (-0.2)	1.2 (-0.1)	1.0 (0.0)	1.0 (-0.1)	1.4 (0.2)
주택매매가격 ⁸⁾	0.1	-0.4	-0.3	-0.2	-0.1	0.0	0.0	0.0	0.0
주택전세가격 ⁸⁾	0.7	0.6	1.1	0.9	0.8	0.4	0.2	0.2	0.4
아파트매매가격 ⁸⁾	0.1	-0.5	-0.4	-0.2	-0.1	0.0	0.0	-0.1	0.0
토지가격 ⁸⁾	0.3	0.1	0.2	0.2	0.4	0.1	0.1	0.1	..

주: 1)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 >내는 2013.8월 전망치
 2) 불변지수(2010=100)
 3) ()내는 기간중 허가 및 착공면적(천㎡)
 4) 기말기준(호)
 5) 전년동기대비 증감(만명)
 6) 기간중
 7) ()내는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8)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9) BSI, CSI는 지수(기준치=100)

□ 금융기관 여·수신¹⁾

(기말기준, 조원)

	기간중 증감액									잔액	
	2012				2013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3월말	6월말	
예금은행 예금	13.8 (1.4)	2.6 (0.3)	10.7 (1.1)	4.5 (0.5)	14.1 (1.4)	-2.6 (-0.3)	1.7 (0.2)	15.0 (1.5)	994.7 <3.3>	1,008.8 <3.3>	
(요구불 예금)	1.6 (1.7)	-3.1 (-3.2)	7.4 (7.9)	0.5 (0.5)	6.8 (6.7)	0.9 (0.9)	-0.6 (-0.6)	6.5 (6.4)	101.4 <6.8>	108.2 <12.0>	
(저축성 예금)	12.2 (1.4)	5.7 (0.6)	3.4 (0.4)	4.0 (0.4)	7.3 (0.8)	-3.4 (-0.4)	2.3 (0.3)	8.5 (0.9)	893.3 <2.9>	900.6 <2.3>	
비은행기관 수신	23.8 (2.5)	11.4 (1.2)	11.2 (1.1)	34.5 (3.4)	6.8 (0.7)	-5.7 (-0.5)	10.5 (1.0)	2.0 (0.2)	1,048.3 <8.4>	1,055.1 <6.5>	
수신 합계	37.6 (1.9)	14.0 (0.7)	21.9 (1.1)	39.0 (1.9)	20.9 (1.0)	-8.3 (-0.4)	12.2 (0.6)	17.0 (0.8)	2,043.0 <5.8>	2,063.9 <4.9>	
예금은행 대출	13.3 (1.2)	13.2 (1.2)	2.9 (0.3)	4.5 (0.4)	21.5 (1.9)	6.3 (0.6)	6.1 (0.6)	9.0 (0.8)	1,104.3 <3.2>	1,125.8 <3.9>	
(가계 대출)	4.8 (1.0)	1.4 (0.3)	7.9 (1.7)	-4.9 (-1.0)	8.3 (1.8)	0.9 (0.2)	2.6 (0.6)	4.7 (1.0)	462.4 <2.0>	470.7 <2.8>	
[주택 대출]	2.9 (1.0)	0.9 (0.3)	4.9 (1.6)	-2.3 (-0.7)	5.2 (1.6)	-0.1 (0.0)	1.9 (0.6)	3.4 (1.1)	316.0 <2.1>	321.2 <2.8>	
(기업 대출)	10.1 (1.7)	15.0 (2.5)	-6.6 (-1.1)	10.6 (1.7)	12.0 (1.9)	5.6 (0.9)	3.3 (0.5)	3.2 (0.5)	621.0 <4.9>	633.0 <5.1>	
비은행기관 여신	5.2 (1.5)	1.2 (0.4)	0.7 (0.2)	1.5 (0.4)	2.1 (0.6)	4.3 (1.2)	-1.1 (-0.3)	-1.1 (-0.3)	351.1 <2.5>	353.2 <1.6>	
여신 합계	18.5 (1.3)	14.4 (1.0)	3.6 (0.2)	6.1 (0.4)	23.6 (1.6)	10.6 (0.7)	5.0 (0.3)	7.9 (0.5)	1,455.5 <3.0>	1,479.0 <3.3>	

주: 1) ()내는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대비 증감률(%)

□ 자금사정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어음부도율 ¹⁾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1
부도업체수 ²⁾	315	314	312	257	218	89	71	58
(법 인)	221	229	236	182	154	64	53	37
(개 인)	94	85	76	75	64	25	18	21
제조업 자금사정 BSI ³⁾	90 (90)	82 (85)	82 (82)	83 (84)	88 (89)	86 (88)	89 (87)	90(91) <87>[88]

주: 1) 전자결제액 조정후, % 2) 개수
 3) ()내는 전기 조사시 전망치, < >내는 2013. 7월 실적치, [] 내는 2013.8월 전망치

수도권

□ 실물경제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생산	-0.4	-0.9	3.1	2.2	5.5	7.6	5.4	3.7	..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등)	-6.4	-0.7	15.1	14.3	23.7	16.5	7.7	18.5	..
(자동차 및 트레일러)	9.2	-5.7	9.1	6.8	6.8	12.1	6.0	2.4	..
(기타기계 및 장비)	2.5	-2.8	-4.6	-9.8	-4.1	-2.2	-8.9	-2.8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6.2	14.0	0.8	-2.2	-7.7	-9.6	-6.6	-6.7	..
(석유정제품)	-13.5	-4.7	-6.8	-5.7	-6.0	0.7	-7.2	-11.8	..
(1차 금속)	-0.7	1.1	-1.9	-3.2	1.6	2.6	0.6	1.7	..
제조업업황 BSI ¹⁾⁹⁾	84	78	76	67	76	72	77	79	75
	(87)	(82)	(79)	(71)	(78)	(74)	(79)	(81)	(80)<77>
비제조업매출 BSI ⁹⁾	92	86	81	79	80	83	80	77	76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1.7	2.5	1.6	-1.6	0.4	-2.0	-0.6	4.2	..
백화점 판매액지수 ²⁾	0.6	1.8	2.6	-0.3	0.4	-2.0	0.1	3.4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²⁾	2.8	3.1	0.4	-2.6	0.1	-2.2	-1.4	4.0	..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0.2	-6.9	8.7	-0.6	1.3	8.9	-0.4	-4.1	..
현재생활형편 CSI ⁹⁾	87	86	86	89	92	90	91	91	93
건축허가면적 ³⁾	-9.4	14.1	15.7	-6.1	-12.6	-17.4	4.3	-22.7	..
	(13,986)	(15,000)	(17,731)	(10,987)	(12,223)	(3,846)	(4,498)	(3,880)	..
건축착공면적 ³⁾	3.8	17.3	0.2	25.5	4.7	36.4	-32.6	21.9	..
	(10,255)	(8,988)	(9,858)	(9,442)	(10,748)	(4,129)	(2,732)	(3,787)	..
건설수주액	29.8	-14.9	-34.9	-38.5	-41.9	-54.3	-38.6	-36.4	..
미분양아파트 ⁴⁾	26,929	30,038	32,547	32,759	32,051	33,267	32,769	32,501	..
건설업업황 BSI ⁹⁾	60	59	49	59	66	65	70	65	55
설비투자 BSI ⁹⁾	98	95	93	96	95	95	95	96	98
수 출	-0.3	-0.8	1.9	5.5	10.2	12.3	14.0	4.4	..
취업자수증감 ⁵⁾	20.4	17.2	7.6	0.6	6.1	6.7	1.3	10.4	34.5
(비농림어업)	(19.8)	(15.0)	(6.0)	(2.1)	(6.5)	(6.9)	(2.4)	(10.3)	(36.7)
비경제활동인구증감 ⁵⁾	0.8	-2.4	4.4	15.3	14.3	13.5	17.3	11.9	26.9
실업률 ⁶⁾	3.9	3.6	3.4	4.0	3.7	3.8	3.7	3.5	3.2
경제활동참가율 ⁶⁾	62.9	62.4	61.8	60.9	62.5	62.2	62.6	62.8	61.7
고용률 ⁶⁾	60.5	60.1	59.7	58.4	60.3	59.9	60.3	60.6	59.8
소비자물가 ⁷⁾	2.5	1.8	1.8	1.5	1.1	1.4	1.1	1.1	1.4
	(0.1)	(0.9)	(-0.3)	(0.7)	(-0.2)	(-0.1)	(0.0)	(-0.1)	(0.2)
주택매매가격 ⁸⁾	-0.7	-1.1	-0.9	-0.6	-0.3	-0.1	0.0	-0.2	-0.2
주택전세가격 ⁸⁾	0.1	0.4	0.9	0.9	0.8	0.3	0.2	0.2	0.5
아파트매매가격 ⁸⁾	-1.0	-1.4	-1.3	-0.8	-0.6	-0.2	-0.2	-0.3	-0.2
토지가격 ⁸⁾	0.3	0.0	0.1	0.1	0.4	0.1	0.1	0.1	0.1

주: 1)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 >내는 2013.8월 전망치
 2) 불변지수(2010=100)
 3) ()내는 기간중 허가 및 착공면적(천㎡)
 4) 기말기준(호)
 5) 전년동기대비 증감(만명)
 6) 기간중
 7) ()내는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8)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9) BSI, CSI는 지수(기준치=100)

□ 금융기관 여·수신¹⁾

	기간중 증감액									(기말기준, 조원)	
	2012				2013					잔액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3월말	6월말	
예금은행 예금	10.2	3.2	11.4	-3.5	4.9	-6.1	-0.6	11.6	699.7	704.6	
	(1.5)	(0.5)	(1.7)	(-0.5)	(0.7)	(-0.9)	(-0.1)	(1.7)	<3.1>	<2.3>	
(요구불 예금)	1.3	-1.1	4.5	-0.7	5.0	1.6	-0.2	3.6	63.5	68.6	
	(2.1)	(-1.8)	(7.6)	(-1.1)	(7.9)	(2.6)	(-0.3)	(5.5)	<6.7>	<12.8>	
(저축성 예금)	8.9	4.3	6.9	-2.8	-0.1	-7.7	-0.4	8.0	636.1	636.0	
	(1.4)	(0.7)	(1.1)	(-0.4)	(-0.0)	(-1.2)	(-0.1)	(1.3)	<2.8>	<1.3>	
비은행기관 수신	16.4	6.6	5.4	30.6	1.3	-6.5	9.1	-1.3	673.8	675.1	
	(2.7)	(1.0)	(0.8)	(4.8)	(0.2)	(-1.0)	(1.4)	(-0.2)	<9.6>	<7.0>	
수신 합계	26.6	9.8	16.8	27.1	6.2	-12.6	8.5	10.3	1,373.5	1,379.7	
	(2.1)	(0.7)	(1.3)	(2.0)	(0.5)	(-0.9)	(0.6)	(0.8)	<6.2>	<4.5>	
예금은행 대출	4.2	5.6	-3.9	-2.2	11.1	3.5	3.7	3.9	748.5	759.6	
	(0.6)	(0.7)	(-0.5)	(-0.3)	(1.5)	(0.5)	(0.5)	(0.5)	<0.5>	<1.4>	
(가계 대출)	2.0	-0.5	2.6	-4.3	3.3	0.0	1.1	2.2	330.6	334.0	
	(0.6)	(-0.2)	(0.8)	(-1.3)	(1.0)	(0.0)	(0.3)	(0.7)	<-0.1>	<0.3>	
[주택 대출]	0.7	-1.1	0.9	-3.1	1.3	-0.7	0.7	1.3	231.1	232.4	
	(0.3)	(-0.5)	(0.4)	(-1.3)	(0.6)	(-0.3)	(0.3)	(0.6)	<-1.1>	<-0.9>	
(기업 대출)	4.2	8.2	-7.8	3.7	6.7	3.8	2.1	0.8	403.9	410.6	
	(1.1)	(2.1)	(-1.9)	(0.9)	(1.7)	(0.9)	(0.5)	(0.2)	<2.1>	<2.7>	
비은행기관 여신	2.4	-0.2	-2.4	2.0	-0.5	3.4	-1.8	-2.2	184.3	183.8	
	(1.3)	(-0.1)	(-1.3)	(1.1)	(-0.3)	(1.9)	(-1.0)	(-1.2)	<1.0>	<-0.6>	
여신 합계	6.6	5.4	-6.3	-0.2	10.6	6.9	1.9	1.7	932.9	943.4	
	(0.7)	(0.6)	(-0.7)	(-0.0)	(1.1)	(0.7)	(0.2)	(0.2)	<0.6>	<1.0>	

주: 1) ()내는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대비 증감률(%)

□ 자금사정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어음부도율 ¹⁾	0.02	0.02	0.02	0.01	0.02	0.02	0.02	0.01
부도업체수 ²⁾	179	176	185	149	138	62	43	33
(법 인)	133	138	155	109	109	50	35	24
(개 인)	46	38	30	40	29	12	8	9
제조업	91	88	86	80	88	85	88	91
자금사정 BSI ³⁾	(95)	(88)	(88)	(84)	(86)	(81)	(88)	(89)<93>

주: 1) 전자결제액 조정후, % 2) 개수
 3) ()내는 전기 조사시 전망치, < >내는 2013. 7월 전망치

동남권

□ 실물경제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생산	4.3	1.3	0.9	0.5	-1.5	2.0	-4.1	-2.4	..
(기타운송장비)	9.1	20.0	17.8	15.6	1.7	8.9	-6.2	2.7	..
(자동차.부품)	0.9	-15.7	0.0	-1.9	-0.3	-2.3	1.7	-0.1	..
(기계장비)	-3.1	-5.4	-17.2	-13.3	-7.7	-7.1	-10.1	-5.8	..
(석유정제)	-0.2	4.1	-1.7	1.2	-7.0	2.2	-14.6	-6.8	..
(1차금속)	-0.2	2.7	-2.3	-6.6	-4.7	-2.6	-5.1	-6.4	..
(금속가공)	23.9	14.3	11.7	-0.9	0.9	7.7	-1.0	-3.6	..
(화학제품)	2.9	0.8	-4.5	-4.1	1.0	3.7	0.0	-0.5	..
제조업업황 BSI ¹⁾⁹⁾	84	74	72	80	80	76	77	85	79
	(86)	(77)	(73)	(78)	(79)	(80)	(78)	(80)	(83)<78>
비제조업매출 BSI ⁹⁾	85	79	78	70	73	75	73	70	69
컨테이너처리량 ²⁾	7.8	2.7	2.1	3.6	2.4	4.5	-1.8	4.8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2.8	-2.2	0.5	-3.8	1.2	-3.2	0.4	6.9	..
백화점 판매액지수 ²⁾	0.3	-1.6	2.4	0.1	1.8	-2.0	2.0	5.9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²⁾	-5.4	-2.7	-1.3	-6.9	0.7	-4.2	-1.0	7.6	..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18.6	-19.7	-7.5	-13.6	-12.4	-5.0	-12.4	-19.3	..
현재생활형편 CSI ⁹⁾	92	88	86	87	90	88	90	92	91
건축허가면적 ³⁾	16.8	-12.3	-35.5	-25.1	-25.9	-27.5	-24.5	-25.9	..
(전 체)	(6,597)	(4,856)	(5,366)	(4,322)	(4,891)	(1,417)	(1,884)	(1,590)	..
(주 거 용)	(2,613)	(2,417)	(2,630)	(1,926)	(1,840)	(552)	(734)	(554)	..
(비주거용)	(3,984)	(2,438)	(2,736)	(2,396)	(3,051)	(865)	(1,150)	(1,036)	..
건축착공면적 ³⁾	1.6	11.2	-21.2	-50.4	-55.9	-38.7	-58.8	-66.0	..
(전 체)	(5,305)	(4,484)	(3,839)	(2,056)	(2,339)	(840)	(922)	(578)	..
(주 거 용)	(2,621)	(2,226)	(2,131)	(1,211)	(1,453)	(588)	(546)	(318)	..
(비주거용)	(2,684)	(2,258)	(2,244)	(1,915)	(2,115)	(698)	(754)	(663)	..
미분양아파트 ⁴⁾	12,158	15,759	19,001	18,041	13,872	17,272	15,312	13,872	..
건설업업황 BSI ⁹⁾	64	67	63	58	63	66	61	61	61
설비투자 BSI ⁹⁾	99	95	95	92	93	95	90	94	93
수 출	-5.1	-15.5	-12.7	-10.0	-10.5	-14.7	-12.7	-4.0	..
취업자수증감 ⁵⁾	6.5	8.4	2.2	3.6	5.3	5.2	4.3	6.2	5.4
(비농림어업)	(6.3)	(8.8)	(4.5)	(5.3)	(6.7)	(7.2)	(5.4)	(7.6)	(5.2)
비경제활동인구증감 ⁵⁾	0.0	-0.9	5.4	3.8	1.5	2.5	2.6	-0.5	-0.5
실 업 륜 ⁶⁾	2.8	2.7	2.8	3.3	2.7	2.8	2.5	2.8	3.0
경제활동참가율 ⁶⁾	60.1	59.6	59.2	58.8	60.3	60.0	60.2	60.6	60.4
고 용 륜 ⁶⁾	58.4	58.0	57.6	56.9	58.7	58.3	58.7	59.0	58.6
제조업인력사정 BSI	88	93	93	83	85	81	88	85	89
비제조업인력사정 BSI	84	88	88	84	84	82	85	86	85
소비자물가 ⁷⁾	2.4	1.6	1.6	1.4	0.9	1.0	0.7	0.8	1.3
	(0.1)	(0.8)	(-0.4)	(0.7)	(-0.3)	(-0.2)	(0.0)	(-0.1)	(0.2)
주택매매가격 ⁸⁾	0.5	-0.1	-0.2	-0.2	0.1	0.0	0.0	0.0	0.1
주택전세가격 ⁸⁾	0.9	0.0	0.4	0.6	0.6	0.3	0.1	0.2	0.2
아파트매매가격 ⁸⁾	0.4	-0.5	-0.5	-0.3	-0.1	0.0	0.0	0.0	0.0
토지가격 ⁸⁾	0.5	0.4	0.4	0.4	0.5	0.2	0.1	0.2	..

주: 1)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 >내는 2013.8월 전망치
 2) 불변지수(2010=100)
 3) ()내는 기간중 허가 및 착공면적(천㎡)
 4) 기말기준(호)
 5) 전년동기대비 증감(만명)
 6) 기간중
 7) ()내는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8)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9) BSI, CSI는 지수(기준치=100)

□ 금융기관 여·수신¹⁾

	기간중 증감액									(기말기준, 억원)	
	2012				2013					잔액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3월말	6월말	
예금은행 예금	12,211 (1.2)	5,388 (0.5)	10,366 (1.0)	18,217 (1.7)	16,697 (1.6)	-904 (-0.1)	4,739 (0.4)	12,862 (1.2)	1,070,815 <4.5>	1,087,512 <4.9>	
(요구불 예금)	3,903 (3.3)	-3,774 (-3.1)	11,355 (9.5)	-1,096 (-0.8)	7,649 (5.9)	3,730 (2.9)	-4,008 (-3.0)	7,927 (6.1)	130,021 <8.7>	137,670 <11.4>	
(저축성 예금)	8,309 (0.9)	9,162 (1.0)	-989 (-0.1)	19,313 (2.1)	9,048 (1.0)	-4,633 (-0.5)	8,747 (0.9)	4,935 (0.5)	940,794 <4.0>	949,843 <4.0>	
비은행기관 수신	21,952 (2.1)	7,752 (0.7)	12,878 (1.2)	16,014 (1.5)	13,719 (1.2)	5,074 (0.5)	3,943 (0.4)	4,702 (0.4)	1,113,629 <5.6>	1,127,347 <4.7>	
수신 합계	34,163 (1.6)	13,140 (0.6)	23,244 (1.1)	34,231 (1.6)	30,416 (1.4)	4,170 (0.2)	8,682 (0.4)	17,565 (0.8)	2,184,443 <5.0>	2,214,859 <4.8>	
예금은행 대출	42,978 (3.3)	33,757 (2.5)	24,973 (1.8)	33,300 (2.4)	41,921 (2.9)	13,254 (0.9)	7,789 (0.5)	20,877 (1.4)	1,449,592 <10.3>	1,491,513 <9.9>	
(가계 대출)	12,647 (2.7)	8,239 (1.7)	21,900 (4.5)	-731 (-0.1)	20,343 (4.0)	3,858 (0.8)	6,004 (1.2)	10,481 (2.0)	509,266 <9.0>	529,609 <10.4>	
[주택 대출]	11,383 (3.6)	8,544 (2.6)	17,918 (5.3)	2,876 (0.8)	16,243 (4.5)	2,369 (0.7)	5,297 (1.5)	8,577 (2.3)	360,329 <12.7>	376,572 <13.8>	
(기업 대출)	26,662 (3.2)	31,067 (3.7)	656 (0.1)	35,250 (4.0)	21,161 (2.3)	9,353 (1.0)	1,650 (0.2)	10,157 (1.1)	915,038 <11.4>	936,198 <10.4>	
비은행기관 여신	8,407 (1.8)	7,324 (1.5)	6,876 (1.4)	-2,999 (-0.6)	5,282 (1.1)	2,449 (0.5)	1,045 (0.2)	1,788 (0.4)	490,134 <4.2>	495,416 <3.4>	
여신 합계	51,385 (2.9)	41,081 (2.2)	31,849 (1.7)	30,301 (1.6)	47,203 (2.4)	15,703 (0.8)	8,834 (0.5)	22,665 (1.2)	1,939,726 <8.7>	1,986,929 <8.2>	

주: 1) ()내는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대비 증감률(%)

□ 자금사정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어음부도율 ¹⁾	0.05	0.05	0.08	0.08	0.05	0.07	0.03	0.06
부도업체수 ²⁾	50	52	38	36	29	9	11	9
(법 인)	32	31	24	26	15	5	6	4
(개 인)	18	21	14	10	14	4	5	5
제조업 자금사정 BSI ³⁾	91 (91)	88 (91)	90 (90)	90 (89)	90 (91)	-	-	-

주: 1) 전자결제액 조정후, % 2) 개수
3) ()내는 전기 조사시 전망치

충청권

□ 실물경제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생산	2.5	1.1	0.1	-1.7	-0.6	-0.2	0.6	-2.4	..
(전자.영상.통신장비)	-2.4	-2.1	-1.5	-5.6	-2.3	-1.7	0.8	-6.2	..
(화학물질.화학제품)	10.5	11.5	10.9	13.7	12.3	20.4	11.0	6.2	..
(자동차.트레일러)	9.2	-4.7	-2.4	-0.8	3.6	2.7	3.1	4.9	..
(비금속광물제품)	-0.8	5.6	-0.8	1.3	-2.0	2.1	-2.9	-5.0	..
(고무.플라스틱)	0.9	1.4	0.6	-1.3	-2.1	-0.5	-2.0	-3.7	..
(1차 금속)	2.7	4.2	-6.1	-7.1	-0.5	-3.6	1.5	0.5	..
제조업업황 BSI ¹⁾⁹⁾	84	76	72	75	83	82	83	85	79
	(87)	(81)	(77)	(75)	(84)	(85)	(84)	(84)	(82)<86>
비제조업매출 BSI ⁹⁾	81	72	74	70	77	78	79	75	76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0.4	3.5	9.5	1.7	5.6	1.2	4.1	11.7	..
백화점 판매액지수 ²⁾	-5.7	2.8	9.9	6.6	9.4	6.3	9.3	13.0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²⁾	2.7	3.8	9.3	-0.8	3.5	-1.5	1.4	10.9	..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3.6	-6.6	8.4	0.6	-2.5	4.4	-0.3	-11.1	..
소비자심리지수	105	100	97	103	104	103	104	106	106
현재생활형편 CSI ⁹⁾	93	88	88	90	93	91	93	95	93
건축허가면적 ³⁾	23.8	-41.9	27.9	-14.9	-26.2	-14.5	-51.6	-16.7	..
	(5,378)	(4,857)	(7,115)	(3,489)	(3,968)	(1,698)	(770)	(1,499)	..
건축착공면적 ³⁾	0.7	0.9	-42.8	-1.4	-9.3	-29.1	9.3	1.6	..
	(4,574)	(3,537)	(3,801)	(3,890)	(4,147)	(1,373)	(1,318)	(1,457)	..
미분양주택 ⁴⁾	8,170	8,422	4,968	5,623	5,246	5,189	4,986	5,246	..
건설업업황 BSI ⁹⁾	66	60	56	60	58	56	58	59	55
설비투자 BSI ⁹⁾	99	99	98	97	97	95	99	97	97
수 출	-1.4	2.3	7.0	7.7	5.4	6.7	6.5	3.2	..
취업자수증감 ⁵⁾	4.8	10.2	10.9	9.9	12.4	12.5	11.5	13.1	11.3
(비농림어업)	(6.5)	(9.6)	(9.3)	(7.9)	(11.3)	(11.2)	(10.6)	(12.1)	(11.2)
비경제활동인구증감 ⁵⁾	5.8	3.8	4.2	5.9	0.8	1.7	0.5	0.1	0.6
실업률 ⁶⁾	2.6	2.3	2.2	2.7	2.6	2.5	2.7	2.6	2.6
경제활동참가율 ⁶⁾	62.7	62.3	60.9	58.4	63.7	62.8	64.0	64.1	63.9
고용률 ⁶⁾	61.1	60.9	59.5	56.8	62.0	61.3	62.3	62.4	62.3
소비자물가 ⁷⁾	2.3	1.3	1.4	1.2	0.9	0.8	0.6	0.6	1.1
	(0.3)	(0.1)	(0.3)	(0.6)	(0.0)	(-0.1)	(-0.3)	(-0.2)	(0.1)
주택매매가격 ⁸⁾	1.2	0.9	0.9	0.5	0.4	0.2	0.1	0.1	0.2
주택전세가격 ⁸⁾	1.3	1.5	2.5	1.5	1.0	0.4	0.3	0.3	0.4
아파트매매가격 ⁸⁾	1.4	1.0	1.2	0.6	0.6	0.3	0.1	0.2	0.3
토지가격 ⁸⁾	0.4	0.1	0.2	0.2	0.3	0.1	0.1	0.1	..

주: 1)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 >내는 2013.8월 전망치
 2) 불변지수(2010=100)
 3) ()내는 기간중 허가 및 착공면적(천㎡)
 4) 기말기준(호)
 5) 전년동기대비 증감(만명)
 6) 기간중
 7) ()내는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8)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9) BSI, CSI는 지수(기준치=100)

□ 금융기관 여·수신¹⁾

	기간중 증감액									(기말기준, 조원)	
	2012				2013					잔액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3월말	6월말	
예금은행 예금	0.9 (1.6)	-1.1 (-1.9)	-0.5 (-0.9)	3.1 (5.7)	1.7 (2.9)	1.4 (2.4)	0.1 (0.1)	0.2 (0.4)	57.9 <4.4>	59.6 <5.8>	
(요구불 예금)	-0.1 (-1.0)	-0.6 (-8.1)	0.5 (7.2)	0.7 (11.0)	0.1 (1.2)	-0.4 (-5.1)	-0.1 (-2.0)	0.6 (8.7)	7.5 <8.2>	7.6 <10.6>	
(저축성 예금)	0.9 (1.9)	-0.5 (-1.0)	-1.0 (-2.0)	2.4 (5.0)	1.6 (3.2)	1.8 (3.6)	0.2 (0.4)	-0.4 (-0.7)	50.4 <3.8>	52.0 <5.1>	
비은행기관 수신	1.7 (2.3)	1.2 (1.6)	1.2 (1.6)	0.8 (1.1)	0.9 (1.1)	0.2 (0.2)	0.2 (0.3)	0.5 (0.7)	76.7 <6.8>	77.6 <5.6>	
수신 합계	2.5 (2.0)	0.2 (0.1)	0.7 (0.5)	3.9 (3.0)	2.6 (1.9)	1.6 (1.2)	0.3 (0.2)	0.7 (0.5)	134.6 <5.8>	137.2 <5.7>	
예금은행 대출	1.5 (2.4)	1.4 (2.2)	1.2 (1.8)	1.5 (2.3)	2.0 (3.0)	0.4 (0.6)	0.5 (0.7)	1.1 (1.6)	65.4 <9.1>	67.4 <9.8>	
(가계 대출)	0.4 (1.5)	0.5 (1.9)	1.0 (3.5)	0.0 (-0.1)	1.0 (3.4)	0.2 (0.6)	0.3 (1.1)	0.5 (1.7)	29.8 <6.9>	30.8 <8.9>	
[주택 대출]	0.2 (1.4)	0.5 (2.9)	0.8 (4.1)	0.2 (1.0)	0.8 (3.9)	0.1 (0.6)	0.3 (1.3)	0.4 (2.0)	19.5 <9.7>	20.2 <12.5>	
(기업 대출)	1.0 (3.2)	1.0 (3.2)	0.3 (0.8)	1.2 (3.7)	0.9 (2.7)	0.2 (0.7)	0.3 (1.0)	0.3 (1.0)	34.4 <11.3>	35.3 <10.8>	
비은행기관 여신	0.7 (1.9)	0.3 (0.8)	0.5 (1.3)	-0.1 (-0.2)	0.6 (1.7)	0.2 (0.5)	0.2 (0.5)	0.3 (0.7)	37.1 <3.8>	37.7 <3.5>	
여신 합계	2.1 (2.2)	1.6 (1.7)	1.6 (1.6)	1.4 (1.4)	2.6 (2.5)	0.6 (0.6)	0.7 (0.6)	1.3 (1.3)	102.5 <7.1>	105.1 <7.4>	

주: 1) ()내는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대비 증감률(%)

□ 자금사정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어음부도율 ¹⁾	0.03	0.02	0.02	0.01	0.01	0.01	0.01	0.01
부도업체수 ²⁾	24	17	20	16	9	2	5	2
(법 인)	(18)	(12)	(12)	(10)	(6)	(1)	(3)	(2)
(개 인)	(6)	(5)	(8)	(6)	(3)	(1)	(2)	(0)
제조업 자금사정 BSI ³⁾	89 (90)	86 (90)	83 (83)	84 (84)	88 (90)	84 (87)	91 (90)	89 (93)<92>

주: 1) 전자결제액 조정후, % 2) 개수
 3) ()내는 전기 조사시 전망치, < >내는 2013. 7월 전망치

호남권

□ 실물경제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생산	1.9	-1.1	-4.6	-4.9	-3.0	-1.3	-3.6	-4.2	..
(자동차 및 트레일러)	-5.5	-14.7	-16.3	-9.3	-4.2	-2.6	-2.3	-7.7	..
(전기 장비)	-12.9	-2.1	-14.1	-13.5	-9.9	-6.6	-13.2	-9.7	..
(기타 운송장비)	31.2	-3.5	-19.5	-34.0	-35.3	-20.2	-36.8	-46.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6	2.4	4.1	6.8	4.4	4.4	4.2	4.7	..
(1차 금속)	2.9	5.9	-0.9	3.3	-2.3	0.1	-0.4	-6.4	..
제조업업황 BSI ¹⁾⁹⁾	82	69	66	66	72	72	73	71	75
	(87)	(76)	(69)	(68)	(70)	(68)	(72)	(70)	(73)<74>
비제조업매출 BSI ⁹⁾	82	77	75	76	83	82	82	84	8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0.6	-0.9	1.3	-4.3	-2.1	-7.1	-2.8	3.7	..
백화점 판매액지수 ²⁾	-2.5	-3.5	3.3	-4.1	-3.9	-10.1	-0.9	-0.1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²⁾	0.4	0.1	0.4	-4.5	-1.4	-5.6	-3.6	5.3	..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0.6	-2.4	11.1	22.0	2.6	8.7	0.8	-1.4	..
소비자심리지수	103	99	100	99	100	99	100	102	102
현재생활형편 CSI ⁹⁾	92	91	90	88	90	90	91	90	91
건축허가면적 ³⁾	9.8	4.6	-24.4	-30.2	-33.4	-19.7	-53.7	-13.5	..
	(4,854)	(3,873)	(3,824)	(2,653)	(3,231)	(1,039)	(1,023)	(1,169)	..
건축착공면적 ³⁾	4.2	-13.7	-9.9	-35.9	-18.8	8.4	-18.9	-42.8	..
	(3,827)	(3,075)	(3,396)	(2,175)	(3,108)	(1,291)	(1,048)	(769)	..
미분양주택 ⁴⁾	2,833	5,102	6,455	4,646	5,407	4,982	5,143	5,407	..
건설업업황 BSI ⁹⁾	69	65	63	68	70	73	70	72	60
설비투자 BSI ⁹⁾	100	99	94	93	95	95	95	96	95
수 출	3.9	-5.0	10.1	3.1	-5.8	-8.0	0.8	-10.0	..
취업자수증감 ⁵⁾	4.3	5.9	6.4	7.1	6.0	6.5	6.4	5.1	6.8
(비농림어업)	(5.1)	(7.9)	(8.5)	(8.6)	(9.0)	(9.4)	(9.7)	(8.0)	(7.2)
비경제활동인구증감 ⁵⁾	5.4	7.3	8.1	4.7	2.7	3.6	2.4	2.1	0.2
실업률 ⁶⁾	2.1	1.7	1.6	2.8	2.3	2.5	2.2	2.3	2.2
경제활동참가율 ⁶⁾	61.2	60.8	59.9	58.6	61.4	60.9	61.8	61.6	61.6
고용률 ⁶⁾	59.9	59.7	59.0	56.9	60.0	59.4	60.5	60.2	60.2
소비자물가 ⁷⁾	2.3	1.2	1.5	1.3	1.1	1.1	1.0	1.2	1.6
	(-0.1)	(1.0)	(-0.4)	(0.8)	(0.1)	(-0.1)	(0.0)	(-0.1)	(0.2)
주택매매가격 ⁸⁾	0.7	-0.2	-0.1	-0.2	-0.1	-0.1	0.0	-0.1	0.0
주택전세가격 ⁸⁾	1.4	0.2	0.5	0.4	0.2	0.1	0.0	0.1	0.1
아파트매매가격 ⁸⁾	1.0	-0.2	-0.0	-0.2	-0.2	0.0	0.0	-0.1	0.0
토지가격 ⁸⁾	0.4	0.3	0.3	0.3	0.2	0.1	0.0	0.1	..

주: 1)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 >내는 2013.8월 전망치
 2) 불변지수(2010=100)
 3) ()내는 기간중 허가 및 착공면적(천㎡)
 4) 기말기준(호)
 5) 전년동기대비 증감(만명)
 6) 기간중
 7) ()내는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8)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9) BSI, CSI는 지수(기준치=100)

□ 금융기관 여·수신¹⁾

	기간중 증감액									(기말기준, 억원) 잔액	
	2012				2013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3월말	6월말	
예금은행 예금	4,958	-338	-1,228	6,797	26,075	10,337	6,964	8,775	503,553	529,628	
	(1.0)	(-0.1)	(-0.2)	(1.4)	(5.2)	(2.1)	(1.4)	(1.7)	<2.1>	<6.3>	
(요구불 예금)	2,559	-2,672	3,941	622	4,484	-2,597	-1,298	8,379	72,400	76,884	
	(3.8)	(-3.8)	(5.8)	(0.9)	(6.2)	(-3.6)	(-1.9)	(12.2)	<6.5>	<9.0>	
(저축성 예금)	2,399	2,334	-5,169	6,175	21,591	12,934	8,262	396	431,152	452,744	
	(0.6)	(0.5)	(-1.2)	(1.5)	(5.0)	(3.0)	(1.9)	(0.1)	<1.3>	<5.8>	
비은행기관 수신	15,513	7,078	18,966	8,568	7,398	-2,187	2,470	7,115	784,813	792,211	
	(2.1)	(0.9)	2.5	(1.2)	(0.9)	(-0.3)	(0.3)	(0.9)	<6.8>	<5.6>	
수신 합계	20,472	6,740	17,738	15,365	33,473	8,150	9,433	15,890	1,288,366	1,321,839	
	(1.7)	(0.5)	(1.4)	(1.2)	(2.6)	(0.6)	(0.7)	(1.2)	<4.9>	<5.9>	
예금은행 대출	13,538	13,927	15,069	7,786	12,676	1,298	5,457	5,921	570,388	583,064	
	(2.6)	(2.6)	(2.8)	(1.4)	(2.2)	(0.2)	(1.0)	(1.0)	<9.7>	<9.3>	
(가계 대출)	5,623	1,985	8,670	-178	7,732	1,126	2,963	3,643	206,757	214,489	
	(2.9)	(1.0)	(4.4)	(-0.1)	(3.7)	(0.5)	(1.4)	(1.7)	<8.4>	<9.3>	
[주택 대출]	4,918	2,378	5,933	3,189	6,125	583	2,607	2,936	121,119	127,244	
	(4.7)	(2.2)	(5.3)	(2.7)	(5.1)	(0.5)	(2.1)	(2.4)	<15.7>	<16.1>	
(기업 대출)	8,575	11,706	6,249	8,570	5,468	164	3,078	2,226	351,475	356,943	
	(2.7)	(3.6)	(1.9)	(2.5)	(1.6)	(0.0)	(0.9)	(0.6)	<11.1>	<9.8>	
비은행기관 여신	4,815	2,953	7,224	-1,163	4,690	1,370	1,027	2,293	350,568	355,258	
	(1.4)	(0.9)	2.1	(-0.3)	(1.3)	(0.4)	(0.3)	(0.6)	<4.1>	<4.0>	
여신 합계	18,353	16,880	22,293	6,623	17,366	2,667	6,484	8,214	920,956	938,322	
	(2.1)	(1.9)	(2.5)	(0.7)	(1.9)	(0.3)	(0.7)	(0.9)	<7.5>	<7.2>	

주: 1) ()내는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대비 증감률(%)

□ 자금사정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어음부도율 ¹⁾	0.04	0.03	0.04	0.03	0.05	0.08	0.04	0.02
부도업체수 ²⁾	28	38	34	20	23	8	8	7
(법 인)	16	28	26	14	17	5	7	5
(개 인)	12	10	8	6	6	3	1	2
제조업	92	81	89	80	87	87	87	91
자금사정 BSI ³⁾	(97)	(91)	(90)	(80)	(85)	(85)	(93)	(87)<92>

주: 1) 전자결제액 조정후, % 2) 개수
 3) ()내는 전기 조사시 전망치, < >내는 2013. 7월 전망치

대경권

□ 실물경제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생산	-1.1	-0.9	-2.0	-9.5	-6.8	-2.9	-5.6	-11.7	..
(전자통신)	-5.4	-5.4	-1.5	-22.9	-20.6	-13.9	-14.4	-33.7	..
(1차 금속)	-3.5	-1.7	-7.5	-6.3	-2.3	0.3	-4.8	-2.0	..
(자동차부품)	11.8	2.2	-0.5	-0.2	0.9	4.0	1.6	-2.7	..
(기계장비)	-8.2	0.7	-4.6	-11.7	-5.0	-3.5	-7.3	-4.3	..
(섬유)	-6.7	-6.8	-5.7	-2.3	0.7	1.1	1.3	-0.2	..
제조업업황 BSI ¹⁾⁹⁾	74	71	70	72	73	73	75	72	67
	(81)	(80)	(72)	(72)	(81)	(79)	(81)	(82)	(77)
비제조업매출 BSI ⁹⁾	88	82	82	73	75	76	78	72	73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6.4	3.4	2.4	-4.1	1.8	-2.6	1.1	7.4	..
백화점 판매액지수 ²⁾	14.9	1.2	-1.5	-4.3	0.6	-3.9	0.9	5.6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²⁾	1.4	4.7	5.3	-4.0	2.7	-1.7	1.4	8.5	..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1.8	-1.7	17.6	3.9	1.7	11.4	2.5	-7.9	..
현재생활형편 CSI ⁹⁾	91	89	87	90	92	92	91	94	93
건축허가면적 ³⁾	-25.3	-5.5	0.2	-12.4	13.4	32.7	16.9	-7.8	..
	(3,119)	(2,965)	(3,033)	(2,252)	(3,537)	(1,211)	(1,381)	(945)	..
건축착공면적 ³⁾	7.7	-13.3	1.7	27.4	18.1	16.3	15.2	25.3	..
	(3,055)	(2,244)	(2,767)	(3,073)	(3,607)	(1,207)	(1,447)	(952)	..
건설수주액	-57.0	34.0	-26.9	-11.7	41.3	27.2	140.2	12.1	..
미분양아파트 ⁴⁾	8,822	7,633	6,489	4,722	3,841	4,359	4,010	3,841	..
건설업업황 BSI ⁹⁾	64	55	55	54	60	55	64	62	67
설비투자 BSI ⁹⁾	98	97	97	107	101	104	99	101	98
수 출	-2.3	-2.8	9.9	4.8	8.9	13.2	15.7	-2.3	..
취업자수증감 ⁵⁾	6.2	6.1	3.6	1.1	0.3	1.1	0.3	-0.4	..
(비농림어업)	(7.4)	(6.9)	(4.3)	(0.4)	(-0.4)	(0.0)	(-0.1)	(-1.0)	..
비경제활동인구증감 ⁵⁾	-2.1	-1.9	1.5	3.4	2.9	3.1	3.1	2.5	..
실 업 륜 ⁶⁾	2.9	2.8	2.4	3.5	2.8	2.8	2.5	3.1	..
경제활동참가율 ⁶⁾	62.9	62.8	61.7	60.0	62.5	62.0	62.7	62.9	..
고 용 륜 ⁶⁾	61.1	61.0	60.2	57.9	60.8	60.3	61.1	60.9	..
소비자물가 ⁷⁾	2.7	1.6	1.7	1.5	0.9	1.2	0.8	0.9	1.4
	(0.3)	(0.6)	(-0.4)	(1.0)	(-0.3)	(-0.2)	(-0.0)	(-0.1)	(0.1)
주택매매가격 ⁸⁾	2.1	1.3	1.6	1.4	1.9	0.8	0.5	0.6	0.8
주택전세가격 ⁸⁾	2.9	1.8	2.3	1.8	1.6	0.8	0.4	0.4	0.6
아파트매매가격 ⁸⁾	2.4	1.6	2.1	1.8	2.5	1.0	0.7	0.8	1.0
토지가격 ⁸⁾	0.4	0.3	0.4	0.3	0.4	0.1	0.1	0.2	..

주: 1)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 >내는 2013.8월 전망치
 2) 불변지수(2010=100)
 3) ()내는 기간중 허가 및 착공면적(천㎡)
 4) 기말기준(호)
 5) 전년동기대비 증감(만명)
 6) 기간중
 7) ()내는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8)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9) BSI, CSI는 지수(기준치=100)

□ 금융기관 여·수신¹⁾

	기간중 증감액									(기말기준, 조원)	
	2012				2013					잔액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3월말	6월말	
예금은행 예금	1.1 (2.0)	-0.2 (-0.4)	-0.7 (-1.1)	1.6 (2.8)	2.3 (3.8)	0.6 (1.1)	0.8 (1.4)	0.8 (1.3)	59.4 <3.2>	61.7 <5.1>	
(요구불 예금)	-0.3 (-4.0)	-0.6 (-8.0)	0.6 (9.0)	0.3 (4.8)	0.3 (4.2)	-0.3 (-4.6)	0.2 (3.2)	0.4 (5.7)	7.2 <0.9>	7.5 <9.4>	
(저축성 예금)	1.4 (2.8)	0.3 (0.6)	-1.2 (-2.4)	1.3 (2.5)	2.0 (3.8)	1.0 (1.9)	0.6 (1.1)	0.4 (0.7)	52.2 <3.6>	54.1 <4.5>	
비은행기관 수신	1.5 (2.0)	1.1 (1.5)	1.3 (1.7)	0.5 (0.7)	1.2 (1.5)	0.1 (0.1)	0.4 (0.5)	0.7 (0.8)	77.7 <6.0>	78.9 <5.4>	
수신 합계	2.6 (2.0)	0.9 (0.7)	0.6 (0.5)	2.1 (1.6)	3.4 (2.5)	0.8 (0.5)	1.2 (0.9)	1.5 (1.1)	137.1 <4.8>	140.5 <5.3>	
예금은행 대출	1.7 (2.6)	1.1 (1.7)	1.1 (1.6)	1.1 (1.7)	2.2 (3.2)	0.7 (1.0)	0.4 (0.6)	1.1 (1.6)	69.7 <7.6>	71.9 <8.4>	
(가계 대출)	0.5 (2.2)	0.3 (1.4)	0.9 (4.1)	-0.3 (-1.4)	0.8 (3.6)	0.2 (0.8)	0.2 (0.7)	0.5 (2.0)	22.5 <6.3>	23.3 <7.8>	
[주택 대출]	0.3 (2.4)	0.3 (2.4)	0.7 (5.3)	0.0 (-0.2)	0.7 (4.9)	0.1 (1.0)	0.2 (1.2)	0.4 (2.6)	13.6 <10.2>	14.2 <12.9>	
(기업 대출)	1.1 (2.7)	1.1 (2.6)	0.0 (0.1)	1.1 (2.4)	1.5 (3.3)	0.5 (1.1)	0.3 (0.7)	0.7 (1.5)	45.6 <8.0>	47.1 <8.6>	
비은행기관 여신	0.7 (2.4)	0.0 (-0.1)	0.8 (2.7)	0.2 (0.6)	0.8 (2.6)	0.2 (0.6)	0.3 (0.8)	0.4 (1.2)	31.5 <5.7>	32.3 <5.9>	
여신 합계	2.4 (2.5)	1.1 (1.1)	1.9 (1.9)	1.3 (1.3)	3.1 (3.0)	0.9 (0.9)	0.7 (0.7)	1.5 (1.4)	101.2 <7.0>	104.3 <7.6>	

주: 1) ()내는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대비 증감률(%)

□ 자금사정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어음부도율 ¹⁾	0.18	0.21	0.22	0.19	0.12	0.15	0.10	0.11
부도업체수 ²⁾	22	23	24	28	9	1	2	6
(법 인)	12	15	12	19	2	0	1	1
(개 인)	10	8	12	9	7	1	1	5
제조업 자금사정 BSI ³⁾	86 (89)	83 (86)	85 (87)	83 (84)	79 (86)	82 (87)	83 (87)	74 (83)<74>

주: 1) 전자결제액 조정후, % 2) 개수
 3) ()내는 전기 조사시 전망치, < >내는 2013. 7월 전망치

강원권

□ 실물경제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생산	6.7	-1.9	-5.4	-2.9	0.8	2.5	1.4	-1.7	..
(비금속광물)	3.2	-2.9	-14.3	-0.6	3.2	10.4	5.2	-5.2	..
(식료품)	-4.5	0.2	-6.7	-4.0	10.3	5.3	11.5	14.3	..
(음료)	-5.0	-1.9	4.1	-10.8	0.9	5.3	0.4	-2.4	..
(자동차부품)	36.1	9.3	8.4	5.5	-0.1	1.7	-1.7	-0.3	..
(의료·정밀기기)	39.4	-0.9	-1.7	13.7	8.6	-3.0	29.7	3.1	..
제조업업황 BSI ¹⁾⁹⁾	81	71	63	64	71	68	71	75	80
	(85)	(80)	(72)	(70)	(79)	(79)	(79)	(80)	(80)<84>
비제조업매출 BSI ⁹⁾	75	74	68	62	68	65	70	69	6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9.1	16.4	25.0	8.2	5.5	2.0	6.6	7.9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²⁾	-2.2	7.0	9.2	-3.7	4.3	1.1	4.8	6.9	..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1.9	-7.2	3.5	-0.9	-5.1	1.2	-5.9	-10.4	..
소비자심리지수	104	99	99	105	106	104	108	107	107
현재생활형편 CSI ⁹⁾	89	88	88	89	93	92	95	93	94
건축허가면적 ³⁾	36.5	-14.6	-34.3	9.4	8.0	-15.9	-29.0	72.7	..
	(1,144)	(964)	(1,085)	(677)	(1,235)	(322)	(280)	(633)	..
건축착공면적 ³⁾	-26.0	49.4	-16.7	3.0	28.2	40.1	5.6	45.4	..
	(782)	(1,187)	(676)	(641)	(1,003)	(348)	(321)	(334)	..
건설수주액	-26.4	133.7	29.6	-54.6	18.3	1,756.2	-20.6	-77.4	..
미분양아파트 ⁴⁾	3,086	3,616	4,421	3,846	3,461	4,149	3,751	3,461	..
설비투자 BSI ⁹⁾	99	97	95	94	99	96	99	101	102
수 출	9.9	8.2	8.0	20.2	2.9	-7.8	17.7	-1.3	..
취업자수증감 ⁵⁾	0.7	2.8	2.9	3.1	1.1	1.2	1.4	0.5	-0.1
(비농림어업)	(0.6)	(2.3)	(1.9)	(1.8)	(0.5)	(0.6)	(0.8)	(-0.4)	(-0.8)
비경제활동인구증감 ⁵⁾	1.1	-0.5	0.5	1.0	1.8	2.3	1.1	1.8	2.5
실 업 륜 ⁶⁾	2.1	2.4	1.7	2.7	2.2	2.0	2.2	2.4	2.1
경제활동참가율 ⁶⁾	60.1	61.1	58.2	53.7	59.6	58.6	60.6	59.6	60.0
고 용 륜 ⁶⁾	58.8	59.6	57.2	52.2	58.3	57.4	59.3	58.2	58.8
소비자물가 ⁷⁾	2.3	1.0	1.3	0.8	0.2	0.5	0.0	0.1	0.8
	(0.1)	(0.4)	(-0.3)	(0.3)	(-0.3)	(-0.1)	(-0.1)	(-0.1)	(0.1)
주택매매가격 ⁸⁾	0.4	0.0	-0.1	-0.3	-0.1	0.0	0.1	-0.1	0.0
주택전세가격 ⁸⁾	0.3	0.1	0.4	0.2	0.4	0.1	0.2	0.0	0.0
아파트매매가격 ⁸⁾	0.5	-0.2	0.0	-0.7	0.0	0.1	0.2	-0.2	-0.1
토지가격 ⁸⁾	0.5	0.4	0.4	0.4	0.4	0.1	0.1	0.1	..
관광객수(만명)	1,687	3,892	1,846	1,687	-	-	-	-	..
(내국인)	1,641	3,857	1,790	1,634	-	-	-	-	..
(외국인)	46	35	56	53	-	-	-	-	..
축산물 출하량 ¹⁰⁾	140.2	122.6	115.0	69.3	46.0	55.3	42.9	39.9	27.5

주: 1)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 >내는 2013.8월 전망치
 2) 불변지수(2010=100)
 3) ()내는 기간중 허가 및 착공면적(천㎡)
 4) 기말기준(호)
 5) 전년동기대비 증감(만명)
 6) 기간중
 7) ()내는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8)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9) BSI, CSI는 지수(기준치=100)
 10) 소돼지 도축 마리수 기준

□ 금융기관 여·수신¹⁾

	기간중 증감액									(기말기준, 억원)	
	2012				2013					잔액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3월말	6월말	
예금은행 예금	1,076 (0.8)	1,648 (1.2)	-5,704 (-4.2)	7,374 (5.6)	5,236 (3.8)	3,353 (2.4)	1,233 (0.9)	650 (0.5)	138,997 <3.3>	144,234 <6.3>	
(요구불 예금)	662 (3.5)	-1,898 (-9.7)	1,689 (9.6)	2,283 (11.8)	627 (2.9)	-1,708 (-7.9)	-375 (-1.9)	2,710 (13.9)	21,599 <14.5>	22,226 <13.8>	
(저축성 예금)	414 (0.4)	3,545 (3.1)	-7,392 (-6.2)	5,091 (4.5)	4,610 (3.9)	5,061 (4.3)	1,608 (1.3)	-2,060 (-1.7)	117,398 <1.4>	122,008 <5.0>	
비은행기관 수신	3,365 (1.7)	4,586 (2.3)	1,986 (1.0)	-75 (0.0)	4,586 (2.3)	1,168 (0.6)	1,081 (0.5)	2,337 (1.1)	203,758 <5.1>	208,344 <5.6>	
수신 합계	4,442 (1.4)	6,234 (1.9)	-3,718 (-1.1)	7,299 (2.2)	9,822 (2.9)	4,520 (1.3)	2,314 (0.7)	2,987 (0.9)	342,755 <4.3>	352,577 <5.9>	
예금은행 대출	2,055 (1.8)	2,233 (1.9)	3,714 (3.2)	-457 (-0.4)	3,879 (3.2)	1,439 (1.2)	868 (0.7)	1,571 (1.3)	120,986 <6.7>	124,865 <8.1>	
(가계 대출)	1,118 (2.1)	937 (1.7)	2,170 (3.9)	-825 (-1.4)	2,505 (4.4)	481 (0.8)	562 (1.0)	1,463 (2.5)	57,441 <6.3>	59,946 <8.7>	
[주택 대출]	933 (3.6)	719 (2.7)	1,339 (4.9)	-39 (-0.1)	1,944 (6.8)	261 (0.9)	368 (1.3)	1,315 (4.5)	28,658 <11.5>	30,602 <14.9>	
(기업 대출)	918 (1.6)	1,185 (2.0)	1,207 (2.0)	704 (1.2)	1,283 (2.1)	980 (1.6)	157 (0.3)	146 (0.2)	61,011 <7.0>	62,294 <7.6>	
비은행기관 여신	1,264 (1.4)	-360 (-0.4)	1,639 (1.8)	-1,468 (-1.6)	1,277 (1.4)	671 (0.7)	150 (0.2)	456 (0.5)	93,157 <1.2>	94,433 <1.2>	
여신 합계	3,319 (1.6)	1,873 (0.9)	5,353 (2.5)	-1,925 (-0.9)	5,156 (2.4)	2,110 (1.0)	1,018 (0.5)	2,027 (0.9)	214,142 <4.2>	219,298 <5.0>	

주: 1) ()내는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대비 증감률(%)

□ 자금사정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어음부도율 ¹⁾	0.37	0.03	0.02	0.04	0.02	0.03	0.02	0.01
부도업체수 ²⁾	9	8	5	3	5	3	1	1
(법 인)	9	6	5	2	5	3	1	1
(개 인)	0	2	0	1	0	0	0	0
제조업	75	71	63	72	81	72	85	85
자금사정 BSI ³⁾	(78)	(77)	(72)	(72)	(85)	(84)	(80)	(90)<85>

주: 1) 전자결제액 조정후, % 2) 개수
 3) ()내는 전기 조사시 전망치, < >내는 2013. 7월 전망치

제주권

□ 실물경제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생산	8.0	-3.7	-14.9	12.7	-0.7	3.2	-4.0	-0.7	..
(식품)	6.7	-8.8	-30.6	20.0	-4.6	15.3	-12.5	-12.4	..
(음료)	-2.3	-12.9	5.7	3.5	-3.0	-19.5	-1.2	11.7	..
(비금속광물제품)	28.5	8.8	-5.3	12.6	2.2	10.4	-3.1	1.0	..
제조업업황 BSI ¹¹⁾	91	85	78	57	76	66	77	84	84
	(84)	(96)	(83)	(69)	(83)	(77)	(90)	(81)	(92)<94>
비제조업매출 BSI ¹¹⁾	98	90	78	65	86	84	86	89	86
신용카드 이용액 ²⁾	6.8	1.8	5.5	4.6	5.4	7.7	6.4	2.0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³⁾	6.0	-2.9	-8.0	-4.9	-0.3	-0.7	-2.3	2.1	..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⁴⁾	171.6	177.3	195.9	34.7	-7.3	16.7	-6.7	-26.8	..
현재생활형편 CSI ¹¹⁾	93	90	94	91	90	92	91	88	90
건축허가면적 ⁵⁾	45.2	-17.5	-28.2	-2.1	-14.1	20.5	-51.0	-3.4	..
	(749)	(554)	(593)	(505)	(644)	(225)	(128)	(291)	..
건축착공면적 ⁵⁾	17.9	8.7	-30.8	-11.2	-1.4	-32.2	27.1	5.5	..
	(517)	(541)	(400)	(420)	(510)	(132)	(223)	(155)	..
건설수주액	12.6	-18.9	-30.9	-45.4	8.7	12.2	45.3	-17.5	..
미분양아파트 ⁶⁾	290	982	954	996	744	983	925	744	..
건설업업황 BSI ¹¹⁾	86	79	79	62	53	54	50	54	53
설비투자 BSI ¹¹⁾	106	105	105	100	90	92	89	90	97
수 출	-8.9	15.5	13.8	1.9	-4.6	-10.7	8.9	-12.6	..
취업자수증감 ⁷⁾	1.5	2.3	5.3	2.6	13.1	13.9	13.8	11.5	11.9
(비농림어업)	(-2.1)	(-0.2)	(-0.2)	(4.4)	(14.4)	(13.9)	(17.3)	(12.1)	(16.5)
비경제활동인구증감 ⁷⁾	0.1	2.3	3.3	10.1	3.3	1.2	3.2	5.4	1.7
실업률 ⁸⁾	1.8	1.3	0.9	2.0	1.7	2.0	1.5	1.7	2.6
경제활동참가율 ⁸⁾	67.2	66.6	68.2	65.9	67.6	67.0	68.1	67.7	67.8
고용률 ⁸⁾	65.9	65.7	67.6	64.6	66.4	65.7	67.0	66.5	66.0
소비자물가 ⁹⁾	1.0	0.5	1.0	0.8	1.0	0.8	0.9	1.3	1.9
	(-0.5)	(0.3)	(0.5)	(0.6)	(-0.3)	(-0.2)	(0.2)	(0.2)	(0.3)
주택매매가격 ¹⁰⁾	0.5	0.1	-0.1	-0.1	-0.4	-0.2	-0.2	-0.0	0.0
주택전세가격 ¹⁰⁾	0.3	0.0	0.3	0.4	0.5	0.7	-0.1	-0.1	0.1
아파트매매가격 ¹⁰⁾	1.1	0.4	0.4	0.1	-0.7	-0.7	-0.0	0.0	0.0
토지가격 ¹⁰⁾	0.3	0.3	0.4	0.4	0.3	0.1	0.2	-0.0	..
관광객수	15.0	5.6	6.3	0.9	9.0	10.1	5.4	12.0	19.8
(내국인)	6.2	-3.9	2.6	-3.1	4.2	4.4	3.7	4.7	6.6
(외국인)	94.9	55.2	28.8	35.8	32.7	41.3	14.4	42.3	59.5
농산물 출하액	3.5	38.5	-10.3	8.2	15.6	40.5	-7.0	7.1	..
축산물 출하량	9.3	13.8	5.4	3.5	7.6	22.2	3.5	-2.8	..
수산물 출하량	1.2	-14.6	-27.9	0.9	-30.2	-12.3	-38.7	-33.2	..

주: 1) ()내는 전월에 조사시 전망치
 2) 은행계 신용카드 물품·용역 구매액 기준
 3) 불변지수(2010=100)
 4) 2012.1.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형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 취득세율을 인하(7%→5%)한 이후 리스차량이 대규모로 등록지를 이전
 5) ()내는 기간중 허가 및 착공면적(천㎡)
 6) 기말기준(호)
 7) 전년동기대비 증감(천명), 분기수치는 월평균
 8) 기간중
 9) ()내는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10)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11) BSI, CSI는 지수(기준치=100)

□ 금융기관 여·수신¹⁾

	기간중 증감액									(기말기준, 억원)	
	2012				2013					잔액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3월말	6월말	
예금은행 예금	-1,582	-222	1,320	-208	3,708	1,712	1,092	904	64,223	67,931	
	(-2.4)	(-0.4)	(2.1)	(-0.3)	(5.8)	(2.7)	(1.7)	(1.3)	<-1.1>	<7.3>	
(요구불 예금)	101	-424	890	-98	906	69	828	9	7,154	8,060	
	(1.5)	(-6.2)	(14.0)	(-1.4)	(12.7)	(1.0)	(11.5)	(0.1)	<7.0>	<18.8>	
(저축성 예금)	-1,683	202	430	-110	2,802	1,643	264	895	57,069	59,871	
	(-2.9)	(0.4)	(0.8)	(-0.2)	(4.9)	(2.9)	(0.4)	(1.5)	<-2.0>	<5.9>	
비은행기관 수신	543	1,031	3,648	1,360	1,944	994	150	800	98,500	100,444	
	(0.6)	(1.1)	(3.9)	(1.4)	(2.0)	(1.0)	(0.2)	(0.8)	<7.2>	<8.6>	
수신 합계	-1,039	809	4,968	1,152	5,652	2,706	1,242	1,704	162,723	168,375	
	(-0.7)	(0.5)	(3.2)	(0.7)	(3.5)	(1.7)	(0.8)	(1.0)	<3.8>	<8.1>	
예금은행 대출	-673	1,903	1,876	525	1,947	549	525	873	64,118	66,065	
	(-1.1)	(3.20)	(3.0)	(0.8)	(3.0)	(0.9)	(0.8)	(1.3)	<6.0>	<10.5>	
(가계 대출)	-129	-53	1,080	-222	626	13	203	410	21,221	21,847	
	(-0.6)	(-0.3)	(5.3)	(-1.0)	(2.9)	(0.1)	(1.0)	(1.9)	<3.3>	<7.0>	
[주택 대출]	88	201	752	388	501	-1	164	338	8,320	8,821	
	(1.3)	(2.9)	(10.5)	(4.9)	(6.0)	(0.0)	(2.0)	(4.0)	<20.7>	<26.4>	
(기업 대출)	1,364	1,956	796	747	1,321	536	322	463	42,897	44,218	
	(3.6)	(5.0)	(1.9)	(1.8)	(3.1)	(1.2)	(0.7)	(1.1)	<12.8>	<12.2>	
비은행기관 여신	-673	1,707	2,228	-473	1,008	595	251	162	48,369	49,377	
	(-1.5)	(3.8)	(4.8)	(-1.0)	(2.1)	(1.2)	(0.5)	(0.3)	<6.1>	<10.0>	
여신 합계	-1,346	3,610	4,104	52	2,955	1,144	776	1,035	112,487	115,442	
	(-1.3)	(3.4)	(3.8)	(0.0)	(2.6)	(1.0)	(0.7)	(0.9)	<6.1>	<10.2>	

주: 1) ()내는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대비 증감률(%)

□ 자금사정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어음부도율 ¹⁾	0.02	0.02	0.04	0.03	0.02	0.02	0.03	0.02
부도업체수 ²⁾	5	2	7	6	5	4	1	-
(법 인)	2	-	4	2	1	1	-	-
(개 인)	3	2	3	4	4	3	1	-
제조업 자금사정 BSI ³⁾	91	86	94	80	78	66	79	90
	(84)	(98)	(94)	(86)	(81)	(85)	(78)	(79)<88>

주: 1) 전자결제액 조정후, % 2) 개수
 3) ()내는 전기 조사시 전망치, < >내는 2013. 7월 전망치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자료 목록⁷⁰⁾

수도권

최근 경기지역 수출입동향 및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김현희, 김선진 (2012/2/3)

경기지역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윤병득 (2012/3/7)

최근 인천지역 GRDP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정복용, 정재욱 (2012/5/11)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과 시사점
전재현, 강기운 (2012/5/18)

인천지역 고용 동향 및 정책 과제
임진수, 황지용 (2012/5/21)

FTA가 경기북부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과제
김현희 (2012/6/21)

최근 경기지역 신설법인수 동향과 시사점
하지원 (2012/6/29)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FTA에 따른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이상훈, 김현희 (2012/7/17)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정복용, 정재욱 (2012/7/27)

인천지역 수출입구조 및 특징과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
임진수, 황지용 (2012/8/14)

반도체 산업이 경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노원중, 이장원 (2012/9/13)

경기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최근 경영현황 및 시사점
하지원 (2012/10/17)

경기도와 인접지역 경제권역 구분에 관한 연구
손명기, 정문갑 (2012/10/2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과 시사점
김현희, 윤병득 (2012/11/5)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및 정책과제
윤영훈, 정복용, 임진수 (2012/11/15)

인천지역 소상공인 지원방안 -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김번욱, 황지용 (2012/11/19)

경기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산업화 방안
최희갑, 전재현 (2012/11/27)

인천 공항 및 항만 배후물류단지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김태승, 임진수, 이정욱 (2012/12/7)

인접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경기북부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이정운, 김성환 (2012/12/10)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임진수, 황지용 (2012/12/11)

인천지역 인구변화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과제
한재준, 정재욱 (2012/12/20)

경기 북부지역 가구산업 현황 및 과제
임광순, 윤병득 (2012/12/31)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및 예금동향과 시사점
조지은 (2013/2/4)

최근 환율 변화가 인천지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정복용, 이창순 (2013/3/15)

인천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안정호, 박민철 (2013/3/25)

최근의 엔화약세가 경기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노원중, 이장원 (2013/4/5)

경기지역 경제의 문제점과 과제
전재현 (2013/4/1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지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오정렬 (2013/4/30)

2012년중 경기도 소비의 역외 유출입 현황 및 시사점
차전영 (2013/5/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천지역 금융 동향 및 시사점
정복용, 이창순 (2013/5/2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과 시사점
김현희, 하지원 (2013/5/22)

최근 경기지역 고용창출력 둔화 요인 분석
오정렬 (2013/7/1)

인천지역 소재 산업단지 운영현황 및 시사점
안정호, 박민철 (2013/7/4)

경기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시사점
조지은 (2013/7/11)

경기도의 기업형 자영업 육성방안
주동현, 손종철, 노원중 (2013/7/23)

70) 한국은행 16개 지역본부에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작성·발간한 조사·연구자료 목록입니다.

동남권

- 울산지역 주력제조업의 경기변동 특성과 시사점
박주하 (2012/1/10)
- 금융공공기관 부산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제고 방안
윤창준 (2012/2/3)
- 경남지역 수출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희준 (2012/2/6)
-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경영현황 및 시사점
박상백 (2012/2/13)
- 최근의 경남지역 고용상황 변화와 정책과제
김영진 (2012/3/6)
- 최근 경남지역 가계대출 급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재호 (2012/3/28)
- 2011년중 부산지역 금융동향의 주요 특징
조용범 (2012/4/13)
- 최근의 진주지역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김영진, 유희준 (2012/4/16)
- 「조선경기종합지수」개발 및 시사결과
신세용 (2012/5/8)
- 부산·중국간 경제적 연관관계의 진전 및 시사점
정민수, 박동현 (2012/5/14)
- 울산지역 플랜트기자재 산업 발전방안
박주하, 구종환(2012/6/7)
- 신용카드지출 행태로 본 부산지역 소비유출입의 특징 및 시사점
고승환, 락법준(2012/6/11)
- 최근 울산지역 주택가격 상승 요인 분석 및 시사점
구종환 (2012/6/13)
- 최근 조선경기 동향 및 전망
신세용, 김영진 (2012/6/14)
- 한-EU FTA 발효이후 부산-EU간 교역특징과 시사점
정민수, 박동현 (2012/7/2)
- 도내 지역간 경제력 격차발생 요인분해 및 시사점
유희준 (2012/7/16)
- 경남지역 제조업의 성장 모멘텀 약화 배경 및 향후 정책과제
공철, 김영진, 신세용, 김영진 (2012/7/20)
- 부산지역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정민수, 박동현 (2012/9/6)
- 최근 부산지역 주택가격 약세배경과 전망
고승환, 락법준 (2012/9/10)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울산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과제
구종환 (2012/9/11)
- 2012 상반기중 부산지역 금융동향 및 주요특징
조용범 (2012/9/20)
-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의 거래중심 인프라 확충방안
박주하, 박기정 (2012/9/21)
- 김해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데이터센터산업의 가능성 평가 및 정책과제
이우배, 유희준 (2012/10/15)
- 최근 울산지역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
이대희 (2012/10/16)
-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에 따른 금융 인프라 확충방안
이규태, 조석방, 박기정 (2012/10/30)
- 서부경남지역 주력산업으로서의 식품산업의 가능성 진단 및 정책과제
김성용, 김영진 (2012/11/9)
- 부산지역 가계금융시장에서의 서민금융기관 역할 제고방안
배근호, 조용범 (2012/11/29)
- 부산지역 청년층 인재유출 현상과 정책과제
김기승, 정민수 (2012/12/5)
- 경상남도 공공투자지출의 경제적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적 지역균형발전 전략 모색
최병호, 이근제, 신세용 (2012/12/5)
- 부산지역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화 전략과 추진과제
조삼현, 락법준 (2012/12/11)
- 부산지역 생산자서비스업의 일반균형분석과 육성전략
고종환, 주수현, 박형호 (2012/12/14)
- 부산신항 배후단지 개발현황과 정책과제
안기명, 고승환 (2012/12/17)
- 울산지역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재호, 구종환 (2012/12/26)
- 경남지역 기계부품 산업의 하도급 거래관계 분석 및 시사점
이천우, 김영진 (2012/12/31)
- 울산지역 생산자서비스업 현황 및 정책과제
박기정 (2013/1/28)
- 울산지역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과 정책과제
박주하 (2013/2/13)
- 부산지역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및 후속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정민수, 배성중, 고승환, 박동현 (2013/2/28)
- 원화 강세가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신세용, 이경태 (2013/2/28)
- 부산, 성공적인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과제
조용범 (2013/3/21)
- 경상남도의 중장기 재정여건 점검 및 시사점
김영진, 박민렬 (2013/3/29)
- 울산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현황 및 정책과제
정우재 (2013/5/2)
- 부산지역 소득구조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고승환, 박동현 (2013/5/16)
- 해외 사례로 본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의 미비점 및 향후 과제
조용범, 성유림 (2013/5/22)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경영상황 악화가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영근, 박민렬 (2013/5/30)

경남·울산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 부품소재기업 유치전략
신세용, 류창훈 (2013/5/31)

최근의 진주지역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김영진, 이경태 (2013/6/21)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울산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우재, 이대회, 류창훈, 차재훈 (2013/7/8)

동태적인자(Dynamic factor)모형을 이용한 경남지역 종합경제활동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신세용, 이경태 (2013/7/23)

울산지역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이대회 (2013/7/24)

경남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경쟁력 평가 및 정책과제
홍석인, 김영진 (2013/7/25)

경남지역 주요 실물경제지표 프로젝트선(Projection)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신세용, 이경태 (2013/7/31)

충청권

최근 충청지역 소비자물가 상승 원인과 시사점
김관희 (2012/1/11)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성공사례 분석과 시사점
최종인, 김경근, 이경주 (2012/2/1)

대전 지역경제의 특징 및 시사점
백봉현, 서하나 (2012/2/3)

충북지역 전략산업의 성장요인 및 발전전략
김관희 (2012/3/15)

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김경근, 서하나 (2012/3/29)

대전·충남지역 소재 중견·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추정 및 시사점
안세현, 이용민 (2012/5/29)

충북 중소 제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요인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김관희 (2012/7/25)

충남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김경근, 서하나 (2012/8/14)

충남지역 철강산업의 현황과 과제
안세현, 이용민 (2012/8/17)

대덕특구 IT산업의 현황과 과제
주현식 (2012/9/26)

충북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시사점
김광민 (2012/10/8)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의 정책방향 및 과제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황혜란, 김경근, 정형권 (2012/11/21)

충북지역 수출 결정요인과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조택희, 김광민, 이병주 (2012/11/29)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양현봉, 민숙홍 (2012/12/4)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서하나, 안세현 (2012/12/10)

대전지역 의료산업의 특징 및 시사점
김경근, 서하나 (2012/12/20)

충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김관희 (2012/12/26)

충청북도 한방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김훈 (2012/12/26)

충북의 지역내총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구조와 지역소득 증대방안
이현재, 김관희 (2012/12/26)

2012년 충청지역 경제에 대한 평가
김관희, 김광민, 문지희, 전은희 (2012/12/31)

대전지역 자영업의 현황과 시사점
권윤정, 민숙홍 (2013/1/3)

충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김관희 (2013/1/3)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안세현 (2013/1/4)

대전지역 고용의 특징 및 시사점
이용민 (2013/1/9)

최근 환율하락(원화강세-엔화약세)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세현, 김경근 (2013/2/28)

대전충남지역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권윤정, 문용필 (2013/4/12)

충북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진용범, 문지희 (2013/5/2)

충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김광민 (2013/5/28)

대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육성방안
이덕희, 주현식 (2013/6/28)

호남권

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서정석 (2012/1/31)

전남 해양테저산업 육성방안
김화용 (2012/2/7)

2011년중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동향의 특징
김화용 (2012/3/6)

전남 농업의 특징 및 시사점
박지섭, 이은간 (2012/3/21)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기업 현황과 정책과제 문제철 (2012/3/22)	한중 FTA에 대응한 전남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오병기, 박성훈, 김창범 (2012/12/7)
전남서남권 조선관련 중소기업 업황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박지섭 (2012/4/30)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비교분석 및 향후 육성 방향 - 4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민창, 소순후, 이인규, 박의성 (2012/12/12)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전북의 종자산업 육성방안 박의성 (2012/5/24)	여수오일허브의 발전전략과 지자체의 역할 이충배 (2012/12/21)
전남서남부지역 고용의 특징 및 시사점 이은간, 유영찬 (2012/6/8)	광양만권 도시의 기능 정립을 통한 광역권 발전전략 김현덕 (2012/12/21)
전북지역 주거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한민, 노재광 (2012/6/13)	최근 목포항 물류처리 현황 및 시사점 유영찬 (2013/1/11)
국내 도시광산산업 현황과 광주지역의 과제 조세형 (2012/6/22)	전남 친환경농업의 현황 평가 및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박지섭, 이은간, 박창현, 배성중 (2013/1/24)
2012.2/4분기 전남 서남권 시군별 경제동향 박지섭 (2012/6/27)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 서정석 (2013/2/4)
전남서남부지역 수산물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박지섭 (2012/7/12)	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의성, 조세형, 박지섭 (2013/2/28)
전남서남부지역 풍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전성범 (2012/8/6)	특화 및 연계전략을 통한 광주지역 문화산업 발전 방안 최종일, 박재진, 박종현 (2013/2/28)
광양만권 경제의 특징과 발전 전략 서정석 (2012/8/8)	최근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동향과 특징 전성범 (2013/3/8)
최근 전북지역 주택가격 하락 배경 및 평가 한민, 노재광 (2012/8/31)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의 특징 및 시사점 조성욱 (2013/4/2)
전남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김화용 (2012/9/13)	전남도청 이전 이후 지역경제 변화와 시사점 박지섭 (2013/4/19)
최근 광주전남지역 주택가격 동향 및 전망 조성욱 (2012/10/11)	금융위기 이후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황 및 평가 박의성 (2013/5/8)
광주 디자인산업 현황 및 전략적 육성방안 송진희, 정태영 (2012/11/7)	최근 엔화약세가 전북지역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 노재광, 한민 (2013/5/16)
2012.3/4분기 전남 서남권 시군별 경제동향 박지섭 (2012/11/8)	GRDP로 본 전남서남권 경제의 특징 및 시사점 박영환 (2013/6/21)
전라북도 프리미엄 공동 상품브랜드 개발 전략 박경수 (2012/11/15)	최근 전남지역 귀농귀촌 현황과 과제 전성범 (2013/7/5)
의료관광 경쟁력비교분석을 통한 광주전남지역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장양례, 서정석 (2012/11/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북지역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과 정책적 과제 김용현, 신영석 (2013/7/16)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전남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정인교, 박지섭, 박동준 (2012/11/30)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임준형, 전의전, 기성래, 김장호 (2012/12/3)	
대외 무역환경변화가 전북지역 무역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무역특화지수 변화를 중심으로 김수이, 손종철, 한민 (2012/12/6)	

대경권

2012년중 포항지역 기업의 업황 및 자금수요 전망
배해원, 김태현 (2012/1/12)

영일만항의 활성화 방안
김진홍, 안세일, 박창현 (2012/1/19)

- 지역 경제상황 점검 결과
김병조 (2012/2/27)
- 대구경북지역의 수출구조와 시사점
한상우 (2012/2/28)
- 최근 이란경제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진홍, 김진호 (2012/3/8)
- 한미FTA발효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김진홍, 김진호 (2012/3/15)
- 최근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강기우 (2012/4/3)
- 대구지역 전통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병조, 장홍섭 (2012/4/26)
- 대구경북지역 신용카드 이용 현황 및 시사점
이윤숙 (2012/6/14)
- 포항철강클러스터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김진홍 (2012/6/14)
- 안동지역 농산물 유통구조 발전방안
이윤숙, 박동진, 김태형 (2012/7/6)
- 경북지역 농업현황과 발전전략
강기우, 장재봉 (2012/7/9)
- 러시아의 WTO가입과 우리 지역의 대응 전략
김진홍, 김진호 (2012/7/26)
- 포항 주택가격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이승윤 (2012/7/31)
- 경북 농업의 경쟁력 분석 및 발전전략
강기우, 장재봉 (2012/8/13)
- 포항지역 산업연관표 및 산업연관구조 분석
권태현 (2012/9/3)
- 경주시의 MICE산업 육성방안
김진홍, 이우철 (2012/9/13)
- 대구경북지역 상호저축은행 경영현황 및 평가
오권영 (2012/9/28)
-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이민규 (2012/10/22)
- 대구경북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신혜원 (2012/10/26)
- 포항 경제의 Value Chain 분석과 시사점
권태현 (2012/11/2)
- 경북동해안지역 가계대출 동향과 평가
김진홍 (2012/11/2)
- 대구경북지역 경기변동분석과 정책과제
- 베이지안 동태확률(Bayesian DSGE) 모형을 중심으로
김기호, 김병조, 이준희 (2012/12/5)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항지역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김진호, 임원용, 윤재훈 (2012/12/5)
- 대구·경북지역 가계대출 현황과 평가
이윤숙 (2012/12/7)
- 금리변화의 지역별 경제 영향 분석
정기호 (2012/12/13)
- 구미 국가산업단지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권지호, 이승희 (2012/12/27)
-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체의 자금사정 점검 및 시사점
강기우 (2013/1/22)
- 포항지역 연구개발(R&D)의 경제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권태현, 김진홍 (2013/2/5)
- 경북동해안 글로벌 발전방향
김진홍 (2013/2/14)
- 아베노믹스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김진홍, 김영선 (2013/3/12)
- 대구지역 가계소비 여건 및 정책적 시사점
이윤숙 (2013/3/27)
- 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권지호 (2013/4/5)
- 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 김진호 (2013/4/30)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환경변화와 성장전략
김병조, 강기우 (2013/5/10)
- 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 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 최수미 (2013/6/14)
- 대구경북지역 여성 고용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이윤숙 (2013/6/28)
- 경북동해안지역 동산담보대출 현황과 시사점
육승환, 최준 (2013/6/28)
- 미국 통화정책기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김진홍 (2013/7/4)
- 최근 포항 경제 상황 점검 및 평가
이승윤 (2013/7/9)
- 포항지역 물가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최준, 육승환 (2013/7/15)
- 안동지역의 경제환경 변화와 경제발전전략
김지현, 윤재형 (2013/7/22)

강원권

- 원주지역 자동차부품산업 동향 및 발전과제
박종필, 민지연 (2012/1/17)
- 강원지역 수출산업 현황분석 및 시사점
이문희, 송은영 (2012/1/26)
-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및 과제
장윤경 (2012/2/7)
- 삼척지역 에너지벨트 추진현황과 경제효과
최재림 (2012/2/24)

강원지역 소상공인 비즈니스 현황 및 시사점
민지연 (2012/2/28)

2011년 강원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및 특징
장윤경 (2012/3/29)

최근 강원지역 돈육 생산 및 시장 동향
박종필 (2012/4/10)

19대 총선 이후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제언
박종필 (2012/4/26)

강원 영동지역 수출구조 분석 및 평가
류훈태, 최재림 (2012/4/30)

전환기에 선 강원지역 광물산업의 육성과제
박종필 (2012/5/8)

강원지역 소상공인 현황과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
이태정, 이덕배, 장윤경 (2012/6/14)

강원 영동지역 중소기업 경영현황 분석 및 부실위험 점검
류훈태, 김대석 (2012/7/5)

동해·묵호항의 운영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송재창 (2012/7/18)

강원경제 생산·소비 부문 점검 및 시사점
추명삼 (2012/7/25)

2012년 상반기중 강원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 및 특징
장윤경 (2012/8/27)

강원 영동지역 외국인 관광객 현황과 시사점
송재창, 김대석 (2012/8/31)

강원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류훈태, 김대석 (2012/9/13)

원주지역 주력산업 수출동향 및 과제
이덕배 (2012/9/24)

강원 영동지역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
송재창, 김대석 (2012/10/10)

영동지역 여건변화와 강원경제 발전과제
문제현, 이문희, 배성중, 이은석 (2012/10/22)

강원도 가계부채 상황 점검
문제현 (2012/10/24)

경제적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고려사항 및 시사점
- 인프라 투자 및 활용과 관련하여
장윤경(2012/10/31)

강원 및 제주지역 관광산업 분석을 통한 지역관광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보일, 조강철 (2012/11/15)

강원도형 경제발전 신모델 구축방향
- 인적자원 측면에서 본 강원勢 확대전략
김정원(2012/11/20)

강원도형 경제발전 신모델 구축방향
- 최근 교통망 확충을 고려한 바람직한 성장모델
노승만, 김재진 (2012/11/20)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역경제효과 제고방안
지해명, 송재창, 박창귀 (2012/11/21)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강원경제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성경룡, 박준식, 이덕배 (2012/12/6)

환동해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통한 강원 동해안권 발전
전략
김영식, 류훈태 (2012/12/18)

강원지역 물가변동 특징 및 시사점
추명삼 (2012/12/26)

강원지역 장수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
한재훈, 송민성 (2012/12/31)

원주·충주간 자동차부품산업 공동발전 방안
이덕배, 김광민 (2013/1/31)

강원지역 엔저 대응전략
박종필 (2013/2/21)

강원도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추명삼 (2013/3/2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운영의 현황 및 정책과제
박종필 (2013/4/3)

시멘트 및 레미콘 산업의 현황과 과제
-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고석관, 송재창 (2013/6/5)

강원지역 지방공기업의 재무현황과 시사점
최기산 (2013/6/14)

2012년 강원 영동지역 중소기업 경영현황 분석
류훈태 (2013/7/22)

제주권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고태호, 강정미, 임정현 (2012/1/26)

2011년도 및 최근의 서귀포지역 경제동향
김명현 (2012/1/27)

제주지역 주택시장 동향 및 주요 특징
강정미 (2012/2/28)

제주지역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윤대혁, 조강철 (2012/5/30)

제주지역 건설업 현황과 발전과제
권경호 (2012/8/30)

엔화 환율이 한국 및 제주도 방문 일본인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송병호, 조병수 (2012/9/4)

제주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시사점
송병호, 조병수 (2012/10/31)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의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 한·중 FTA를 중심으로
고성보, 송병호, 박창현 (2012/12/10)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윤대혁, 조강철 (2012/12/20)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강기춘, 조병수 (2012/12/20)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연구
고승환, 정지형, 홍수성 (2013/1/3)
- 제주지역의 1인당 GRDP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이유
윤대혁, 조강철 (2013/1/30)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윤대혁, 조강철 (2013/2/6)
- 최근 제주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여신 증가 원인 및 리스크 점검
조병수 (2013/2/14)
- 아베노믹스(Abenomics), 인화약세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윤대혁, 조강철 (2013/2/27)
-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통해 본 제주지역의 소비유출입 현황
성광진 (2013/3/13)
- 제주지역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고용 부진 요인 및 시사점
황영웅 (2013/3/28)
- 제주지역 가계대출의 신용등급별 대출현황과 시사점
한재찬 (2013/4/10)
- 대체휴일제 시행이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조강철 (2013/4/24)
- 제주지역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조병수 (2013/5/9)
- 제주지역 농림어업 GRDP의 과소규모 추계 및 시사점
윤대혁, 조강철 (2013/5/21)
- 제주지역 자영업의 과밀화 수준 평가 및 시사점
성광진 (2013/6/5)
-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부용, 조병수 (2013/6/18)
- 소득양극화가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황영웅 (2013/7/3)
- 2013년 상반기 제주경제 동향과 하반기 주요 경제여건 점검
윤대혁, 황영웅, 조강철 (2013/7/17)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담당자

부 문	소 속	담당자	문 의
□ 작성총괄	조사국	산업분석팀	김 응 02-759-4243
	"	"	배성종 02-759-4427
□ 종합동향	조사국	산업분석팀	이은석 02-759-4484
	"	"	이홍직 02-759-4193
	"	"	송병호 02-759-4506
	"	"	김주영 02-759-4269
□ 권역별 동향			
○ 수도권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노원종 031-250-0083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안정호 032-880-0034
	강남본부	조사담당	권태현 02-560-1175
○ 충청권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	안세현 042-601-1217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진용범 043-220-0591
○ 호남권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김범서 062-601-1103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김용현 063-250-4081
	목포본부	조사담당	박영환 061-241-1121
○ 대경권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신혜원 053-429-0256
	포항본부	조사담당	김진홍 054-289-2821
○ 동남권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고승환 051-240-3853
	울산본부	기획조사팀	정우재 052-259-7423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이경태 055-260-5092
○ 강원권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이문희 033-258-3282
	강릉본부	조사담당	고석관 033-640-0156
○ 제주권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조강철 064-720-2513
□ 논고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정민수 051-240-3852
	"	"	고승환 051-240-3853
	"	"	박동현 051-240-3856
□ 지역본부 주요 조사연구보고서	조사국	산업분석팀	박상우 02-759-4226
	"	"	박재성 02-759-4217
	"	"	황설웅 02-759-4238
□ 조사지원	지역통합실	지역협력팀	김진용 02-759-4159
	"	"	양양현 02-759-4168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발행인 김중수
편집인 신 운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www.bok.or.kr
발행일 2013년 8월 28일
제 작 (주)제일프린테크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조사·연구 > 종류별자료 > 계간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조사국 산업분석팀(전화 02-759-4506, 이메일 bokind@bok.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